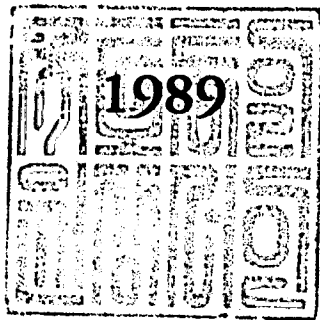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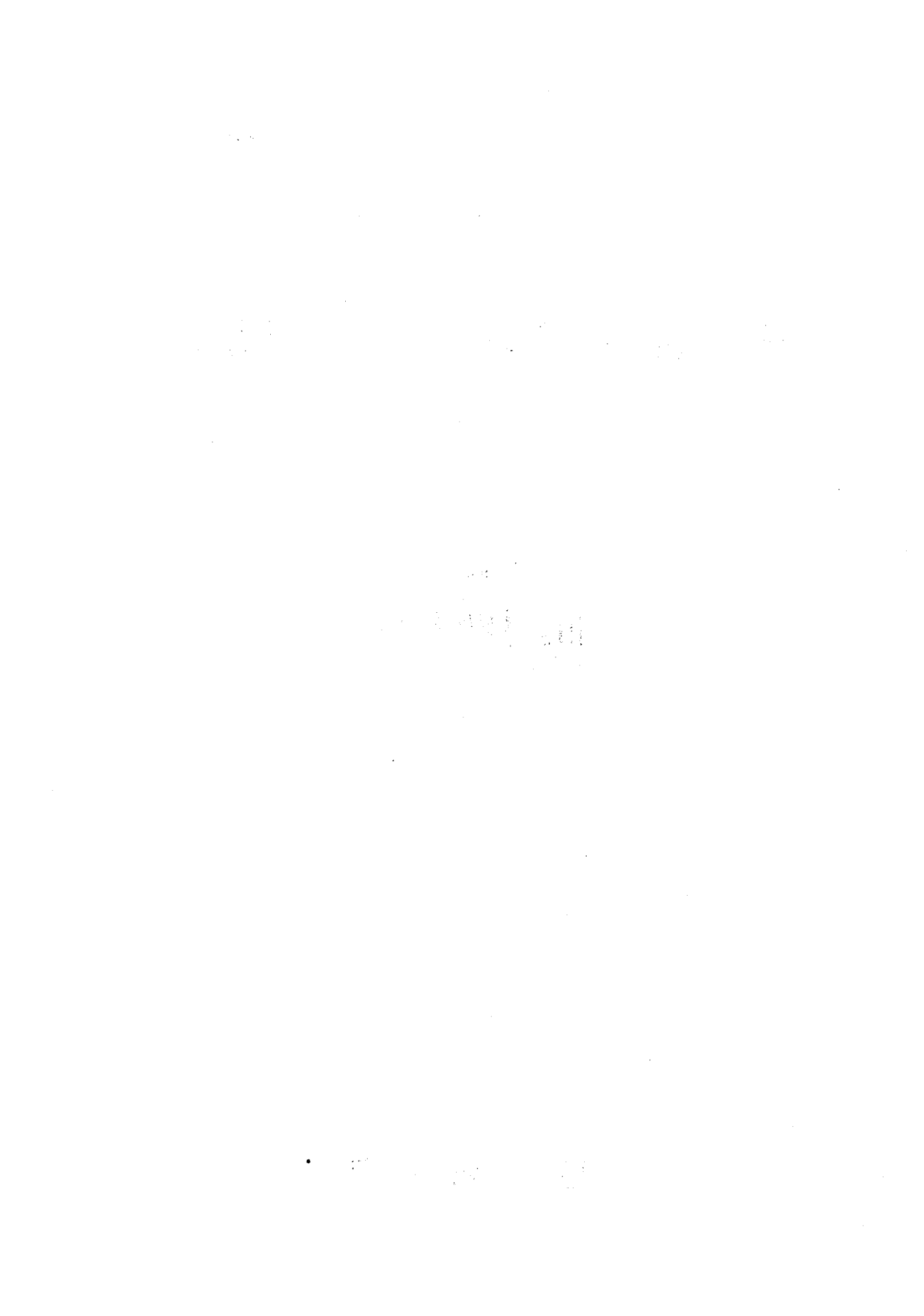


南北韓 關係와 軍備統制問題





이 資料集은 南北韓의 統一問題와 連繫되어 있는 軍事問題에 대한 解決을 摸索하고자 하는 努力의 一環으로 編輯・發刊한 것입니다.

이 冊子에 收錄된 論文들은 韓半島 軍事關係에 대한 學術的 分析和 評價를 위해 國土統一院에서 研究支援을 하였으나, 學者들의 主張이 國土統一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冊子가 韓半島의 軍事問題를 理解하고 研究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南北韓 關係와 軍備統制問題

目 次

崔 榮

韓·美 安保協力體制와
南北韓 關係의 連繫性 / 1

李 榮 一

北韓體制의 展望과
軍備問題 / 29

金 大 洙

南北韓 軍事對峙狀況의
變動展望 / 91

申 正 鉉

韓半島 軍備統制의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 133

韓美安保協力體制와 南北韓關係의 連繫性

崔 榮
(外交安保研究院 教授)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對美 3大 前提課題
- III. 東西軍縮協商패턴의
南北韓 軍縮協商 適用可能性
- IV. 政策建議

I . 問題의 提起

盧泰愚大統領은 1989年 9月 11日 第147回 定期國會에서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發表했다. 이 方案의 主要概念은 「南北聯合」이며 이것은 完全한 統一國家로 가는 中間過程의 過渡的 統一體制를 위한 것이라고 전체하고 盧大統領은 南北聯合의 최고결정기구로 「南北頂上會議」의 設置를 主張하고 있다. 盧大統領은 따라서 可能的 限 빨리 南北頂上會談이 開催되기를 希望하고 있다.

問題의 초점은 韓國側이 줄곧 要求해 온 南北韓頂上會談에 北韓側이 呼應하지 않고 있는 時點에서, 如何히 「南北頂上會談을 實現시킬 수 있느냐」 하는 具體的인 方法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共產主義 政權擔當者들은 「政治·軍事問題」를 내걸고, 이의 解決이 없이는 頂上들의 만남은 意味가 없다는 論理를 내세워 頂上會談에 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政治·軍事問題에서 그들이 展開하고 있는 것은 二重戰略이거니와, 이것은 軍事問題는 美國과 統一問題는 韓國과 協議 하겠다는 2分論理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평양-워싱턴軸」 주장을 「서울-평양軸」으로 轉換케 하는 「새로운 發想」을 韓國側은 구상할 必要가 있다. 즉 南北韓關係改善의 마지막 걸림돌인 「政治·軍事問題」를 해결키 위해 韓國이 이니셔티브를 發揮하여 「서울·평양軸」을 設定, 그 연장선상에서 南北韓의 關係改善을 進展시켜야 한다는 發展論理, 즉 連繫性 論理의 提起가 時急하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 兩國이 安全保障協力體制를 「現實的이고도 時宜에 맞게」 再調整해야 한다는 중요한 課題設定을 부각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筆者는 이를 對美 3 大前提課題라고 命名하고 싶다.

〈第 1 前提課題〉 駐韓美地上軍 撤收以前에 美軍保有戰術核兵器 (SNF)를
撤去

이 戰術核 (Short-range Nuclear Forces, 射程距離 500 km 以下) 撤去論은
① 美國이 조만간 TOMAHAWK 體制로 轉換할 것이라는 判斷에 입각하
며 ② 이 경우 美國은 韓·蘇關係進展에 맞먹는 對北韓 어프로오치의
名分을 確保할 수 있으므로 韓國政府는 韓美安保體制를 견지하는 範圍內
에서 이 撤去問題를 成事시킬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은 이 成事로 말미
암아 北韓의 對美一邊倒的인 軍事會談 開催 主張의 虛構를 粉碎하여 安
保問題에 있어서도 南北韓 양당사자의 努力 없이는 解決이 不可能하다는
「現實認識」을 환기시킬 수 있는 「戰略的 實利」(Strategic Advantage)
를 確保할 수 있다.

〈第 2 前提課題〉 韓美聯合司 (CFC) 중 地上軍構成軍 (GCC) 司令官은 韓
國將星이 맡는 作戰統制權 (op-con) 返還은 「서울-평
양軸」을 推進하는 요긴한 必須條件

〈第 3 前提課題〉 防衛費分擔 (cost-sharing) 에는 前向的으로 應하는 한
편, 「韓半島 範域밖」에 關係되는 負擔分擔 (bur-
den-sharing)의 要求는 可能한 限 遲延시키는 슬기를
가져야 함.

上述한 對美 3 大前提課題 解決과 더불어, 韓國은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諸方案을 提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政治·軍事分野에서의 關係改善策을 研究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東西軍縮協商패턴」研究가 必要하다. 이 協商패턴중 南北韓軍縮協商에 適用 가능한 3가지 側面을 選別하여 검토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CBM 또는 CSBM (헬싱키型的 適用)
- ② 「合理的 充分性」(Razumnaya Dostatochnost)原則에 따른 攻擊型 兵裝備의 減縮
- ③ FOFA作戰을 위한 航空戰力 保有

「Ⅱ章：對美 3大前提課題」중 가장 重要的 「駐韓美地上軍 保有 戰術核兵器 (SNF)의 撤去」(美國과의 緊密한 協議下에 추진되는 것이 必須的임)를 「假定 2」로 설정하고,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따른 「合理的 充分性」原則을 北韓이 受諾하는 것을 「假定 1」로 책정해 볼 것이다. 그리고 「假定 3」으로는, 상술한 北韓의 受諾과 SNF 撤去를 同時에 一括的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package deal 을 설정해 볼 것이다.

이 3가지 假定群을 「妥當性檢討表」로 screen해 보고자 한다. 이 結果를 「政策建議」로 提示하는 分析方法을 채택하기 위해서이다.

II. 對美 3大 前提課題

北韓의 南北韓政治軍事會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研究는 막스 웨버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수 많은 「存在拘束性」(Seinsgebundenheit)에 의해 制約되고 있으므로, 可能的 限 이 制約을 해결하는 것이 先決課題로 부각하고 있다. 이 선결과제는 北韓이 軍事問題解決에 있어 줄곧 주장하고 있는 「평양-워싱턴軸」을 「서울-평양軸」으로 바꾸는 努力에서 始動되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종래의 受動的인 姿勢에서 脫皮하여 軍縮會談에서도 韓國이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하여 名實相符한 「서울-평양軸」을 設定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對美 3大前提課題 해결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1. 駐韓美地上軍保有 核兵器(SNF)의 撤去

- ① INF全廢條約 체결로 韓國에 배치되어 있는 駐韓美地上軍保有 核兵器는 存在理由가 없어졌다.
- ② 부시美行政府는 陸上配置 核兵器시스템에서 艦艇 탑재 TOMAHAWK 體制로 바꿀 공산이 크므로, 韓國은 이 點을 감안, 積極的으로 駐韓美地上軍保有 核兵器(SNF = Short-range Nuclear Forces, 射程距離 500 km 以下の 戰術核兵器)를 철거토록 外交力量을 極大化해야 할 것이다. 이 核兵器철거는 駐韓美地上軍撤收 또는 減縮문제와 「分離」(separate)하여 考慮해야 할 性格의 것이다.
- ③ TOMAHAWK 體制로 變更함으로써 韓·美兩國은 다음과 같은 利點을 획득할 수 있다.

- ㉞ 美國은 韓·蘇關係 進展에 맞먹는 對北韓 어프로치의 名分을 확고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㉟ 韓國은 北韓의 對美一邊倒의 軍事會談 主張의 虛構를 粉碎하여 군사문제에 있어서도 南·北韓 양당사자의 努力 없이는 해결이 不可能하다는 「現實認識」을 환기시킬 수 있는 戰略的 實利(strategic advantage)를 올릴 수 있다.

2. 作戰統制權 返還

- ① 韓·美聯合軍司令部(CFC = Combined Forces Command)體制에 있어, 平時에 있어서는 地上軍指揮體制는 韓國軍이 空軍의 경우에는 美軍이 各己 分擔하는 二元指揮體制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¹⁾
- ② 이 경우 非武裝地帶(DMZ = De-Militarized Zone)는 地上軍의 管轄일 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전개하여 停戰委員會 首席代表에 韓國軍 將星이 補任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 ③ 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 약칭 op-con) 返還問題는, 軍事的 次元을 훨씬 超過하는 高度의 「政治性」을 간직하고 있다. 즉,
 - ㉞ 作戰統制權의 完全返還으로 「光州問題」같은 複雜微妙한 國內政治의 어려움을 다시 惹起시킬 素地를 削除할 수 있을 것이다.
 - ㉟ 이는 韓國의 民主化를 비롯한 진정한 「改革」을 促進시킬 것인 바, 北韓은 이 점에 있어서도 韓國式 主動性的 魅力을 外面할 수 없을 것이다.
 - ㊱ 이러한 魅力은 結局은 安全保障分野에 있어서도 「서울-평양軸」

이 「平壤-워싱턴軸」에 비해 現實的이라는 認識을 北韓當局에게 換氣시키게 되는 것이다.

- ㉔ 1989年 7月 17日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開催된 第21次韓·美年例安保協議會議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韓·美聯合軍司令部의 軍需參謀部長의 포스트가 韓國側 將軍에게 引渡되는 문제가 合意되었다.

또한 同 CFC의 副司令官 (Deputy CINC) 韓國側의 權限을 強化하는 意見도 교환되었다고 한다.

今後, 同 CFC의 司令官 (CINC/CFC) (美側)이 兼하고 있는 陸軍構成軍 (GCC=Ground Component Command)의 司令官을 韓國側이 말는 方向으로 協議가 進行될 것으로 看做된다.²⁾

3. 防衛費分擔과 負擔分擔의 嚴格한 區別

- ① 부시 美行政府의 對韓國 防衛費分擔 (cost-sharing) 增額要求는 避치 못할 것이므로, 이 問題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한 態度로, 例컨대 「費用對 效果比」의 次元에서 協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그러나 韓半島 範域밖에 관련케 되는 負擔分擔 (burden-sharing, 일명 責任分擔 (responsibility-sharing)의 要求에는 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 ㉕ 부시行政府의 對蘇牽制戰略에 말려들 憂慮가 있다. 앞으로 美·蘇의 新데땅트는 進展될 것이나 이와 同時에 부시行政府의 「레이 건主義」는 계속 展開될 것인바, 이는 新正統主義 敎理³⁾에 따른

「힘에 바탕을 둔 平和」의 어프로치를 계속 進展시키게 될 것이다.

- ㉞ 이러한 美國의 2重性戰略을 韓國은 잘 識別하여 韓半島의 平和 定着을 窮極的으로는 沮害케 될 「負擔分擔」을 슬기롭게 回避해 야 할 것이다.
 - ㉟ 이것이 分明치 않을 때, 韓國은 北方政策과 北方外交 전개에 있어 아주 困難한 處地에 陷入케 될 것이다.
 - ㊱ 보다 重要한 것은 負擔分擔은 그 性格上 對象으로 필리핀 등을 想定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그리고 「韓·美·日 3國 安保協力」⁴⁾의 論理로 連繫되어 나갈 憂慮가 있다는 점이다. 실지 케이트研究所의 더그 밴도우先任研究員은 이렇게 主張하고 있다. 즉 「美國은 5年內에 地上軍과 空軍을 韓國에서 撤收하고 1953年의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폐기해야 한다. …………… 美國은 또한 韓國과 日本이 雙務的 安保協定을 맺도록 主薦해야 한다.」⁵⁾
 - ㊲ 그리고 「韓半島問題의 韓國化」 (Koreanization of Korean Peninsula Affairs)에 있어서 韓國이 이니시어티브를 잡게되는 실마리가 될 「서울-평양軸」설정을 위해서도 이 韓半島 領域 밖의 負擔을 나누어 갖는 愚를 犯해서는 안 될 것이다.⁶⁾
- ③ 그런데 第20次 SCM과 第21次 SCM의 結果를 比較해 볼 때, 韓國은 이 「負擔分擔」問題를 보다 더 民族的 次元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 ㉚ 1988年의 第20次 韓美年例安保協議會議에서는 「페르시아灣事態와

관련, 東北아시아駐屯 美軍航空機에 대한 整備支援費」로 500萬 달러를 韓國側이 負擔하는데 合意를 본 바 있다.(美側의 要求額은 2,000萬달러 相當).⁷⁾

- ㉔ 今年(1989年) 第21次 SCM에서는 美軍航空機維持費로 1,200萬달러가 充當토록 合意를 보고 있다.⁸⁾ 「維持費」란, 결국 韓半島範域밖(out-of-area)에서 활약하는 美軍機の 整備費인 것이다. 이것이 700萬달러나 急増한 것이다.
- ④ 第20次 SCM에서 韓美 兩國은 1989~91年동간의 「聯合防衛能力 增強事業」(CDIP=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s) 分擔額 4,000萬달러(每年平均)를 合意한 바 있어 이 部分에서는 美國의 要求가 當분간 없을 것으로 韓國側은 생각해 왔었다.⁹⁾
- ⑤ 그런데 第21次 SCM에서 1990年度에 7,000萬달러, 91年度에는 8,000萬달러 그리고 92年度에 가서는 9,000萬달러로 增額하기로 合意를 보았던 것이다.
- ⑥ 第21次 SCM 開催前에, 美議會와 言論界를 中心으로 駐韓美軍의 削減 내지 撤收에 관한 提案(레빈 上院議員案 등)이 잇따라 提議되었는데, 結果적으로 보아, 이러한 提案들은 韓國의 防衛費分擔을 增額키 위한 一種의 「政治的 恫정」이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¹⁰⁾
- ⑦ 그러나 이와 「바터」로 韓國側이 2가지 MOU(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① 防衛産業育成을 위한 로이얼티引下 ② 地對空미사일(SAM=Surface-to-Air Missile)의 誘導技術의 共同研究開發을 위한 諒解覺書등을 獲得한 것은 큰 成果였다고는

볼 수 있다.¹¹⁾

以上, 3 가지 次元에서 「前提課題」를 알아 보았거니와, 가장 바람직한 方向은 美國이 이 前提課題를 積極적으로 받아들여, 「서울-平壤軸」의 설정을 위해 「커다란 產婆役」을 履行해 주는 데에 있다.

Ⅲ. 東西軍縮協商패턴의 南北韓 軍縮協商 適用可能性

우선, 「軍備의 運用規制」라는 면에서 信賴構築措置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또는 信賴安全構築措置 (CSBM =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를 適用 가능한 패턴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兵力減縮이라는 一般論보다는, 「合理的 充分性」(Razumnaya Dostatochinost, Reasonable Sufficiency) 原則에 따른 攻擊型兵器의 減縮이 重要性을 갖는바, 이 側面에서 東西軍縮協商패턴은 南北韓 軍縮協商努力에 示唆하는 點이 많을 것이다.

세번째로 關心을 두어야 할 대목은 戰略的, 地政學的 그리고 韓美防衛體制의 性格上, 韓國은 獨自的인 攻勢戰略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이른바 「金日成主體軍事戰略」에 따라, 戰略의 攻·守兼備態勢가 完備되어 있다.¹²⁾ 따라서 FOFA (Follow on Forces Attack) 作戰을 위해 전개되는 航空戰力의 減縮問題는 名實相符하게 NATO型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次元에서 韓國은 航空戰力減縮에 있어 慎重을 期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 CBM 또는 CSBM (헬싱키型的 適用)

軍備管理 (arms control)에는 軍備의 量을 規制하는 것 이외에, 量自體를 規制하지 않으나 그 運用을 規制하는 것이 있는데, 「信賴構築措置」(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컨대 演習의 規模를 制限한다던가 演習의 事前通報, 움저버의 相互交換등이 包含된다.

이러한 措置에 대해서는 이미 1975年 헬싱키에 있어서의 CSCE(歐洲 安保協力會議,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最終文書』(Final Act) 採擇時, 合意된 바 있다.

이 一聯의 措置들을 알아 보자.

① 主要한 軍事演習의 事前通告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anoeuvres)

㉞ 「主要한」 機動演習이란 적어도 25,000명 이상의 部隊(西方諸國의 提案數字 12,000名과 蘇聯이 提案한 數字 45,000名の 妥協)를 包含한 機動演習을 의미한다.

㉟ 海軍과 空軍의 獨立 또는 合同으로 機動演習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이 部隊만으로는 領土를 占領할 수 없기 때 문일 것이다.

㊱ 유럽內 및 隣接하는 바다와 하늘에서 展開되는 機動演習은 通告의 對象이 된다. 그러나 美國, 캐나다, 아시아地域의 蘇聯領은 包含하지 않는다.

㊲ 通告는 機動演習의 開始 21日 이전에 해야 한다. 機動演習이 보다 짧은 豫告로 準備된 때는 開始日 以前 可能的 빠른 機會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움저버의 交換(Exchange of Observers)

㉞ 參加國은 機動演習에 움저버를 招請하게 된다. 이 規定은 主要한 軍事機動演習에 通告條項과 連繫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其他(other)의 機動演習도 視察할 수 있다.

㉔ 읍저버의 指名은 招請받은 나라側에서 하지만, 읍저버數, 參加手續
과 條件은 모두 招請國이 決定한다.

③ 主要한 軍隊移動의 事前通告 (prior notification of major military
movements)

『最終文書』는 이 標題下에, 各國이 「스스로의 裁量으로」(at
their own discretion), 主要한 軍隊의 移動을 通告해도 「좋다」
(may)고 宣言하고 있다.

④ 其他의 信賴構築措置

(o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參加者가 合意한 또 하나의 手段은 正常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는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慣習이 되어 온 軍事代表의 訪問을 包含한
軍事要員(military personnel)간의 「招待에 의한」(by invita-
tion)交換促進이다.

⑤ 軍縮에 관한 問題(questions relating to disarmament)

『最終文書』는 「軍事的 對立을 減少하고 軍縮을 促進하는 것」

(lesseni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promoting disarmament) 이

全參加國의 利益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럽의 軍備管理를 위한 具體
的인 提案이 이 『最終文書』에는 缺如하여 있다. 또한 처음에 어
떠한 手段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提示가 없다.

「一般完全軍縮」(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달성의 必要性이
라고 하는, 50年代 後半부터 每年 採擇되어 온 유엔決議와 똑 같
은 表現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¹³⁾

1983年9月 開會된 CSCE의 마드리드 再檢討(follow-up)會議는, 헬싱키

『最終文書』의 安全保障문제를 검토하는 follow-up의 一環으로 CD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Europe, 歐洲軍縮會議)를 開催키로 合意한다. 이리하여 開催된 CDE는 우선 CSB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信賴·安全構築措置)의 協議에 關係 合意를 모았다. 이 交渉은 1984年1月부터 스톡홀름에서 進진되었으며, 1986年9月에는 ①13,000名 이상, 전차 300台 이상의 陸軍의 軍事活動은 42日 이전에 通告할 것 ②17,000名 이상의 軍事活動에는 全參加國에 옵저버(各國 2名까지)를 초청할 것 ③每年 11月15日까지 翌년에 計劃되어 있는 40,000名 이상의 軍事活動을 通知할 것. ④이 通知가 未實施의 경우 이러한 軍事活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등이 合意된 바 있다. 이 履行狀況은 대체로 良好하다는 것이다.

1989年1月 중순 終了된 CSCE의 빈 再檢討會議에서 CFE (歐洲 在來式戰力交渉, Negotiations on Conventional Armed Force in Europe)의 開始와 함께 合意된 것은 前述한 스톡홀름合意를 한 층 더 擴大하기 위해 CSBM 交渉을 빈에서 CSCE 全參加國의 參加리에 開會한다는 것이었다. 실지 1989年3月 이 CSBM 交渉이 CFE와 동시에 開始되었다.

同 CSBM 交渉에 NATO 側은 다음과 같은 意向으로 參席하고 있다.

- ①軍事機構, 主要兵力展開등에 關係 每年 廣範圍하고도 包括적인 情報交換을 實施하므로써, 公開성과 透明성을 더 많이 確保하는 것.
- ② 軍事演習의 通告에 關係 情報를 한 층 더 상세하게 交換하는 것
- ③ 軍事독트린에 關係 意見交換을 한다는 것.

結局 上記 3가지 의향은 「軍事情報의 글라스노스치」로 歸結되는 것이다.

以上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主要한 軍隊의 機動演習의 事前通告
- ② 움저버의 交換과 軍事要員의 相互 訪問
- ③ 主要한 軍隊의 移動의 事前通告
- ④ 軍事機構, 主要한 兵力展開등에 關하여 每年 廣範圍하고도 包括的인 情報交換을 실시하므로써, 公開性和 透明性을 한 층 더 確保
- ⑤ 軍事독트린, 戰術教理에 대한 相互 意見 交換

2. 「合理的 充分性」原則에 따른 攻擊型 兵裝備의 減縮

1989年 6月 12日 美上院外交委員會에서 덕 솔로몬博士가 개진한 「合理的 充分性」戰略의 北韓採擇 促求는 東西軍縮協商에 對한 韓半島適用을 示唆하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發言이다.¹⁴⁾ 그것은 領土奪取 能力을 갖고 있는 순수 攻擊型 裝備인 戰車, 裝甲步兵戰鬥車輛(APC가 大宗), 渡河장비 및 火砲등의 大幅的인 不均衡 是正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奇襲攻擊能力和 大規模 侵攻能力을 갖고 있는 하이 質의 兵器가 실은 최우선 target이라는 東西軍縮의 協商 과정은, 韓半島에게 중요한 意味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東西軍縮協商은 數量的 次元에서 質的 次元으로 그 WEIGHT가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攻擊型兵器와 이것을 支給받은 攻擊性 兵力의 最前線配置가 是正되는 것이 가장 時急한 課題이다. 즉 非武裝地帶(DMZ = De Militarized Zone)에서의 「後方撤收」(disengagement)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ATO(北大西洋條約機構,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

tion)와 WPO (바르샤바條約機構, Warsaw Pact Organization) 双方의 努力이 研究되어 他山之石으로 그 教訓을 傳授받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주시할 점은, 이 「後方撤收」를 위해 1989年 年初 하와이에 서 會同한 南北韓專門家會議에서 美側學者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北韓側專門家は Positive하게 應하면서, 北京에서 이 문제를 다시 論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¹⁵⁾

그런데 솔로몬博士가 言及하고 있는 이「合理的 充分性」戰略은 실은, 맥나마라長官이 최초로 概念 構成한 것이며 이것은 그 후 닉슨·독트린의 「1.5戰略」과 連繫되어 나왔으며,¹⁶⁾ 고르바초프의 「Perestroika」에서도 言及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로 提示하는 바이다.¹⁷⁾

3. FOFA作戰을 위한 航空戰力保有

1989年 3月부터 빈에서, 大西洋에서 우랄까지의 歐洲全域을 對象地域으로 하는 「歐洲在來式戰力交渉」(CFE = Negotiations on Conventional Armed Force in Europe)이 개시되었다.

그러면 同 CFE의 目標에 대한 NATO側의 基本的 思考를 알아보자.

- ① 彼我戰力の 不均衡 是正
- ② 双方의 奇襲攻擊能力과 大規模 侵攻能力의 除去
- ③ 이를 위해, 領土奪取能力이 있는 戰車, 裝甲步兵戰鬪車輛(APC), 火砲등의 大幅的인 不均衡是正
- ④ 航空機는 이 是正에서 除外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 ㉠ 航空機는 領土奪取能力이 없다.
- ㉡ NATO側의 問題點은 從深이 알기 때문에 WPO側의 侵攻을 받

은 後 WPO側의 後續攻擊部隊(第2梯團)을 強打할 수 밖에 없
는 바, 이 경우 FOFA(Follow On Forces Attack) 戰略¹⁸⁾이
적용하거나와 이를 遂行하는데 있어 航空戰力の 稼動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 ⑤ WPO會員國 중 盟主인 蘇聯은 바로 陸續의 位置에 있는데 反해,
NATO側의 美國은 大西洋 건너에 있기 때문에 短期決戰에는 대
단히 脆弱하다. 따라서 쉘바르드나제 蘇聯外相의 要求(1989.3) 즉
「東西 어느 쪽이건 낮은 편의 軍備水準에서 10 내지 15% 더
水準을 下向시켜 그水準을 共通 上限線(ceiling)으로 삼아 削
減한다」는 이른바 「Level-Down 方式」에는 NATO側이 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NATO側의 基本的 思考를 韓半島 狀況과 連繫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從深이 알고 美軍의 來援이 即時性을 띠지 못하고 있으므로, DMZ
南쪽에 FOFA作戰을 展開 可能케 하는 航空戰力常駐가 必要하다.
- ② 航空機 자체는 戰車하고는 달리 領土奪取能力이 없다.
- ③ 韓美聯合防衛戰略은 基本的으로 防衛를 위한 戰略에 依存하고 있는
NATO戰略과 같으므로, 이 NATO가 WPO의 侵攻을 받았을 때
卽刻 使用可能한 在來式戰力은 航空戰力이라는 事實을 留意할 必要
가 있다.
- ④ 또한 早期警報能力(Early Warning Capabilities)은 現在 美國의
시스템 즉 AWACS(航空機塔載警戒·管制시스템 Airborne Wa-
rning And Control System), EWS(早期警報統制, Early War-

ning System) 등 航空情報探知能力에 全적으로 依存하고 있는 點도 類似點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航空機」 자체가 攻擊型 武器라 하더라도 이것은 NATO 패턴을 따르는 것이 有益하다.¹⁹⁾

그런데 이 FOFA (後續部隊 同時攻擊) 作戰概念은 실은 Air-Land Battle 概念에서 연유된 것임을 밝혀둔다.²⁰⁾

Ⅳ. 政 策 建 議

美國務省아시아·太平洋擔當次官補 豫定者인 리차아드 솔로몬博士는 1989년 6월 12일 美上院外交委員會 인준청문회에서 美國의 아시아·太平洋地域政策의 基調를 설명했다. ²¹⁾ 이중 우리의 關心을 끄는 부문은 北韓에 대한 要求事項이다. 北韓에 대해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한 여러 軍事的 信賴構築措置(CBM)들을 취할 것을 거듭 促求하면서, 그러한 措置들이 취해질 경우에는 美國도 그에 相應하는 措置를 취할 것임을 밝힌 대목이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北韓의 過度한 攻擊戰力에 대한 減縮要求를,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입각한 「合理的 充分性」 戰略 ²²⁾과 連繫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솔로몬 美國務省政策企劃室長은 「유럽에서 蘇聯이 먼저 減軍措置를 취했기 때문에 美國도 유럽駐屯軍의 減縮을 宜言했다」고 천명하면서, 北韓도 이러한 「蘇聯의 圖式」을 援用하여, 「유럽型軍縮構想」을 適用할 意圖를 보인다면, 美國도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北韓에 대해 취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의 傳達이다. ²³⁾

全世界的(global)인 規模에서의 3大特徵중 하나인 「軍事에 있어서의 比重低下(토온 다운)」 ²⁴⁾와 솔로몬博士가 「고르바초프式 CBM」을 北韓에 대해 要求한 사실을 連繫시켜 생각해 볼때, 北韓의 政權擔當者들도 이러한 時代的 흐름, 즉 「國際的 大氣候」 ²⁵⁾에 副應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期待해 본다. 이러한 期待事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1988년 11월 7일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政務院의 聯合會議에서 提案한 「韓半島의 平和保障 4原則」²⁶⁾은 주로 兵力減縮을 다룬것으로 보다 중요한 前線配置 攻擊型 武器의 削減問題는 言及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戰車, 渡河裝備 같은 것을 削減하는 것이 最우선 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솔로몬美國務省아시아·太平洋地域擔當 次官補豫定者도 이러한 脈絡에서 「攻擊하기에는 不充分하나 防禦하기에는 充分한」 合理的 充分性 (Razumnaya Dostatochinost, Reasonable Sufficiency) 原則을 北韓이 採擇하게 되면, 이것은 주요한 CBM으로 이바지 할 것이라고 言及한 바 있다.

요컨대, 韓半島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는 여러번 言及한 바 있는 「合理的 充分性」原則에 따라 北韓이 얼마나 具體的으로 名實相符한 措置를 취하느냐 하는 與否가 가장 緊要한 것이다.

이 「合理的 充分性」原則과 「對美 3大前提課題」를 조화시키면 새로운 政策構想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政策構想은 「妥當性的 確保能力檢討表」²⁷⁾에 의해 스크린될 것이다.

그러면 「韓美安保協力體制와 南北韓關係의 連繫性」을 위한 「政策建議」를 이 妥當性 검토표로 導出해 볼 것이다.

妥當性 檢討表 (최고점수 5 點)

假設群	妥當性 (適合性 國家基 本目標 에의)	容 納 性					實踐可能性	優先順位 (合計)	
		內的受諾度	外的 認 識 態 度						
			美	蘇	中	日			北韓
1. 北韓이 먼저 「合理的充分性」原則을 受諾	5	5	5	3	2	5	1	27	
2. 韓國이 「서울-平壤軸」 설정을 위해 駐韓美地上軍 保有 SNF 를 先制的으로 撤去 (美國과 의 緊密한 合意下에)	2	3	1	5	5	1	5	24	
3. 北韓의 「合理的充分性」原則受諾과 韓國의 SNF 撤去」를 同時에 一括的으로 遂行	4	4	2	4	4	1	4	28	

상술한 『妥當性檢討表』는 「假設 3 : 北韓의 〈合理的 充分性原則受諾〉과 韓國의 〈SNF 撤去〉를 同時에 一括的으로 遂行」하는 政策을 Priority No.1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런데 「假設 1 : 北韓이 먼저 〈合理的 充分性〉原則을 受諾」하는 것이 Priority No. 2 이나, 겨우「1點差」라는 사실을 銘記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美·蘇關係가 계속 새로운 提議路綫, 즉 軍縮·和解路綫으로

發展되어 갈 때, 「假定3」의 一括妥當(package deal)과 「假定1」간의 「1點差」는 同時間帶에서 協商이 並存될 수도 있을 것이다.

韓國의 경우, 「假定2」가 最下位點數라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崔 榮, 「韓·美安保協力과 駐韓美軍 감축론」, 『思想과 政策』, vol.6, No.2 (1989年 여름호), P.150.
- 2) 『朝日新聞』1989年 7月 21日. 崔 榮 인터뷰 參照.
- 3) Stanley Hoffmann, Dead Ends :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New Cold War (Cambridge, Mass :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3), pp. 121-151.
- 4) See Young CHOI, Dynamic Structure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South Korea and Tripartite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Presented at ISA-SO MS Annual Conference, Colorado Springs (October 25-27, 1984)
- 5) Doug Bandow, "Korea : The Case for Disengagement", Policy Analysis, No.96 (December 8, 1987), p.2 and p.11.
- 6) 崔 榮, 「韓·美安保協力과 駐韓美軍 減縮論」, pp.150-151.
- 7) 崔 榮, 「駐韓美軍과 韓·美安保協力的 將來에 관한 研究」, (서울 : 外交安保研究院, 1989年 5月), p.36.
- 8) The Korea Herald, July 20, 1989.
- 9) 「한국일보」, 1989年 7月 20日.
- 10) 「朝日新聞」, 1989年 7月 21日.
- 11) Ibid.
- 12) Young CHOI, "The North Korean Military Buildup and Its Impact on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in the 1980s", Asian Survey, vol. XXV, No.3 (March 1985), pp.341 ~ 355.
- 13) The Stanford Arms Control Group, Coit D., Blacker and Gloria Duffy (eds), International Arms Control :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pp.441 ~ 445.
- 14) The Challenges of Success : An American Agenda for East Asia in the 1990s, Testimony of Dr. Richard H. Solomon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ne 12, 1989, pp.10 ~ 11.
- 15) 美國 헌터大學 政治學教授 Donald Zagoria 博士의 傳言이다.
- 16) Toward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Realistic Deterrence : Statement of Secretary of Defense Melvin R. Laird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the FY 1972 ~ 76 Defense Program and the 1972 Defense Budget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rch 9, 1971), p.76.
充分性 혹은 充足主義의 理論을 알아 보려면 다음의 文獻 參照
Military Strategy for Nuclear War, Air Force Reserve Element Training Staff Development Course No.45-0004, prepared by the Air University for Headquarters Air Force Reserve, Robins Air Force Base, Georgia, 1971 ~ 72, in Air War College Associate Programs, 7th ed., vol. IV, Ch.9, p.3.

- 17)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88), p.189.
 軍事的 「充分性」의 概念을 正統化한 蘇聯 최초의 公式 聲明 「바르샤바條約 參加諸國의 軍事독트린에 대해서」를 알아 보려면, See Prayda, May 30, 1987.
- 18) 阪中友久, 「INF 全廢條約의 調印と西歐への衝擊」, 『國際問題』, No.337 (1988年4月), p.40 ;
 『アツアの安全保障, 1985』(東京:平和・安全保障研究所, 1985년), p.169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4, 1988.
- 19) NATO는 1989年7月13日 빈의 第2次 CFE會談에서 NATO와 WPO의 戰鬪機 및 戰鬪用 헬리콥터 保有上限線을 各各 5,700機와 1,900機로 설정하는 동시에, 上限線을 넘어 감축대상이 되는 航空機는 모두 廢棄處分하는 것을 主된 內容으로 하는 「새로운」包括的 減縮案을 公式 제의했다.
 이 제의에 대해 蘇聯側도 건설적이라고 評價, 추후 協商을 통해 受容할 用意가 있음을 示唆하였다고 한다.
 최 영, 「미·소 군축협상」, 『월간 국제정세』통권 3호(1989년9월), p.83
- 20) Samuel P Huntington, "The Renewal of Strategy," in Samuel P. Huntington (ed.), The Strategic Imperative : New Policies for American Security (Cambridge, Massachusetes :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2), pp. 1 ~ 52.
- 21) 註 ⑭ 參照
- 22) 註 ⑰ 參照
- 23) The Challenges of Success, pp.10 ~ 11.
- 24) 崔 榮, 『蘇聯의 아시아戰略과 韓半島安全保障 :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와 中·蘇和解를 中心으로』, 亞·太研究所 主催 韓日심포지움(1989年9月19~20日), pp. 60-61.
 全世界的(global)인 規模에 있어서의 3大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政治에 있어서의 民主化
 ② 經濟에 있어서의 地域化
 ③ 軍事에 있어서의 比重低下(토은 다운)
 이 3大特徵은 外交, 安全保障次元의 High Politics에서 政治·經濟次元의 Low Politics로 比重이 옮겨가고 있는 現實을 잘 代辯해 주고 있다.
- 25) 北京天安門廣場 소요事態 鎮壓後 鄧小平은 이렇게 獨白했다고 한다. 「이번 暴風雨는 조만간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다. 國際적인 大氣候와 中國자신의 小氣候에 의해 決定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의 意思에 의해 바뀌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朝日新聞」1989年6月26日 社說 參照

- 26) 「統一志向, 外國軍撤收, 南北軍縮, 當事者協商は朝鮮半島の平和保障の4原則」,
『月刊 朝鮮資料』, 1988年12月號, pp.2-10.
- 27) 『妥當性の確保能力檢討表』에 援用된 用語(例: 容納性等)들을 알아 보려면
下記 論文 参照
Young CHOI, " Korean Proposals for Adjusti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 Focussing on the Major 4 Issues," presented for
Emerging Patterns of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the 4th Annual Conference of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Honolulu, Hawaii, November
15-18, 1988, pp.16-19.

北韓體制的 展望과 軍備問題

李 榮 一
(日本즈꾸마大 客員教授)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共產圈과 變化問題
- III. 共存과 交流의 論理
- IV. 體制變化의 樣相
- V. 體制變化와 軍縮問題

I. 問題의 提起

지금 共產諸國의 體制는 急速히 變貌하고 있다. 아직까지 外見上 變化를 拒否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北韓, 알바니아, 쿠바를 除外하고는 모든 共產國家가 變化의 途程에 들어서 있고 變化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놓여있다.

또한 體制變化는 그 目標와 方向이 우리가 흔히 共產國家에 대하여 豫想해왔던 범위를 훨씬 超過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周知되는 바이지만 모든 共產國家가 歷史的 狀況的 脈絡에 비추어볼 때 同一한 條件에서 形成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같은 共產國家라고 하더라도 政權이 樹立되는 背景, 經濟·社會發展段階의 差異때문에 相互間에 共通성이 적은 경우도 많다. 例컨대 Albania는 Nepal이나 Haiti와 共通성이 더 많고 Yugoslavia는 印度와, Czechoslovakia는 伊太利, 蘇聯은 美國과 여러면에서 오히려 많은 共通성을 지니고 있다.¹⁾

또한 單하나의 共產黨도 Marx가 共產革命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規定한 環境에서 執權한 일이 없다.²⁾ 오히려 正反對로 資本主義가 發展되지 못하고 初期工業化의 衝擊에 의하여 傳統社會가 瓦解된 後進國에서 共產黨의 執權은 이루어졌다.

蘇聯과 中共이 이 범주에 屬한다면 北韓과 東歐(Yugoslavia, Albania는 獨自的인 抗獨鬪爭으로 執權)는 蘇聯 등의 占領下에서 共產黨이 執權했다.³⁾

이러한 形成背景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흔히 社會主義陣營 또는 共產國家라고 부르는 14個國(蘇聯, 中共, 北韓, 越盟, 蒙古, 東獨, Hungary,

Yugoslavia, Czechoslovakia, Albania, Rumania, Blgaria, Poland, Cuba)은 다음과 같은 體制內的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 ① 共產黨의 一元的 權力 獨占
- ② 國防을 目的으로 하는 重工業 建設
- ③ 農業의 集團化
- ④ 生産手段의 國有化
- ⑤ 消費者 選擇과 市場機能의 無視
- ⑥ 有用한 技術勞動力의 訓練

이 여섯가지 共通性 以外에 Ezra Vogel 은 ① 青年同盟이나 候補黨員制같은 後備充員組織의 建設 ② 年度別 計劃主義의 採擇 ③ 肅清같은 不規則한 人事交替의 實施 等を 追加하고 있다.⁵⁾

이러한 共通性은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를 最初로 制度化시킨 Stalin 의 統治樣相—以下에서 Stalinism 이라고 부름—에서 나오며 大部分의 共產國家는 自進해서 Stalinism을 모델로 採擇하거나 採擇하도록 強要되어 왔기 때문에 Stalinism의 骨格을 國家維持의 手段으로 삼고있는 國家들을 우리는 共產國家로 通稱한다.

이러한 特徵들이 共產主義에 固有한 것이냐에 관해서는 最近 異論이 提起되고 있지만 共產主義國家의 定義와는 現實적으로 關聯이 없고 變化에 연관되기 때문에 後述하기로 한다.⁶⁾

지금 바로 이러한 特徵을 지닌 共產國家들이 걸잡을 수 없는 變化의 소용돌이속에 놓여있다.

이같은 變化는 當事者의 입장에서는 改革이라고 부르지만 局外者의 입장에서는 共產主義의 失敗 또는 終焉을 向한 變化로 볼 수도 있다. 收斂理

論을 主張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東西世界가 産業社會라는 目標를 向해 필연적으로 겪는 進化過程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 眞正한 Marx-Leninism 을 信奉하는 사람들은 Stalin의 一國社會主義 路線에 의하여 誤導된 共產主義를 當初의 理想대로 具現하기 위해 不可避하게 惹起되는 過渡期現象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反面, 一部 少數이기는 하지만 共產主義者들이 自由世界의 對共警戒心을 緩和시키기 위한 偽裝戰術이 지금 일어나는 蘇聯 等の 共產黨改革運動이라고 酷評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 蘇聯에서, 中國大陸에서 일어나는 共產黨의 變化는 어떤 指導者의 煽動에 의해서, 또는 權力掌握을 위한 一時的 方便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共產執權 成立後부터 지난 40年동안 蓄積되어 온 內的 갈등의 矛盾의 變化因子가 그 限界點에서 暴發하고 있는 現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共產 14 個國의 지난 45 年間の 歷史를 注意깊게 觀察해보면 수많은 變化因子들이 內的으로 成長해 왔다. 集團主義에의 끝없는 抵抗, 官僚主義의 問題點, 命令經濟에의 批判, 機械的 平等主義의 이른바 惡平等의 矛盾을 指摘하는 理論들이 學界에서 꾸준히 提起되어 왔으며 資源의 最適配分이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限界性, 物質的 動機賦與(material incentive)의 필요성을 力說하는 理論과 主張들이 共產主義의 體制維持名分과의 正面衝突을 피하면서 꾸준히 提起되어 왔다. 北韓과 알바니아, 쿠바에서는 이렇다할 改革理論들이 없지만 다른 共產國家에서는 1950 年代부터 60 年代, 70 年代, 80 年代를 거쳐 꾸준히 수많은 改革理論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이러한 改革理論은 그것이 단순히 理論과 主張에 그친것이 아니다.

各國의 共產黨에 의해 部分的으로 受容되어 實踐에 옮겨지기도 했다.

소련에서도 1956年の 후르시초프改革, 1965年の 코시긴 改革, 1968年과 1975年에 있어서의 經濟管理方式改革, 그리고 1985年以來的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요약되는 變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變化의 狀況을 거 해왔다.

Yugoslavia에서는 1951년부터 勞動者自主管理라는 反Stalin的 共產改革을 단행했고 Czechoslovakia에서는 Otasik을 中心으로 하는 市場社會主義運動이 일어나 「人間의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運動이 1968年에 制度化될 단계에 까지 이르렀으나 蘇聯의 침공으로 阻止된 것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 西方世界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Hungary, Poland에서 일어나는 政治變動, 東獨에서의 國境線開放을 隨伴하는 大變革앞에 놀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事態들은 모두 지금까지 西方에서 實施되어 온 共產圈研究의 潛假定과 學問的 豫測을 훨씬 超過하거나 앞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共產圈에서의 改革運動이 蘇聯共產黨 書記長이 앞장서서 主導하리라는 것은 學問的 想像밖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豫測不可能할 수도 있다. 또 共產黨이 大衆을 장악하지 못하여 中國에서 처럼 天安門廣場에서 大處殺을 단행하거나 東獨에서 처럼 國境線이 開放되는 것도 理論的으로 豫測 可能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共產圈의 大變化는 西方의 水準높은 情報과 研究가 뒷받침되는 限 恒常 豫측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問次元에서의 研究은 共產圈의 現象變化에 卽時的 應答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 西方에서의 既往의 共產圈研究에 대한 再檢討와 反省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本研究는 지금까지 學問的 次元에서 추진된 共產圈의 變化에 관한 研究를 再檢討하고 이 土台위에서 體制變動의 樣相을 總體的, 局面別로 定立하고 그것이 軍縮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한 後, 體制變化의 向方을 개관코자 한다. 同時에 收檢理論을 準據로 하여 今後 東西世界가 指向할 世界共同體의 未來像을 모색하는데 寄與코자 한다.

II. 共產圈의 變化問題

1. 西方의 共產圈 研究

西方에서의 共產圈研究는 東西兩大陣營의 冷戰的 對峙라는 脈 (context) 을 前提로 初期에는 客觀的 事實研究보다는 對抗的 視角에서 출발한다.

1950年代에 있어서는 George Kennan의 對共封鎖政策 (containment policy)에서 보는바와 같이 共產主義를 人間性 (humanity)과 平和에 對한 敵으로 看做하고 共產主義勢力을 地球的 範圍에서 그 膨張을 阻止·封鎖함으로써 枯死시킨다는 戰略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共產圈研究가 始作되었다. 따라서 이 時期에는 共產主義가 標榜하는 各分의 非歷史性, 非現實性을 立證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 批判이 共產圈研究의 主宗을 이루었다. 즉 反共을 위한 戰術研究次元에서 共產圈에 관한 事實의 蒐集, 分析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1948年의 Yugoslavia에서 일어난 獨立的인 社會主義路線 (이 때 Yugoslavia는 스탈린에 의하여 共黨포름에서 除名된다), 1956年 Hungary와 Poland에서 일어난 反蘇運動도 그것이 갖는 共產圈의 體制變動的 側面보다는 反共的 側面만이 浮刻, 強調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時期에 소련의 후르시초프에 의하여 宣言된 反스탈린運動과 이에 뒤이은 改革 및 平和共存論도 그 額面대로보다는 西方側의 對蘇警覺心을 약화시키려는 術策 내지 共產圈內部的 權力鬭爭의 한 形式으로 밖에 評價되지 않았다.⁸⁾

共產圈에 대한 體系的 研究는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活發해졌다. 즉 對共戰略의 下手人的 研究에서 學門的 研究로 關心이 轉換되기 시작했다.

60年代 初期에 있어서 西方의 共產圈研究는 共產主義를 全體主義의 한 類型으로 把握하려는 全體主義 모델이 學問적으로 脚光을 받았다. 이의 代表者들로는 Carl J, Friedrich, Zbignew Brzezinski, Leonard Schapiro 등이며 現代社會를 모두 全體主義로 批判하는 Herbert Marcuse도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Friedrich의 全體主義體制에 관한 다음 6가지의 特徵은 당시 全體主義를 判別할 수 있는 普遍的 基準으로 되어 幅넓게 應用되었다.

① 人間存在의 모든 重要的 局面을 장악하고 규정하는 公式이데올로기가 存在한다.

② 典型的으로 1인이 지도하는 單一의 大衆政策이 存在한다.

③ 테러와 警察統制가 統治의 主要手段이 되고 있다.

④ 모든 메스컴이 效果的이고 기술적으로 黨에 獨점되어 있다.

⑤ 有效한 軍事力(armed combat)이 獨占되어 있다.

⑥ 全體經濟가 中央의 指令과 統制下에 놓여있다.⁹⁾

共產圈에 관한 全體主義的 接近은 적절한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共產主義制度和 西方制度間의 差異를 浮刻시키는데 크게 寄與했으며¹⁰⁾ 동시에 共產圈研究를 社會科學적으로 體系化시킨 점에서도 그 意義가 높이 評價된다.

그러나 全體主義 모델은 共產國家 相互間의 比較를 할 수가 없고 더우기 共產主義 體制下에서의 기본적인 變化-독자적 또는 共產主義를 넘어서는 - 를 說明하는데 어려움이 있다.¹¹⁾

Brzezinski와 Friedrich는 共產全體主義는 「條件없는 軍事的 敗北」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적 變化에 관계없이 不變의 方向을 향해 그 自體의

動力으로 推進되는 體制라고 主張한다.¹²⁾

그러나 全體主義 모델은 共產圈을 모두 同一視하고 어떠한 變化도 共產圈이 있는 限 許容하지 않으리라는 假定에 섰기 때문에 60年代 釁타 나타나기 시작하는 共產圈 相互間의 關係變化, 體制內的 變化의 現實에 어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이 點에서 全體主義 모델 역시 兩極化된 世界의 對立現實을 右翼의 立場에서 正當化한 共產體制批判理論에 지나지 않는다는 評價를 면할 수 없었다.

西方世界가 共產圈에 관한 全體主義的 接近을 批判하면서 共產國家를 不變의 政體가 아닌 可變의 政體로 把握하고 共產圈 안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變化를 있는 그대로, 客觀적으로 研究하기 始作한 것은 1960年代 後半, 즉 Czechoslovakia의 民主化 運動에 대한 蘇聯軍의 侵攻이 있는 후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¹³⁾

Czechoslovakia의 民主化運動에 대한 蘇聯을 비롯한 바르샤바條約機構의 5個國 軍隊의 侵攻彈壓은 全世界를 경악케 했다. 동시에 共產主義는 變하고 있고 變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을 Czechoslovakia 共產黨은 全世界에 알린 것이다.

그때로부터 21년이 지난 1989年 12月 당시 체코를 侵攻했던 바르샤바條約機構 소속 5個國 頂上은 모스크바에 모여 체코 侵攻의 過誤를 正式으로 認定함으로써 체코의 改革運動을 드디어 成功段階에 이른다.

분명코 체코에 있어서의 共產黨主導下에 추진된 改革運動, 즉 「人間的 열

굴을 가진 社會主義 運動」은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의 「勞動者 自主管理 運動」과 같이 反共義學的 次元이 아닌 共產黨自體의 改革運動이었다는 點에서 世界의 關心을 끌었던 것이다.

西方學界는 체코 事態를 계기로 全體主義 모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共產主義를 觀念이나 先入見에서가 아닌 實際에서 把握하려는 研究態度가 登場되었다. 동시에 共產圈의 體制內的 變化의 問題도 發展論的 觀點, 收險論的 觀點에서 深度있게 다루어지기 始作했다.

2. 70 年代의 變化研究

60 年代의 全體主義 理論이 共產體制的 根本的 變化可能性을 否定했다면 70 年代의 西方 社會科學은 變化的 可能性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는 方向에서 展開된다.

그러나 初期에는 全體主義 理論의 壓倒的인 影響때문에 共產體制的 變化를 限定的으로 把握하는 側面이 強했다.

Chalmers Johnson 은 共產圈의 變化를 體制가 達成하려는 것과 防止하려는 것으로 限定하고 全體主義 國家形態로서의 共產圈에서 期待possible한 變化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 ① 政治體制에서 構造變化, 즉 1人獨裁體制에서 集團指導體制로 移行이 可能하다.
- ② 社會主義體制가 發展해 감에 따라 통치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진다.
- ③ 經濟體系의 構造變化, 즉 中央集權的 指令經濟로 부터 半集權的 管理經濟 내지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에로의 變化가 可能하다.
- ④ 蘇聯의 強要에 의하여 共產化된 國家의 경우 衛星國家的(satellite) 地位에서 獨立(client) 내지 自主的 國民共產國家(national communist regime)로 變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分析은 共產圈의 根本的 變化라기보다는 一般的 내지 基本 變化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共產圈의 變化問題는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本質的 再評價와 더불어 좀더 깊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理想으로서 共產主義는 스탈린에 의하여 制度化되었기 때문에 Stalinism은 거의 同意語와 같이 인식되었다. 적어도 第2次 世界大戰以後 共產화된 國家에서는 獨自革命에 의하여 共產化를 이룩한 國家(中國,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이건, 蘇聯軍의 占領下에서 共產화된 國家이건 간에 너나없이 Stalinism을 共產主義를 具現하기 위한 理想型(Ideal Type)으로 受容했던 것이다.

그러나 Stalinism은 共產主義라는 目標, 즉 「계급없는 국가없는(Classless, Stateless)社會」,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받는 社會」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 하나의 方途選擇이었을 뿐 그 自體가 곧 共產主義일수는 없었다.

1948년에 있었던 스탈린과 티토論爭은 이를 如實히 증명하는 것이다. 유고의 티토는 社會主義에 이르는 길은 蘇聯方式만이 아니고 各國의 實情에 맞는 獨自의 길이 있다고 強調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후 유고의 立場은 中蘇論爭에서 다시 中國에 의하여 승계되고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口號가 나오게 되는 背景이 된다.

事實 Stalinism은 蘇聯을 社會主義革命의 中心部로 만들면서 內亂의 敵 즉 社會主義 革命을 와해시키려는 資本主義의 侵略에 對抗하고 內部的 反社會主義勢力을 制壓하려는 狀況의 產物이었다. 스탈린은 內亂의 敵과 싸우기 위해 軍備強化를 위한 重工業建設을 서둘러야 했고 重工業을 뒷받침하기 위한 財源의 捻出을 위해 農業을 희생시키는 農業集團化를 단행했던 것이다. 同時에 당시 蘇聯의 proletariat는 사실상 農奴狀態에 머물러 있는 文盲이었기 때문에 共產革命을 獨自的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 따라서 革命業務를 黨이 代行해야 했기 때문에 黨의 一元的 指導

와 후에 *nomenklatura*(고급당간부)로 불리울 官僚主義의 擡頭를 불
가피하게 했다.

- 1968年 체코의 改革家들이 「共産黨의 一元的 指導에 관한 레닌
의 理論은 蘇聯처럼 文盲이 많은 곳에서는 妥當하나 체코에서는 적
합하지 않다」고 主張한 것은 그나름의 正當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¹⁵⁾

이러한 觀點에서 John Kautsky는 Stalinism에서 표현된 共産化方式에는
社會主義理念에서 導出되는 獨自性이 없고 오히려 開發途上國에서 일어나는
革命現象의 一環으로 把握해야 한다고 極言하고 있다.¹⁶⁾

이와 同旨에서 Richard Lowenthal은 共産主義 運動과 後進國의 民族主義
的 近代化 運動은 標榜된 目標은 다르나 開發獨裁(dictatorship of dev-
lopment)라는 面에서는 기본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民
族主義運動을 完全獨立과 自國의 效果的 近代化以上の 目標을 갖지 않기 때
문에 時空의 制約을 받지만 共産主義 運動은 결코 成就될 수 없는 目標
로서의 階級없고 國家없는 社會를 指向하기 때문에 時空의 制約을 받지 않
는다고 差異를 말하고 있다.¹⁷⁾

이처럼 共産主義의 理念的 性格을 배제한 極端的인 평가에 併行해서 Chal-
mers Johnson은 目標文化(goal culture)와 移行文化(transfer culture)
라는 概念을 사용해서 共産圈變化의 一般理論의 構成을 시도한다. 즉 共産
主義의 utopia가 goal culture 라면 transfer culture는 革命指導者가 goal
culture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措置, 즉 政策形成을 지도하는 規範
이라고 한다.¹⁸⁾

이 見地에서 보면 Stalinism의 主要特徵인 ①共産黨의 權力獨占과 一元的

支配, ②國防을 위한 重工業建設 ③農業의 集團化 ④生産手段의 國有化 등은 目標文化에 到達하기 위한 移行文化로 볼 수 있으며 第2次大戰後 共產化된 國家에로 輸出된 이른바 蘇聯方式은 共產主義의 移行文化에 該當되는 것이다.

이같은 移行文化가 반드시 目標文化에 연결되는지는 事實로서 證明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탈린 方式은 蘇聯에서 人員과 資源에 대한 高度의 動員體制(mobilization system)를 可能하게 함으로써 建設에 有用하였다. 동시에 目標文化를 強調함으로써 農民의 犧牲, 知的 自由의 拋棄 내지 박탈을 正當化하였던 것이다.

共產主義의 目標文化는 그 自體로서 工業化나 近代化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後進性 克服이 移行文化가 됨으로써 目標文化에 近接하는 것으로 評價되었던 것이다.

Stalinism은 분명히 初期의 工業化에 成功했다. 이 成功은 結果面에서 共產主義의 生産方式의 成功이라기 보다는 後進國에서 종종 成功을 보이는 開發獨裁의 成功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그가 目標文化와 移行文化를 一致시켰음을 內外에 誘示할 目的으로 1936年 12月 第8回 臨時全聯邦 소비에트大會에서 「蘇聯은 第2次 5計年計劃(1933-1937)에서 基本的으로 共產主義의 第1段階, 社會主義가 實現되었다」고 宣言하고 이 成果를 制度化하기 위해 「스탈린 憲法」을 採擇했던 것이다.¹⁹⁾

그러나 分명한 事實은 스탈린의 成功은 共產主義의 移行文化로서의 動員體制的 成功이었으며 移行文化가 目標文化를 具現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스탈린 方式은 工業發展이라는 單一目標을 向해 動員力을 發揮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大衆이 要求하는 分野의 發展에 대해서는 이를 禁止 統制

하는데 注力하게 된다.²⁰⁾ 그러나 工業化의 成功은 지금까지 禁止되 있던 分野의 發展을 許容하여 體系의 均衡化의 壓力을 惹起시킨다. 이러한 壓力 下에서는 「위로부터의 革命」은 終結되는 것이고 目標文化를 向한 活動도 終結된다. 지금 共產圈에서 일어나는 變化는 體制內의 이같은 不均衡, 發展 上의 不均衡을 바로 잡으려는 쪽에서 일어난다.²¹⁾ 그러나 어떠한 共產政 權도 아직 成功的으로 動員構造를 脫皮하지 못했기 때문에 指導者들이 能 動的으로 構造改革을 主導해나가지 못하는 限 經濟的 沈滯를 수반하는 孤 立閉鎖主義를 견딘지 體制의 崩壞내지 變遷의 운명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 다.²²⁾

또한 共產主義 動員體制는 移行文化目標의 達成에 成功하면 그 以後에는 이데올로기적 指針도 없고 受諾할만한 解決案을 강구할 歷史의 先例도 없 는 두가지의 意圖되지 않은 狀況에 직면한다. 즉 ① 革命 엘리트의 官僚 化 ② 社會的 複合性的 顯著한 增加와 機能의 分化²³⁾ 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Robert Tucker도 極端의 官僚主義를 통해 共產主義 動員體制는 運營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그러나 官僚主義는 그것이 擴 大되면 될수록 統制不能의 怪物도 變한다. Anthony Downs의 다음과 같은 指摘은 매우 示唆的이다.

「누구도 老大한 機構의 行態를 統制할 수 없다. 하나의 큰 組織을 統 制하려고 하면 다른 機構를 統制해야 한다. 官僚는 情報를 上達할 때 自 己에게 有利한 것은 誇張하고 不利한 것은 縮少·歪曲시킨다. 모든 官僚는 自己에게 有利한 政策이나 措置에 치우쳐있고 自己에게 不利한 措置나 計 劃을 거부하는 편견에 빠져있다.」²⁵⁾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 방대한 官僚體系는 周期的으로 改革을 시도, 全體系를 뒤흔들어 組織의 構造를 고치려고 하지만 각 官僚의 一線機關水準에서는 그 改革이 行政過程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²⁶⁾

결국 共產體制는 官僚에 의하여 運營되면서 官僚主義의 病弊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改革이 失敗하면서부터 共產主義의 目標文化에 대한 大衆들의 信心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共產圈에 관한 70年代의 研究는 目標文化와 移行文化間的 不一致에서 體制變動의 可能性을 구명하는데 重點이 놓여졌으며, 이 바탕위에서 變化의 方向과 範圍에 관한 研究가 同時에 進行되기에 이른다.

變化의 方向과 關聯해서 가장 活潑히 論議된 것이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이며 이에 맞서는 離散理論 (divergence theory)과 더불어 共產圈 變化研究는 새로운 地平을 맞게 된다.

3. 收斂理論의 檢討

萬物이 變化하는 것처럼 共產體제도 變化한다는 것이 全體主義 모델의 限界를 克服한 西方側의 比較體制研究의 成果라면 共產體制는 그러면 果然 어떠한 方向으로 變化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變化할 것이냐하는 變化의 方向과 範圍가 새로운 研究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은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가 兩者 共히 工業化를 追求함에 따라 점차 體制差異가 줄어들고 相互間에 類似性이 增大하고 있다는데 理論의 出發點을 두고 있다.

대체로 收斂理論家들은 Daniel Bell이나 R. Aron, S.M Lipset 등처럼 體制가 내리는 이데올로기 名分을 輕視하고 價值中立的 (value free) 次

元에서 어느 體制나 결국 人類가 未來에 到達한 高度福祉社會를 向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社會體制間의 收斂은 不可避하다는 收斂不可避論에 서고 있다.²⁷⁾

西方에서의 收斂理論의 代辨者는 Issac Deutscher이며 Deutscher의 主張에 共鳴하는 學者로는 John Kenneth Galbraith, W. W. Rostow, Maurice Duverger, Georgg Lukács, Andrei D. Sakharov 등을 들 수 있다.²⁸⁾

Deutscher는 美國式 生活方式와 蘇聯式 生活方式은 心然的으로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에로 變形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蘇聯도 社會主義的 태두리를 完全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自由化를 向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展望한다. 그는 또 蘇聯이 近代化됨에 따라 결국 Stalinism은 사라질 것이며 多元的 社會構造에 보다 效果的인 民主的 政治體系로 代置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Stalinism은 이미 그 目的을 達成한 體系形成(system building) 政體이기 때문에 體系管理(system management) 政體로 代置되는 것은 不可避하다고 主張한다.²⁹⁾

또한 많은 經濟學者들도 命令經濟는 그 逆機能(dysfunctional) 때문에 새롭고 보다 合理的인 計劃모델로 代替되지 않을 수 없고 견제받지 않는 命令이 利益供給의 方向으로 變更될 것이며 이 過程에서 非政治的 엘리트들이 經營의 上層部로 充員되어 보다 民主的이고 마침내는 多黨制의 出現까지 기대된다고 主張한다. 특히 Andrei Sakharov는 蘇聯에서 이데올로기는 끝장이 났으며 毛澤東主義나 Stalin 主義者를 壓倒할 現實主義 엘리트群이 出現할 것이라고 力說하고 있다.³⁰⁾

Rostow 역시 그의 經濟發展段階說에서 蘇聯型體制가 궁극적으로 美國體制로 收斂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提示한 經濟發展段階說을 反駁하고

있다.³¹⁾

그러나 收斂理論은 現實적으로 證明된 理論이라기보다는 部分的으로 妥當성이 立證되고 있는 可能的 域에 속하는 假定이기 때문에 初期에는 自由, 共產 兩陣營의 現實主義者들의 批判을 면할 수 없었다.

自由主義 陣營의 批判家들은 「蘇聯體制가 產業主義(industrialism)와 제대로 調和될 수 없는 데서 發生한 緊張이 蘇聯體制를 몇가지 근본적인 국면에 있어서 西方的으로 變化되게 할 것이라는 期待는 實證된 假定일 수 없다」³²⁾고 指摘하고 收斂理論이 想定하는 民主社會主義는 冷戰에 진절머리를 느끼는 理論家들의 精神的 出路의 성격을 지니는 希望論이라고 批判한다.

또 共產體制的 根本的 變化可能性을 否認해 온 Brzezinski 등은 共產體制가 自由化와 民主化를 許容하지 않는 限 工業化를 中心으로 近代化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가 收斂할 수 없고 兩體制的 異質化는 계속될 것이라는 離散理論(divergence theory)을 主張한다.³³⁾ 또한 Inkels 역시 「工業化는 民主主義下에서도, 全體主義下에서도 發生하기 때문에 民主主義와 工業化는 同一線上에 있는 原理가 될 수 없다고 指摘한다.³⁴⁾

한편 共產圈의 社會學者들도 收斂理論을 「單一의 產業社會理論」이라고 評하면서 生産手段이 社會화된 社會와 私有화된 社會의 差異 즉 生産關係의 差異를 무시한 產業社會論은 있을 수 없다고 否認함으로써 離散理論의 立場을 견지한다.³⁵⁾

그러나 이러한 批判에도 不拘하고 收斂理論을 共產圈의 變化와 東西關係의 變化되는 現實에 注目할 때 그 妥當성이 점차 實證되어 가고 있다.

東歐諸國에 있어서 테크노로지의 發達과 政治的 變化와의 相關關係를 分析한 R.V.Burks 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일단 工業化 및 近代化가 상당히 進척되면 共產主義體制는 포스트 動員段階(post-mobilization stage)로 들어가는 것이 典型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로부터의 革命은 終結되고 大衆을 洗腦하고 孤立시키는 政策은 修正되고 強制的 使用은 줄어들며 物質的 刺戟의 役割이 增大한다.³⁶⁾

이리하여 Burks 는 社會主義體制가 갖는 根本的인 딜레마 즉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生産이 현저하게 停滯하는 理由, 中央의 計劃과 技術革新間的 딜레마, 中央統制와 스피드化(컴퓨터化)의 딜레마, 市場經濟에의 潛在的 壓력과 黨의 主導權確保와의 딜레마를 幅넓게 검토하면서 指導의 分權化, 市場經濟의 導入, 物質的 刺戟의 必要를 考慮에 넣지 않으면 生産性이 向上될 수 없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그는 이어 「그러나 生産性向上을 目標로 대담한 改革을 단행하면 이데올로기의 沈滯를 가져오며 根本的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人力減縮을 計劃하면 勞動者의 配置에 問題가 생기며 失業問題도 일어날 수 있으며 市場經濟가 導入되면 黨의 役割이 弱化되어 黨員이 失業에 쫓기게 될 수 있다」면서 經濟가 加一層 발전하기 위해서는 政治改革이 不可避하다고 指摘한다.

Burks의 이같은 分析은 收斂理論 특히 資本主義體制를 向한 收斂理論의 妥當性을 實證的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Rostow도 그의 「經濟發展의 諸段階」를 政治形態에 對應시켜 새롭게 펴낸 「政治와 成長의 諸段階」에서 다음과 같이 뜻깊은 指摘을 하고 있다.

「經濟體系內的 運動 — 元來 長期에 걸치는 것이지만 — 이 社會生活 및

社會生活에 관한 思考方式이 진화해가는 테두리를 설정한다. 社會生活이나 그것에 관련된 思考方式은 全體로서 完滿히 進行한다. 그리고 社會生活이 가져오는 長期에 걸친 刺戟이 社會構造를 통하여 政治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 社會生活의 刺戟은 社會構造라는 場에서 普遍化되고 非經濟的 慾求와 連結되고 思想으로 結晶化되거나 根本構造에 관계되는 特定目的으로 結晶化되거나 한다. 여기에는 當然히 政治構造에 있어서의 變化도 包含된다.³⁷⁾

收斂理論을 뒷받침하는 以上の 立場은 經濟狀況의 變化가 政治變化에 長期的으로 연결되며 이 結果로서 兩體制의 收斂이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自由陣營立場에서 收斂理論을 強하게 批判했던 Brzezinski나 Huntington은 다만 蘇聯에서 다음 다섯가지의 條件이 政治次元에서 發生한다면 收斂理論을 受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⁸⁾

- ① 黨第一書記와 政治局主宰者の 任期를 定할 것
- ② 首相의 在職期間을 黨指導者の 在職期間에 맞출 것
- ③ 指導者の 在職期間이 끝나면 一定한 公式節次를 거쳐 交替하는 制度를 採用할 것
- ④ 中央委員會에서의 公開討議 및 秘密投票를 認定할 것
- ⑤ 黨員에게 黨의 特定の 政策을 批判할 權利를 부여할 것

以上の 5項目의 條件은 自由世界에서는 常識에 屬하지만 共產圈에서는 도저히 實現不可能하게 보였기 때문에 Brzezinski는 收斂이 아닌 離散의 立場을 옹호하기 위해 이같은 條件을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Brzezinski의 5個條件은 지금 극소수의 共產國家(中共, 北韓, 알바니아, 루마니아, 쿠바, 베트남 등)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共產國

家에서 거의 實現되거나 되고있는 過程에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이상의 5 個項目的 條件과 無關하지 않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결국 共產體制는 西方世界の 工業化를 向한 收斂에서 自由化, 民主化를 向한 收斂으로 體制轉換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收斂理論의 主唱者였던 蘇聯의 反體制 物理學者인 Andrei Sakharov 가 변화하는 蘇聯에서 人民代議員으로 當選되어 活躍 했던 것도 收斂理論의 妥當性을 雄辯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收斂理論은 挫絶한 마르크시스트들의 希望論도 아니고 冷戰에서 希望을 상실한 有和主義者들의 理論的 脫出口도 아니다. Yalta 體制的 崩壞와 더불어 가장 現實性있는 共產圈體制變化的 證據로서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收斂理論의 이같은 影響下에서 共產圈에서 나타날 수 있는 體制變動 모델도 部分的으로 定立되고 있다. 우선 經濟面에서 Montias 는 ① 動員體系, ② 集中的 行政體系 ③ 非集中的 行政體系, ④ 市場社會主義의 4 段階論을 提示하면서 市場社會主義 段階의 政治體系를 檢討하고 있다.³⁹⁾

한편 Peter Ludz 도 類似한 指向에서 共產圈 進化의 4 段階說을 提示한다. 즉 ① 強壓的 全體主義段階 ② 福祉 全體主義段階 ③ 協議的(Consultative) 權威主義 段階 ④ 參與的 權威主義段階의 段階를 提示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모델의 有用性 與否는 後述할 共產圈의 體制變化的 樣相을 分析하면서 檢證해야 하겠지만 收斂理論의 照明없이 는 오늘날 東歐圈에서 惹起되는 急變의 向方과 範圍를 豫測할 수 없는 것이다.

結局 收斂理論은 變化的 理論에서 變化的 方向과 範圍의 理論으로 까지 幅이 擴大되고 있다 하겠다.

Ⅲ. 共存과 交流의 論理

共產主義의 體制變化는 앞서 檢討한바 工業化 達成以後의 體制內的 矛盾과 葛藤의 克服을 위해 惹起되지만 이러한 內的 要因은 外部環境의 變化와도 깊숙히 關聯되고 있다.

이러한 外部要因으로 東西兩大陣營과의 平和共存과 東西間의 交流의 發展을 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

1. 平和共存理論의 展開

第二次 世界大戰以後의 世界는 東西兩大陣營으로 分裂되었고, 이 分裂對立은 아시아 大陸에서는 韓國戰爭으로, 歐洲에서는 베르린 障壁의 構築으로 表現되었다.

東西兩大陣營은 서로間에 存在와 價値를 否認하는 가운데 冷戰秩序는 굳혀지기에 이른다.

共產陣營은 地球上에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限 戰爭은 不可避하다는 論據에서 戰爭對備體制를 強化했고 對外膨脹에 注力했다. 이에 맞서 自由陣營은 人間성과 平和를 유린하는 共產主義의 侵略을 阻止하기 위해 1947年 3月 Truman Doctrine을 發表하여 對共封鎖政策을 強化했다. (이 政策이 公式的으로 拋棄된 것은 1989年 5月 A & B大學에서 行한 Bush 演說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東西世界는 人類를 絶滅시킬 核武器가 高度로 發達, 戰略武器로서 體系化 되고 通常戰力도 急速히 現代化됨에 따라 政治의 手段으로 戰爭을 使用할 수 있게 되었다는 認識이 鮮트게 되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 首相은 이러한 背景에서 戰爭不可避라는 Lenin의 情勢觀을 修正하는 東西兩大陣營間的 平和共存 (peaceful coexistence)을 主張하게 되었다.⁴¹⁾ 그는 世界大戰과 核武器의 使用을 隨伴하는 革命에 의하지 않고도 社會主義는 資本主義와의 體制競爭을 통해 窮極적으로 勝利하고 이 地球위에 共產主義의 目標文化로서의 「階級없고 國家없는 社會主義理想社會」를 具現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共產圈의 이같은 平和共存論에 대해 自由世界는 西方의 對共警覺心を 弛緩시키고 對共封鎖網을 풀기 위한 術策으로 看做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共產圈內에서도 中共은 戰爭不可避論을 戰爭可避論으로 바꾼 蘇聯의 態度를 「修正主義」(revisionism)라고 批判하고 이 問題를 주요한 中蘇間的 論爭이 급기야는 中蘇對立이라는 새로운 狀況으로 展開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⁴²⁾

그러나 이 當時 西方側에서는 共產體制의 孤立·弱化에 目標을 두고 추진된 對共封鎖政策 (containment policy)의 實效성에 疑問이 提起되었다. 즉 封鎖에도 不拘하고 共產圈의 內部瓦解는 나타나지 않았고 自由世界의 致命的 利害의 領域에 대한 解答은 中止되었고 內部的 工業化와 核武器의 開發이 共產圈內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Henry Kissinger가 그의 「選擇의 必要性」에서 「共產主義의 共存論에 어떠한 企圖가 潛在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立場에서 共存을 定義하면서 對處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 것은 바로 이러한 狀況을 代辯하고 있는 것이다.⁴³⁾

이러한 脈絡에서 平和共存의 概念이 兩大陣營에서 定着되기에 이른다. 同時에 共存의 概念을 具體化하기 위한 努力이 開始된다.

1959年 美國의 Camp David에서 후르시초프·아이젠하워간의 美蘇頂上會談으로부터 1989年 12月 부시·고르바초프의 molta 頂上會談에 이르기까지 30年동안 東西關係는 「對決에서 協商으로」라는 口號가 表現하듯이 東西간의 平和共存關係의 定着에 目標을 두고 展開되어 왔다.

그러나 60年代의 共存概念은 그 첫 成果로서 東西兩陣營간의 冷戰의 「解氷情勢」를 造成했을뿐 實質的인 進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頂上外交가 거듭됨에 따라 東西兩陣營간에 部分核實驗禁止(1968)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고 뒤이어 戰略武器制限에 관한 論議가 새로운 協商의 課題로 登場했다.

이러한 事態의 發展으로 解氷情勢는 이른바 「데탕트」時代로 共存概念의 發展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當時는 兩陣營간의 大戰爭抑止의 與件만 造成해갈뿐 兩陣營의 軍事Bloc化에는 變化가 發生하지 않았다.

1968年 8月 「프라하의 봄」을 바르샤바條約機構 軍隊를 動員, 鎮壓한 브레즈네프의 다음과 같은 演說은 이 當時 共存概念의 限界를 잘 말해주고 있다.

「社會主義에 敵意를 갖는 內外的 勢力이 資本主義的 秩序를 回復하기 위하여 어떤 社會主義 國家의 發展을 逆轉시키려고 試圖하고 그 나라에 社會主義의 危機가 생길때, 또는 社會主義 共同體 全體의 安全에 위협이 생길 때 그것은 이미 그 나라 國民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모든 社會主義 國家 共通의 問題요 關心事로 된다. 45」

흔히 브레즈네프·독트린으로 불리우는 이 演說은 當時의 共存概念이 갖는 歷史的 限界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共存論理는 1972年 5月 美蘇戰略兵器制

限條約(SALT I)이締結되는同年12月兩獨間에基本條約이締結되면서부터實質的進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1975年8月全歐洲安保會議에서歷史的인「헬싱키宣言」이採擇됨으로써歐洲大陸에서의平和共存關係가制度化되기에 이른다.

이 헬싱키宣言은 두가지의特徵을 갖는다. 즉 ① 第二次世界大戰의結果로 이루어진歐洲에서의現國境線과勢力範圍를現水準에서凍結한다. ② 但 이國境線과勢力範圍는武力에 의하여變更될 수는 없으나交流와協力에 의한平和的現狀變更은容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⁶⁾

그리고1979年6月美蘇戰略兵器制限條約(SALT II)가調印됨으로써해서歐洲에 있어서의平和共存은內實있게定着된다.

80年代에 들어와서兩大陣營間的平和共存은歐洲에關한限1987年12月美蘇間에中距離核戰力(INF)全廢條約이調印되고 아프카니스탄駐屯蘇聯軍이撤收를開始함으로써, 또東歐에서政治改革運動이平和的現狀變更을可能케 하도록活性化됨으로써發展의新局面을 맞게 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1989年7月Strasburg의歐洲議會에서「어느나라의社會政治制度도과거부터變해왔고단앞으로도變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變化는그나라국민자신의問題이며選擇이다. 國內問題에의如何한干涉도또主權을制限하는어떠한試圖도友好國間이나同盟間的如何한경우에있어서도容認될수없다」고宣言했다.⁴⁷⁾ 앞서의 브레즈네프의연설과는극히對照的이며현단계의共存論理의位相을적절히表現하고있는것이다.

共存概念의 이같은 發展이 앞서 檢討한 共產國의 體制內的 變化的 係保인가 原因인가에 대해서는 視角의 差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共存概念의 活性化속에 理論으로서 收斂理論, 改革運動의 可能性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共產國의 體制變化的 問題와 共存概念은 緊密히 연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東西교류關係의 發展

共產體制的 變化에 影響을 미친 現 要素로서 앞서 檢討한 平和共存論과 함께 東西間의 交流의 發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어느 나라, 어느 社會의 經濟도 單獨으로는 有效한 成長을 期待할 수 없다. 이 點에서 이른바 共產圈도 例外일수는 없다.

第二次 世界大戰以後 冷戰으로 말미암아 凍結狀態에 있던 東西의 經濟關係는 1950年代 後半에 이르러 多少 緩和의 기미를 보이다가 60年代에 들어와서는 增大的 추세를 보였고 70年代에 이르러 加速的인 擴大를 보여 왔다.

이것은 「冷戰」에서 「解氷」을 거쳐 「데탕트」로 移行하는 東西의 政治關係 즉 共存關係의 發展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政治關係는 또한 東西의 經濟狀況, 特히 共產側의 經濟成長과 그에 隨伴되는 諸要請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다.

東西經濟關係의 展開에 관해서 西獨의 Peter Knirsch는 1945~53年, 1954~65年, 1966~1975年으로 거의 10年을 期間으로 時期區分을 하면서 東西經濟交流의 「頓底狀態」, 「正常狀態에의 復歸」, 「急上昇」의 三段階 展開를 提示하고 있다.⁴⁸⁾ 또한 이와 類似한 것으로 Poland의 Alexander

Czepurko 는 1947 ~ 54 年, 1955 ~ 70 年, 1971 年 以後의 3 時期로 東西經濟關係를 區分하면서 「冷戰과 東西貿易의 減退」, 「平和共存과 相互間에 有利한 經濟協力の 基礎強化」, 「東西貿易의 成長과 未曾有的 加速」으로 나누고 있다.⁴⁹⁾

이 兩者의 研究는 時期區劃에 多少差異는 있으나 東西經濟交流가 「凍結」- 「緩和」- 「擴大」로 發展했다는 점에서 共通된다. 그러나 兩者의 見解는 1975 年度 以後의 石油波動으로 東西經濟交流가 다시 停滯된 側面을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東西經濟關係를 「凍結」- 「緩和」- 「擴大」- 「停滯」로 나누어 分析하고 東歐改革과 Malta 會談以後의 樣相을 展望하면서 「協力」의 分野를 追加해서 檢討하기로 한다.

A. 凍結 (1945-53)

東西冷戰이 激化되는 이 時期에는 東西間의 交流가 事實上 凍結되었다. 蘇聯은 革命以來 Autarky 를 指向했으므로 처음부터 貿易에 別關心이 없었고 東歐諸國 역시 共產化以前에는 兩歐工業諸國과 經濟的 紐帶가 있었으나 經濟的 後進과 生活水準의 落後로 이 地域의 對西歐貿易이 世界貿易에서 占하는 比重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戰前인 1938 년에는 이들 地域의 對西歐貿易總量이 世界貿易에서 4.74 %였다. 그것이 冷戰의 深化로 말미암아 1953 년에는 1.16 %로 低落했다.⁵⁰⁾

이 時期의 情報은 自由世界에서는 마샬프랜에 의하여 戰後歐洲復興計劃이 推進되고 있었고 이같은 壓力에 맞서 蘇聯은 東歐 6 個國을 묶어 相互經濟 援助會議 (Comecon)을 結成, 全東歐의 Autarky 體制化를 推進했다.

한편 1949年4月 西方側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를 結成했고 곧이어 同年 11月에는 對共產圈 輸出(統制別調整委員會(COCOM)을 設置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韓國戰爭이 發生, 兩大陣營間의 對立이 極도에 達했기 때문에 東西間에는 經濟關係가 事實上 斷切되는 狀態가 지속되었다.

B. 緩和(1954-65)

韓國戰爭을 高비로 事實上 凍結狀態에 머물러있던 東西의 經濟關係는 50年代中盤부터 凍結緩和의 方向을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兩大陣營의 政治關係 變化에서 비롯되는데 1953年의 Stalin 孤立, 1956年의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批判과 平和共存論의 主唱, 1955年의 바르샤바條約機構發足, 蘇聯의 核武器保有등을 背景으로 形成되었다. 또한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는 東歐圈에 있어서 Autarky 政策의 지속에서 비롯된 經濟成長의 鈍化가 主要因이 된다. Autarky 政策은 經濟規模가 크고 원래 貿易依存도가 낮은 蘇聯에는 큰 損失이 없었으나 經濟規模가 적고 對西方依存도가 높은 東歐諸國에는 犧牲이 너무 컸던 것이다.

이에 따라 Autarky 體制에 대한 反論이 1953년부터 Hungary, 東獨 Poland에서 提起되었고 經濟成長의 鈍化를 막기 위한 共產圈內의 經濟改革이 1965年을 起點으로 共產圈內에 擴散되었다.

한편 西方에서는 戰後의 經濟成長이 豫想이상으로 높아 東西間의 經濟格差가 出發당시와 比較도 안될만큼 크게 벌어짐에 따라 對共警戒心이 緩和되고 특히 東歐의 經濟改革과 收斂理論의 擴散등이 東西經濟關係 緩和의 與件을 助成했다.

이 결과 東西의 貿易額은 1954년부터 65年사이에 3.7倍로 늘어나고 世界貿易에서 占하는 比率은 1965년에는 2.19로 되어 最低時의 約2倍

로 上昇 緩和되었다.⁵¹⁾

C. 擴大(1866~75年)

兩大陣營間的 共存關係의 發展에 따라 東西交流는 계속 伸張勢를 보였다. 1961~65年의 東側諸國의 對西側貿易의 年平均伸張率은 輸出入을 합쳐 10.5% 程度였지만 1966-70年에는 輸出 9.3%, 輸入 10.9%, 1971~75年에는 輸出 25.4%, 輸入 35.0%로 上昇하고 이 中 1972년부터 74년까지의 伸張率은 72年의 輸出 16.3%, 輸入 33.6%, 73年의 輸出 47.5%, 輸入 45.6%, 74年의 輸出 48.0%, 輸入 38.9%로 경이적인 伸張을 보였다.⁵²⁾

더욱이 이 시기에는 通常의 貿易外에 이른바 産業協力 (industrial cooperation)이라는 形態의 經濟的, 技術的인 交流가 急速히 擴大되었다. 이것은 中長期協定과 大部分 Compensation 去來에 기초한 交流方式이며 70年代를 前後로 Poland 또는 Hungary가 先頭가 되어 東西經濟交流의 新時代를 열게 된다.

東歐 Comecon 諸國과 西側企業間에 締結된 이러한 中長期協定은 1960年代 中葉에는 약 100件에 지나지 않았지만 1968년에는 180件, 1970년에 들어와서는 350件에서 400件으로, 1973年末에는 1,000件으로 급증하고, 1974년부터 75年 前半에는 伸張이 鈍化되었지만 1976년까지 1,200件에 達할 만 큼 擴大되었다.

이러한 擴大의 政治的 背景은 이 時期에 있어 東의 平和共存, 西의 現狀承認이 定着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은 1969年 東西貿易에 制動을 걸었던 Battle act를 緩和하여 輸

出管理法 (export administration act) 으로 바꾸고 이어 1972年 美蘇通商協定, 1974年의 새로운 通商法 (trade act)가 制定됨으로써 東西關係는 급속히 德 땅트方向으로 進展되었다. 1972年 닉슨의 中共訪問, 蘇聯訪問과 1973年6月 브레즈네프 蘇聯共産黨 書記長의 訪美는 東西交流擴大의 背景이 된다. 특히 西獨에서는 東西交流를 沮害했던 이른바 1956年의 Halstein 原則이 1969年의 Brandt 政權의 出現과 함께 廢棄되었는데 이 조치 역시 이 기간의 主要産物이라고 하겠다.⁵³⁾

同時에 이 時期에 있어서는 東歐諸國이 自體內의 經濟成長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內部的으로는 經濟改革을 서두르고 對外的으로 西方과의 經濟協力을 적극 追求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른바 「體制開放」이 不可避하게 要請되었던 것이다. 1967年에 Czechoslovakia가 GATT에, 1970年에 Romaina와 Hungary가 GATT 및 IMF에 加入한 것은 이 당시의 狀況을 적절히 말해주는 것이다.⁵⁴⁾

D. 停滯(1976 ~)

그러나 東西間의 經濟交流는 70年代 後半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停滯의 局面을 맞게 된다.

이 時期는 1973年의 石油波動 (oil shock)을 契機로 世界的 規模로 輸出價格이 騰貴하게 되어 東西世界가 共히 景氣後退에 빠지게 된다.

이에따라 對西歐輸入依存도가 높은 東歐經濟는 累積되는 債務, 景氣後退에 따른 輸出不振 (粗惡한 品質로 인한 市場競爭力 脆弱도 하나의 原因임), 勞動力 輸出不振에 따른 對西歐産業등, 協力基盤 弱화등으로 對內的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壓力과 成長沈滯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 狀況의 克服을

위해서는 輸入의 減少를 선택치 않을 수 없었으며 東西諸國의 改革, 開放政策은 重大한 試練期를 맞게 되었다.

한편 Helsinki 宣言의 採擇以後 共產圈에 대한 西方側의 人權攻勢가 再開됨으로써 美蘇間의 通商協定은 蘇聯에 의해 破棄되고 東西關係는 다시 硬化되었다.

특히 1975年 越南의 共產化以後 蘇聯은 그 膨張政策을 再開하여 앙고라, 에티오피아, 남예멘, 아프카니스탄을 攻略하였다. 이리하여 世界情勢는 다시 逆데탕트 時代로 轉換되는 분위기가 造成되었다.

E. 協力에의 展望

지난 40여년에 걸친 東西間의 交流와 東西間의 體制的 要因, 政治的 要因 그리고 經濟的 要因과의 相互連關속에서 漸進的으로 伸張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世界는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는 東西間의 體制差異에도 불구하고 相互依存性이 日益 增大하고 있으며 交流와 協力없이는 成長과 發展을 기대할 수 없는 狀況에 놓여 있다.

그러나 交流의 擴大는 아직까지도 東西間의 政治關係가 改善되지 않고서는 앞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期待할 수 없는 것도 事實이다.

共產側은 東西間의 交流가 閉鎖體制와 開放體制間의 交流이며 이 경우 交流過程에서 形成되는 社會態度는 經驗的으로 보아 開放體制를 向해 形成되기 때문에 交流促進보다는 交流抑制政策을 選擇해 왔다. 그러나 共產圈全體의 Autarky 化를 追求해 왔던 Stalinism, Brezhnev Doctrine 은 이제 더이상 東西關係를 規律할 수 없게 되었다.⁵⁵⁾

美國의 부시 大統領과 蘇聯의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20世紀 世紀末의

始作을 1個月 남긴 1989年 12月 molta에서의 會談을 통하여 冷戰的 世界秩序를 清算하는데 合意하고 東西關係의 새 時代를 開創하는데 協力할 것을 全 人類가 지켜보는 가운데 公開的으로 宣言했다.

이제 蘇聯도 國際資本主義 陣營의 金融 經濟機關인 GATT, IMF에 加入할 수 있게 되었으며 「軍備競爭」으로 特徵지워진 東西關係의 現實을 「軍備縮小, 軍備管理」의 時代로 바꾸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이러한 展望에서 볼 때 今後의 東西間의 交流는 단순한 交流를 넘어선 協力, 적어도 體制協力の 可能性을 내다보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은 아직도 世界政治의 中心이 된 歐洲에서만 定着되고 世界의 餘他 地域에는 依然 舊時代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歐洲大陸에서의 變化가 全世界에 破及되는데는 時間이 걸리더라도 可能할 것이다. 마치 英國에서의 産業革命이 地球를 휩쓸듯이 歐洲에서의 協力秩序가 亞細亞大陸에도 破及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IV. 體制變化의 樣相

1980年代 後半에 이르러 共產圈의 體制變化는 이제 豫想을 훨씬 넘어서서 具體的 現實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Stalinism으로 制度化되었던 共產體制는 점차 地球上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自己中心的 傾向을 統制함으로써 階級없고 國家없는 理想社會를 建設하여 누구나 「能力에 따라 努力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받는 社會」를 이룩하기 위해 出凡한 共產主義 體制는 이제 그 유토피아를 彼岸에 남겨 둔채 地球上에서 急激히 變貌되고 있는 것이다.

Stalin型 社會主義를 全世界에 普及했던 蘇聯社會가 Stalin型 社會主義를 克服하기 위해 一大改革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흔히 Perestroika로 알려진 蘇聯의 體制改革運動은 그 名分이 무엇이건간에 그 本質은 Stalin型 社會主義를 克服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Stalin型 社會主義를 理想型으로 받아들이기에 받아들이기에 유고슬라비아(1948)는 벌써 오래전에 體制變化를 단행했고⁵⁶⁾ 1950年代에 들어서서 農業의 集團化를 끝으로 Stalin型 社會主義를 定着시켰던 東歐諸國과 中國에서도 Stalin型 社會主義를 清算하기 위한 體制改革이 進行中에 있다.

그러나 現在 進行中에 있는 共產圈의 體制變化는 모든 共產國家에서 同一하게 單線的으로 進行되는 것은 아니다. 各國이 놓여있는 發展段階의 差異, 歷史的 背景의 差異, 政治文化의 差異에 따라 狀況變化에 對處하는 體制變化方式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또한 現在 進行되고 있는 變化는 어느 國家에서도 變化完了型이 아닌 變

化 進行型이기 때문에 Stalin型 社會主義처럼 體制變化의 理念型(Ideal type)으로 定着된 變化의 類型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各國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變化의 특징은 國別로 時差는 있으나 Stalin 體制의 克服에 目標를 두는 經濟體制의 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

Stalin型 社會主義, 즉 共產黨의 一黨支配, 黨에 의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代行, 黨에 의한 國家의 代行,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그리고 農業의 集團化를 特徵으로 하는 體制는 이제 더 이상 世界史의 現實에 適合할 수 없다는 認識에 있어서 各國이 共通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各國의 具體的 實踐에 있어서는 적잖은 差異가 있다. 共產黨의 一黨支配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經濟體制만을 變更시키려는 改革路線, 政治體制와 經濟體制를 同時에 改革하려는 民主化 改革路線, 表面上으로 改革을 指向하면서 內面的으로는 既存體制를 固守하려는 保守路線이 現在 擡頭하고 있는 共產圈의 體制變化의 狀況이다.

現時點에서 體制變化의 狀況을 評價해 볼 때 西歐的 體制를 背景에 두고 있는 蘇聯, Hungary, 東獨, Czechoslovakia, Poland 등은 政治·經濟體制의 同時改革을 추구하고 있고 歷史속에서 民主的 基盤이 취약한 中國, Balkan半島의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은 經濟改革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루마니아, 알바니아, 北韓 등은 保守路線을 追求하고 있다.

以上 세가지 類型을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하기로 한다.⁵⁷⁾

1. 政治·經濟 同時改革型

共產圈에 있어서 體制改革運動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主唱以前

부터 展開되어 왔다. 후루시초프의 Stalin 批判은 적어도 Stalin 型 社會主義에 대한 最初의 挑戰이었으며 Hungary 의 1956 年에 있어서의 反蘇民主化改革運動 역시 Stalin 型 社會主義에 대한 挑戰이었다. 또한 1968 年 Czechoslovakia 의 이른바 「人間的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運動」도 같은 脈絡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初期의 改革運動은 共產主義의 Utopia 即 共產主義의 目標文化를 具現하기 위한 移行文化로서의 Stalinism 이 共產主義의 目標達成에 不適合하다는 反省에서 出發한다.

물론 Stalinism 은 初期에 있어서는 計劃과 體制와 動員體制의 強點을 살려 社會主義 陣營을 強化하고 急速한 工業化를 이룩하는 등 外形的 經濟成長의 加速化에 寄與한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⁵⁸⁾

그러나 모든 開發獨裁의 경우가 그러한 것처럼 Stalinism 은 經濟成長을 一定水準 이상 끌어 올리지 못하는 限界를 가지는 것이었다.

黨이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代行하면서부터 黨幹部와 黨組織은 極端的으로 官僚化되었으며 生産手段의 社會化와 集團化에서 不可避하게 초래되는 平等主義(egalitarianism)은 모든 人民이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할 意慾을 빼앗아 갔다. 中央集權의 指令經濟는 經濟體制의 效率을 激減시켰다.⁵⁹⁾

결국 強制的 動員體制와 이것에서 비롯된 緊張이 사라지면서부터 共產體制는 Karl Marx 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現實 즉 社會主義의 停滯(Socialist Stagnation)를 招來했다. Karl Marx 는 全生産手段이 人民的 所有가 됨으로 해서 資本家에게 착취당하던 賃金勞動이 사라지고 勞動者가 勞動者 自身の 利益을 위해 일하는 社會가 實現되면 모든 勞動者는 누구나 最善을 다해 勞動을 즐기게 될 것으로 보았다.⁶⁰⁾

그러나 바로 이 勞働者들이 그들을 代身해서 社會主義를 實踐하는 黨幹部들에게 疎外당하고 機械的 平等主義 때문에 最善을 다해 創意를 發揮할 意慾을 상실당했다면 體制는 반드시 改革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60年代 中般부터 始作된 共產圈의 經濟改革은 蘇聯의 Liberman, 체코의 Otasik, Hungary의 Berend 등의 理論을 받아들여 物質的 刺戟, 利潤動機賦與에 重點을 두었다.⁶¹⁾ 여기에서 導出된 經濟改革의 施策은 ① 國家에 의한 中央計劃의 範圍縮小 ② 企業의 自主性 擴大와 政府補助金の 削減 ③ 利潤原則의 採用 ④ 勞動效率과 賃金の 結合, 勞動組合의 役割 擴大등 이었다.⁶²⁾

그러나 社會主義的 테두리 내에서 經濟改革은 工業化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技術革新을 이룩할 수 없었고, 量的 成長이 質的 成長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러한 狀況을 打開하기 위하여 COME-CON 中心의 經濟交易를 西方으로 擴大하는 對外開放政策이 採擇되었다. 先進 技術과 資本의 導入이 이루어짐으로써 共產圈은 새로운 經濟的 活力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共產圈의 經濟가 國際化, 開放化되면서부터 새로운 難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은 西方世界의 經濟가 景氣後退의 影響을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73年의 石油危機는 東西兩大陣營의 經濟에 심각한 打撃을 안겨주었다.

經濟開放의 時期는 對西方輸出에 施策의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共產圈에서 이루어진 經濟改革의 現實은 西方과의 競爭을 감당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서 國際적으로 通用될 生産能力과 競爭能力을 갖는 經濟體制의 構築이라는 課題에 直面하게 된다.⁶³⁾

이러한 體制의 整備없이 累積되는 對西歐債務를 辨濟할 方途가 없고 輸出의 不振이 계속될 경우 國內의 인플레이션 失業의 問題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對西方 經濟依存도가 높은 헝가리와 폴란드가 經濟體制的 根本的 改革에 앞장 선 것은 이러한 關係에서 볼 때 不可避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70年代 後半부터 헝가리에서는 東西 兩大陣營에서 通用될 수 있는 經濟體制를 摸索하기 始作했다. 이러한 摸索의 制度的 表現이 곧 政治·經濟改革의 同時追求이며 이른바 經濟의 複數制와 政治的 複數制 (pluralism) 라는 社會主義的 理論이다.⁶⁴⁾

經濟의 複數制는 個人的 이니셔티브를 活用하기 위하여 社會主義的 所有形態를 多樣化하는 것이다. 즉 ①農業以外的 분야에서 15人以上の 發起人으로 이루어지는 「小規模協同組合」, ②農業·工業의 분야에서 5人이상의 發起人으로 이루어지는 「專門그룹」 ③國營企業이나 協동조합기업등 社會主義 部門에서 15人以下の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契約事業」등을 인정하고 個人企業開設許容, 3年以上의 專門勞動의 經驗이 있는 個人에게 修理, 補修등의 小工業의 所有經營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施策은 1980年代의 中共에서 大幅 受容되고 있다.

同時에 國營企業에 대해서는 規模의 適正化를 추진하고 國家指導가 抑制 되도록했다.⁶⁵⁾

그러나 이러한 改革에는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失業·破産·對外債務에서 오는 經濟的 困難때문에 保守派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社會主義原則과 새로운 施策間의 矛盾에 관한 論爭이提起된다. 동시에 改革 施策이 進行되는 過程에서 大衆의 政治參與意慾이 擴散된다. 즉「疎外에서 參與로」의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勞動者의 自主管理領域에서 부터 主要 施策의 決定에 이르기까지 大衆의 發言權은 增大되고 改革派들은 이러한 大衆參與를 立志의 基盤으로 삼기 때문에 政治參與의 意慾은 갈수록 強化

鼓舞되는 것이다.⁶⁶⁾

大衆의 이러한 慾求를 改革政策에서 收斂한 것이 바로 政治에 있어서의 複數制이다.

헝가리에서는 1987年 12月 國會議員 地方議員選舉에서 複數立候補制가 導入되고 89年 1月에는 憲法의 一部를 修正하여 ①國회의 國民投票實施命令權, ②憲法裁判所設置, ③國會와 閣僚會議의 權限 確定 ④出版의 自由, ⑤ ⑥結社·集會의 自由 ⑦平和的 集會, 데모, 行進를 認定했다.⁶⁷⁾

소련의 Perestroika 가 Glasnost(情報公開)를 中핵으로 하고, 동시에 人民代議員 選舉에서 複數制를 採擇하고 있는 것은 Hungary model 과 軌를 같이하는 것이다.⁶⁸⁾

오늘날 Gorbachev 의 改革政策은 그 基本方向을 Hungary model 에서 求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蘇聯에서의 改革政策은 世界國家로서의 蘇聯의 위치, 地球最初의 社會主義 國家로서의 歷史, 社會主義 陣營의 盟主로서의 立場때문에 다른 東歐諸國에서 처럼 容易하지 않다.

우선 蘇聯에서는 改革이 超大國으로서의 蘇聯의 國家的 威身을 損傷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尙大한 軍事費의 負擔을 덜지 않으면 經濟改革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東西間의 平和共存을 固히는 緊張緩和外交에서 實을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改革이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도록 成果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西方과의 적극적인 經濟協力の 길을 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防壁이 쌓여지지 않는 한 고르바초프의 Perestroika 는 國內 保守派(軍部, KGB 營內 불세비키)들의 反撥과 抵抗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國內에서의 經濟改革, 政治改革을 推進함과

동시에 北韓, 알바니아를 除外한 全東歐諸國과 中共을 巡訪하면서 體制改革을 促求하는 盟邦外交를 펼치는 한편 西方을 相對로 하는 共存·協力外交를 적극 強化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政策은 東歐改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國內에서의 保守派의 反撥을 抑制하고 蘇聯의 改革政策에 대한 西方으로부터의 信賴를 獲得하는데 目標을 두는 것이다. 1989年 12月の 말타에서의 美蘇頂上會談은 이러한 견지에서 고르바초프가 거둔 큰 成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以上에서 살펴 본 政治·經濟 同時改革路線은 內外情勢의 趨移에서 볼 때 第一段階의 成功을 거두고 있지만 改革의 定着을 위해서는 아직 解決해야할 課題가 山積해 있다.

우선 西方側이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 陣營의 改革을 成功시키기 위하여 과연 戰後歐洲復興計劃(Marshall plan)같은 大規模 經濟支援을 할 수 있을까⁶⁹⁾ 두번째로 社會主義가 비록 低水準이라고는 하더라도 이제까지 定着시킨 全人民 平和保障의 體制를 社會主義的 所有形態를 바꾸면서도 지속적으로 維持할 수 있을까. 셋째로는 社會主義的 生産部門이 漸減되는 反面 個人 내지 小集團 生産部門이 增大되고 있는 狀況下에서 社會主義의 平等理念을 如何히 調和할까의 問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물론 Hungary model은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닌 第3의 길을 指向한다고 主張하지만 아직 定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政治·經濟 同時改革 model은 人間性的 두가지 慾求 즉 物質的 所有慾과 決定에의 參與慾을 收斂하고 있는 점에서 社會主義 體制的 人間化 즉 「人間의 얼굴을 하고 있는 社會主義」를 實現하고 있다.

現在の 樣相을 社會主義的 多元主義 (Socialist pluralism) 또는

新權威主義(New authoritarianism)이라고評하는學者들이 있으나概念이定着되는데는 좀더時日을 두고觀察해야 할 것이다.⁷⁰⁾

2. 經濟 改革型

일반적으로 經濟가 人間生活의 基本組織인 限 經濟의 改革은 반드시 政治改革으로 連結된다는 것이 歷史에 있어서 常識이다. 또한 成功된 모든 經濟改革은 政治改革과 併行되었다. 일찍이 英國의 政治學者 Laski는 「인간은 政治的 構成單位와 經濟的 構成單位가 一致할 때 約束된 땅」으로 들어간다고 說破한 일이 있다.⁷¹⁾

그러나 共產圈의 경우에 있어서는 學界에서 兩論이 對立한다. 즉 R.V. Burks나 Gregory Grossman등은 「政治的 多元主義와 民主化를 向한 壓力을 일으키지 않고는 經濟改革은 있을 수 없다」고 主張하는 반면⁷²⁾ Wlodzimierz Brus 등은 政治體系內의 심각한 變動없이도 經濟改革은 가능하고 政治改革과 經濟改革은 전혀 判異하다고 主張한다.⁷³⁾

이 兩論은 調查研究의 對象의 差異에 起因한다. Hungary, Poland, Czechoslovakia, 東獨처럼 共產化以前부터 民主化, 工業化의 傳統과 基礎가 있는 나라에서는 政治改革과 經濟改革이 相補關係에서 추진될 수 있지만 東洋의 專制主義를 背景으로 하는 中國, 貧困과 文盲, 後進을 特징으로 하는 Balkan 半島의 共產圈들에서는 當面の 必要性때문에 體制의 根幹은 그대로 두면서 經濟適用方式만을 改革하는 選擇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中國의 경우 毛澤東死後 3年後인 1979年 中共黨 第3次中央委員會 總會를 계기로 中共의 4個現代化를 겨냥하는 改革, 開放의 길을 열었다.

改革, 開放과 더불어 農業集團化의 象徴인 人民公社는 廢止되고 經濟的

複數主義를 採擇하여 個人企業이 認定되고 獨自的으로 致富하여 中世時代의 自營農民層이 등장하듯 萬之戶가 出現하고 他國과의 合辦事業이 活生化되었다. 지금 中國에서 진행되는 經濟改革은 工場長中心制, 獨立採算制, 外資金算, 證券去來所 設置, 株式會社許容, 그리고 所有形態의 多樣化등 施策을 實施함으로써 蘇聯, 헝가리를 앞서는 經濟改革의 先頭走者가 되고 있다. 이 결과 文化革命時代의 가난은 없어지고 衣食의 분야에서는 蘇聯이나 東歐諸國처럼 돈이 있으나 物資가 없어서 줄을 서는 行列이 없어질만큼 豊요해졌다. ⁷⁴⁾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國의 鄧小平政權은 經濟改革·社會開放과 함께 4原則으로 ① 社會主義의 道 ② 人民民主獨裁 ③ 共產黨의 指導 ④ 마르크스·레닌主義 및 毛思想의 堅持를 내세워 政治改革만은 外面하고 있다. 1989年 6月 4日의 天安門大虐殺事件은 經濟改革과 政治改革間의 矛盾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⁷⁵⁾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1950年代以來 勞動者 自主管理를 採擇하여 最初로 蘇聯의 Stalin式 社會主義와 決別하고 經濟改革을 단행했다. 特히 集權制와 官僚主義를 批判 清算한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共產體制改革의 先驅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⁷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改革에는 지극히 消極的이고 一黨支配를 維持하고 있다. 당시 Tito의 참모였던 Kardel가 「아무리 완전한 관료장치라고 해도 그 先頭에 아무리 天才的인 指導部가 서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社會主義를 建設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프롤레타리아黨의 正當한 지도와 더불어 수억만 大衆의 이니셔티브로부터 社會主義는 成張할 수 있다.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끊임없는 深化뿐이다」고 宣言한 이

래 유고슬라비아共産黨의 一元的 支配는 계속되고 있다.⁷⁷⁾

經濟改革과 政治改革의 不一致를 흔히 「中體西用」論으로 批判한다. 즉 淸나라의 改革派들이 淸나라의 專制君主體(中體)를 그대로 두면서 西洋의 技術, 工業化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變法自彊, 洋務運動이 失敗했음을 指摘하는 이야기이다.

中國共産黨의 政治改革이 뒤늦은 것은 단순히 中體西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經濟改革을 통해 政治改革을 實施할 與件을 造成하는 開發獨裁의 戰略을 政治改革과 經濟改革不一致의 背景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共黨이 有效한 指導力을 喪失한 가운데 內部的 腐敗가 深化될 경우 政治改革은 年次的 狀況에서 추진될 수도 있다. 또 權力鬭爭 過程에서 改革派가 政治改革을 大衆支持의 미끼로 利用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⁷⁸⁾

그러나 政治改革이 隨伴되지 않는 經濟改革은 短期的인 成果에도 不拘하고 그 不完全性 때문에 새로운 改革의 原因이 되고 여기에서 政治改革은 必然的으로 誘導될 것이다.

다만 自由化는 모든 後進國에서 國民들의 政治的 打算이나 功利的 評價를 벗어나는 煽動에서 推進되기 때문에 이러한 煽動의 產物로 政治改革이 이루어진다면 經濟改革의 成果가 歪曲될 우려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다.

3. 體制 保守型

共産圈의 體制改革은 20世紀가 世紀末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擴散・深化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體制改革을 拒否하는 共産國家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東歐에서의 루마니아, 알바니아, 아시아 大陸의 北韓, 西半球의 쿠바 등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外交에도 불구하고 改革을 거부하고 體制保守 路線을 固守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對外的으로는 1967年부터 1978年 사이에 勞動者 自由管理・自主財政을 基調로 한 新經濟메카니즘, 大國民議會의 強化와 複數候補制의 導入, 各産業分野別 勤勞者評議會를 통해 「革命的 勞動者 民主主義」를 實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改革의 議題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宣言하고 있다.⁷⁹⁾ 그러나 루마니아의 實際는 改革에 逆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例컨데 다른 社會主義 諸國들이 私的 sector의 역할을 增加시키고 있는 추세중이나 루마니아는 私的 所有를 一切 認定하지 않고 거주도 이제까지 集團化되고 있지 않던 山岳, 丘陵地帶의 土地까지 集團化, 國有化시키고 있다. 勞動者自由管理, 自主財政을 말하면서도 恒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固守하고 있으며 複數候補制라고 해도 候補者리스트는 黨이 지도하는 民主社會主義 統一戰線이 作成하고 누가 當選되어도 職業別, 男女別, 民族別構成은 변하지 않도록 候補者를 내세우고 있다.⁸⁰⁾

이처럼 루마니아는 對外標榜과 實際가 不一致하기 때문에 「偽裝된 改革」의 體制保守路線은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主要한 것은 왜 루마니아가 이러한 偽裝改革路線으로 改革의 完了를 宣言하고 있는가 라는 點이다. 여기에는 루마니아 特有의 리더쉽, 社會的 要因이 있다. 이 要因으로 첫째는 리더쉽인데 Ceausescue는 族閥體制(nepotism)과 人事 rotation原則을 運用하여 主要機關을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上層部에 改革派가 存在할 수 없고 따라서 指導部가 똑똑 멍쳐(一枚岩的)이다.⁸¹⁾ 체코에서처럼 改革派와 保守派가 對立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그만큼 모스크바와 國民에 대하여 단호한 立場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改革에 대한 社會의 壓力이 弱하다. 反國家行爲에 대한 重刑과 秘密警察에 의한 엄한 단속과 取締가 있기도 하지만 國家에 對峙하는 社會의 脆弱性이 루마니아 政治文化의 特性이기도 하다. 이것은 스탈린型 社會主義를 밀어붙이는 過程에서 一層 深化되었다.⁸²⁾ 따라서 改革의 課題를 提起할 主體도, 推進할 主體도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蘇聯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가 對內的으로 民族對立이나 國民들의 不滿을 惹起시키고 있고 中國에서의 改革이 天安門事件을 일으키고 있는 現實등도 Ceausescue의 改革拒否路線을 고수하는 要因이 되고있다.⁸³⁾

이러한 要因은 루마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政府에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 Ceausescue가 「오랜 친구이며 친한 同志이고」, 「지극히 좋은 個人的 關係」를 맺고 있다는 金日成과 88年 10月 平壤에서 會談을 한 후 「現代世界의 基本的인 諸問題에 관하여 兩黨 및 兩國이 一致 내지 지극히 가까운 意見을 가지고 있다」고 確認한 것은 이같은 路線의 共通性を 말하는 것이다.⁸⁴⁾

특히 北韓은 以上の 要因以 에 閉鎖體制를 固守함으로써 北韓住民들을 外部世界에 대한 知識・情報로부터 外遮斷하고 있고(反그라스노스트) 또 改革에 先行할 課題로서 「南朝鮮」革命이 臨迫해 있다는 名分과 煽動을 끝없이 反復함으로써 改革이 발붙일 餘地를 排除하고 있다. 이리하여 韓半島의 北半은 時代의 흐름과 관계없이 「空間的 中世性」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들에 있어서 改革의 可能性이 全無하다고 斷定할 수

는 없다.

우선 歴史的으로 보아 카리스마的 指導層의 交替가 일어날 경우 改革의 可能性을 엿볼 수 있다. 1953年의 스탈린 死亡後 3年後인 1956年부터 蘇聯에서는 Stalin 批判과 함께 改革이 始動되었다. 또 1976年 毛澤東死亡後인 3年後 1979年에 毛澤東의 功過批判이 나오고 中國에서의 改革이 始動되었다. 東獨에서는 Walter Uelbricht의 退陳後 兩獨間의 開放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Ceausescue, 北韓의 金日成(79才), 알바니아의 孤立 또는 退進할 경우 改革運動이 始動될 可能性이 있다.

둘째로 蘇聯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成功하여 共產圈 相互援助會談 즉 CO-MECON이 市場統合型으로 運營이 轉換될 경우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緩和 또는 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挑戰에 直面할 것이다. 또한 美·蘇가 中心이 된 世界的 規模에 있어서의 開放壓力 역시 體制改革의 壓力이 될 것이다.

이러한 展望은 希望論的이라기 보다는 經驗論的이며 결국 改革拒否型 國家들의 내부에 초래하는 矛盾과 貧困, 여기에 浸透해 들어오는 人間主義的 慾求는 改革을 不可避하게 만들 狀況을 造成할 것임에 틀림없다.

4. 變化樣相의 類型化

共產圈의 變化는 全世界가 저물어가는 現段階의 世界情況속에서 거의 避할 수 없는 趨勢로 되고 있다. 一部 右翼學者들간에는 아직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一種의 共產黨 特有的 欺瞞戰術이기 때문에 西方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警告하고 있지만 오늘날 西方世界는 共產圈의 變化를 不可避한 것으로,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共産圈에서 일어나는 變化는 앞서서도 指摘했거니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西方側이 共産圈에 관한 偏見, 先入觀 때문에 共産圈 內部的 變化를 注意깊게 觀察하지 않음으로 해서 共産圈의 變化의 進行을 着過했을 뿐이다.

그러나 以上の 分析에서 明白한 바와 같이 共産圈은 段階를 거쳐 變化되어 왔다.

우선 第一段階는 共産主義를 現實政治體制로 具現시킨 stalin型 社會主義 段階라고 할 수 있다. 學者들간에는 이 관계를 教條主義段階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段階의 特徵은 周知되는 바와같이 共産黨의 一元的 支配, proletariat 獨裁의 黨에 의한 代行,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軍備增強을 위한 重工業 建設, 生産手段의 國有化, 農業의 集團化라고 할 수 있으며 1950年代 中반에 이르면 모든 共産圈은 이 모델에 의하여 劃一化된다. 蘇聯이 1930年代에, 東歐는 50年代初半, 中共은 1956年代, 北韓은 1958年代에 이 모델을 完成하게 된다.

그러나 1950年代 後半에 와서는 후르시초프의 Stalin 批判과 더불어 Stalin 體制的 逆機能(dysfunction)에 대한 批判이 經濟的 側面에서 提起된다. 1962年 Pravda에 Liberman 教授가 「計劃·利潤·報償金」이라는 經濟改革提案을 發表한 것을 계기로 經濟의 效果測定方式, 企業의 自主性 提高, 量的 生産高에 대한 再評價問題가 提起되어 1965年 蘇聯에서 이른바 Kosygin 改革으로 알려진 經濟改革이 實施되었다.

蘇聯에서의 改革에 말을 맞추어 東歐 各國에서는 經濟改革이 行해졌기 때문에 1965年은 共産圈 經濟改革始發의 해로 評價된다. (但, 헝가리는

1968년에 始作) 그러나 中共은 이에 맞서 經濟改革을 修正主義라고 非難하면서 Stalin式 社會主義를 한층 더 深化시키는 이른바 文化大革命에 着手했다. 10年동안 계속된 이 革命(中國에서는 10年大亂으로 批判하고, 있음)으로 中共은 全面的 經濟破綻에 直面했으며 이 極左政策에 대한 反省으로 毛澤東 死後 가장 右傾的 經濟改革이 斷行된다.

따라서 第2段階로 評價될 1965年代型 經濟改革은 Stalinism의 逆機能을 바로 잡기 위한 經濟改革이었으며 改革의 틀도 社會主義의 테두리 內로 限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體制內的 改革段階」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의 後半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集權的 計劃經濟(指令經濟)를 分權制(市場社會主義)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론이 Hungary의 Berend, Czechoslovakia의 Ota Sic 등에 의해 發表되면서 經濟改革의 次元을 한층더 深化시켜야 한다는 主張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蘇聯이 Breznev Doctrine을 發表하며 이를 抑制했기 때문에 큰 進前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體制內的 改革政策의 限界性때문에 社會主義的 停滯現象(stagnation)이 深化되었기 때문에 Stalin型 經濟體制의 克服을 目的으로 하는 改革運動이 Hungary를 中心으로 活潑히 展開되었다.

이 結果 共產圈의 變化는 第3段階에 該當할 「體制開放的 改革段階」에 접어든다. 즉 이 단계에서는 西方과의 交流를 통해 資本과 技術을 적극 導入하는 한편 市場經濟論理를 大幅 受容하는 現象이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社會主義 經濟가 共產圈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國際化하는

段階에 이르면 共産圈의 變化는 內國的 要因에 의하여 促進되던 前段階에 비해 國際經濟環境 變化에의 對應이라는 外的 要因에도 크게 影響을 받게 된다. 1973 年の oil shock (石油波動)와 資本主義 陣營의 景氣後退가 要因이 되어 共産圈에도 輸出不振, 對西方債務의 累積, 인플레이의 深化 現象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의 到來와 더불어 社會主義 國家들은 두가지의 反應으로 對應한다. 하나는 對西方交流의 縮小로 國際資本主義經濟의 影響을 減少시키는 選擇이며, 다른 하나는 政治·經濟體制의 同時改革을 통하여 東西 兩大陣營의 어느쪽에서도 通用될 수 있는 體制改革을 追求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體制止揚의 段階上 表現되어야 할 이 段階는 아직도 그 展望이 不透明하다. 經濟改革과 더불어 政治改革이 行해지고 있지만 現段階는 政治的 複數制로서의 複數候補認定, Forum形式의 民主勢力의 存在認定, 黨指導部의 人事交替, 共産黨의 國政指導라는 共産各國憲法 第6條의 制除 등이 部分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表는 東歐 및 蘇聯에서의 政治改革이 결코 먼 未來의 課題가 아님을 提示하고 있다.

(表) 蘇聯·東歐의 改革動向

1989年 12月 10日 現在

	主要政黨	黨의 指導規定	自由選舉	主된 民主勢力
東 獨	社會主義統一 黨의 黨名 改 正中	憲法에서 削除 (12月 1月)	90年 5月 6日에 實施	新 Forum (9月 19日 結成)
체 코	共產黨	憲法에서 削除 (11月 29日)		市民 Forum (11月 19日 結成)
불가리아	共產黨	人民議會에서 檢討中		民主勢力同盟 (12月 7日發表)
폴 란 드	統一勞動者黨 90年 1月 黨 大會에서 解散	90年 1月 黨大 會에서 拋棄	6月 4日에 實施 完了	連 帶
헝 가 리	社會黨으로 改 名(10月 7日)	憲法에서 削除 (10月 18日)	90年前半에 實施	民主 Forum (3月 11日 結成)
루마니아	共產黨	堅 持		
蘇 聯	共產黨	리투아니아, 에스 토니아共和國에서 削除	複數候補制로 人 民代議員選舉 實施(3月 26日)	「左翼急進그룹」 및 발트 3國의 人民戰術

이러한 趨勢에서 볼 때 經濟改革과 政治改革은 各國間에 時差는 있으
나 窮極에 있어서는 體制止揚的 改革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體制止揚的이라고 해서 社會主義의 清算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Stalin型 社會主義의 止揚을 통하여 社會主義의 未來像을 具現하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 같다. 다음은 以上 檢討한 各段階의 圖解이다.

(表)

體制變化的 段階

段 階	時 期	支 配	主 導 國 家	成 果
教條主義	1930-50	共產黨의 一元 支配	蘇 聯	完 了
體制內改革 (體制補強)	1965-70	共產黨의 一元 支配	蘇聯·東歐各國, 中共 은 拒否	定 着
體制開放的 改革	1970-85	共產黨의 一元 支配	蘇聯, 中共 및 東歐 治國 北韓, 알바니아는 拒否	進 行 中
體制止揚的 改革	1986-	政治的 複數制 의 대두, 共產 黨 指導規定 削除	헝가리, 폴란드등 東歐國家 一部	始 發

위의 圖表에서 본 바와같이 共產黨의 變化는 收斂理論家들의 希望 또
는 豫測의 妥當性을 受容하는 方向에서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흔히 既
存體制的 受容者들인 保守派의 抵抗은 결코 無視될 수 없다. 왜냐하면
社會主義의 目標文化와 現在의 改革이 一致할 수 있느냐는 名分論的 反
論과 改革政策의 成功可能性에 대한 懷疑가 排除될 수 없는 것이 現
段階의 狀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保守派나 改革派가 共히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 社會主義를
世俗化 (Secularize) 시킨 狀況속에서 對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
일진데 改革을 爲한 體制變化는 歷史의 大勢로 評價할 수 밖에 없다.

V. 體制變化와 軍縮問題

共產主義는 理論上 攻擊을 위한 軍備를 排除하고 最小限의 防衛戰爭만 을 認定하고 있다. Engels 는 「勝利를 얻은 프롤레타리아는 어떠한 類의 祝福이건간에 他國民에게 強要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自身の 勝利를 진복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防衛戰爭까지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다」고 主張하고 있다.⁸⁵⁾

그러나 Stalinism으로 具體화된 共產主義는 現實國家로서의 소비에트 體制防衛라는 對外名分과 프롤레타리아 獨裁權을 黨이 代行, 國內의 부르조아 打開라는 對內的 目的을 가지고 처음부터 軍備強化에 注力하였다. 共產圈이 모든것에 優先하며 重工業을 建設하고 이를 基盤으로 軍備強化를 서두른 것은 이데올로기보다는 世俗國家로서의 要請에서 비롯된 것이다.

레닌은 世俗國家로서의 蘇聯의 立場을 擁護하기 위하여 地球上에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限 戰爭은 避할 수 없다는 戰爭不可避論을 主張했다. Stalin 은 이를 승계하여 軍備強化를 서두르는 한편, 增強된 軍事力을 바탕으로 蘇聯의 安保外延을 強化하기 위해 東歐의 Bloc化, 발트3國의 強制合併을 단행하는 膨脹政策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共產國家는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의 具現이라는 目標과 世俗的인 現實國家로서의 存續·發展이라는 要請을 同時에 追求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서 軍事強國化를 推進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共產圈의 Stalin化過程은 軍事強國을 指向하는 動員體制的 確立에 重點을 두었으며, 여기에서 農業을 희생시키면서 軍備增強을 위한 重工業 優先主義가 特徵으로 浮刻된다.

그러나 戰爭不可避論은 蘇聯과 中共의 兩軍事大國에서 時差는 있지만 戰爭不可避論으로 修正된다.

蘇聯에서는 1956年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의 主唱과 더불어 核戰爭廻避라는 大義名分下에 戰爭은 避할 수 있고 戰爭은 避해야 한다는 戰爭可避論이 등장한다.

또한 中共에서는 1980年代에 들어서부터 毛澤東의 戰爭不可避論을 修正하기 始作한다. 1985年 9月 17日 字 瞭望(週刊紙)에서 鄧小平은 「20年, 30年, 50年間 平和가 지속되면 社會主義의 4個現代化를 建設할 수 있다. 그러나 平和環境이 깨지면 그것은 不可能하다. 50年間 戰爭이 없으면 世界大戰은 회피할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또 1986年 4月 24日 人民日報에서도 鄧小平은 「지금까지 우리는 戰爭을 회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事情이 바뀌었다. 국제정세의 發展動向을 보면 平和를 지킬수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中蘇兩大軍事強國이 經濟改革이라는 國內課題를 등에 업게 되었을 때 戰爭可避論이 平和共存論으로 立場을 하고 登場했다는 事實이다.

후르시초프 執權과 더불어 소련에서는 體制內的 改革이긴 하지만 經濟改革의 課題가 대두되었으며 동시에 軍事第一主義의 工業建設과 이를 支援하기 위한 動員體制로서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效率에 관한 反省이 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共產政權은 權力的 承繼方式이 宮中쿠데타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戰爭體制를 平和體制로 轉換하기가 容易하지 않으며 계속 革命政權의 性格을 保有하지 않으면 人間性を 統制하려는 이데올로기의 現實接木이 어

렵기 때문에 軍備縮小, 體制運營의 非軍事化를 本格化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時代에 이르러서는 軍備를 보는 蘇聯의 思考에 變化가 발생했다. 그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現實世界에서 사는 方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軍縮이 地球全體의 將來를 위한 選擇이어야 하고 冷戰時에 形成된 遺産으로서의 體制對決, 競爭의 止揚을 그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強調하고 있다.(페레스트로이카, 高明植 譯 pp.224-226 參照)

후루시초프가 資本主義와의 平和共存속에 體制競爭을 해도 社會主義의 勝利가 確實하기 때문에 戰爭不可避論을 止揚해야 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르바초프는 共生共榮을 위해 戰爭을 피하기 위해 軍備는 相互間에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大國間의 軍縮이 實質化되는 것은 共產圈의 體制變化가 앞서 提示한 第4段階 즉 體制止揚的 改革段階에 이르러서야 비롯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제 美蘇間에는 戰略的 무기삭감협약(START), 中距離 核미사일 全廢(INF), 歐洲通常兵力減縮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또 蘇聯은 海外駐屯 蘇聯軍의 撤收措置를 能動的으로 단행하고 있다. 동시에 國防豫算減縮이 推進되고 있다.

또한 中共역시 1987년까지 410萬의 中共軍중에서 100萬人的 削減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며 11個 大軍區를 7個軍區로 統合하는 등 實質的인 軍縮에 나서고 있다. 中共은 앞서의 圖表에서 第3段階 즉 體制開放的 改革段階에서 第4段階의 體制止揚的 改革段階로 轉換되는 過渡期에 있다.

軍縮에 관한 中蘇兩國의 態度變化는 다음과 같은 中國의 故談을 聯想시킨다.

「支配者는 軍隊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돈없이는 軍隊를 가질 수 없으며 그 國民의 福祉없이는 돈을 가질수 없으며 正義없이는 福祉는 이루어지지 않는다.」⁸⁶⁾

그러나 第3世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第2次大戰以後 紛爭에서 2,500萬名이 목숨을 잃었고 군사비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⁸⁷⁾ 後進國에서는 開發이 軍備에 優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軍備는 先進國의 武器輸出을 등에 업고 계속 증강되고 있다.

그러나 軍備增強은 經濟的 側面에서 開發과 厚生의 沮害要因임에 틀림없다. 軍事費를 적게 支出하는 오스트리아나 핀랜드가 軍事費의 5倍 내지 7倍를 教育費, 保健費에 支出하고 있는 것은 좋은 實例이다.⁸⁸⁾

第3世界는 그 內的 矛盾과 葛藤때문에 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 戰爭을 일으키려는 意志를 버릴 수 없다는데 問題가 있다.

따라서 第3世界의 軍縮은 紛爭解決手段으로서 政治外交力을 強化하거나 經濟的 強制에 의하여 推進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通說로 되고 있다.

그러나 新興工業諸國(NIES)은 武器를 戰爭手段과 동시에 經濟手段으로 利用하는 경향, 즉 武器輸出에 力點을 두기 때문에 第3世界의 軍縮에 逆機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視角을 南北韓으로 바꾸어 볼때 韓半島의 軍縮은 두가지 次元에서 檢討될 수 있다. 첫째 美蘇強大國의 影響下에서 造成된 緊張의 緩和를 통해 先進武器體系의 導入을 縮小, 止揚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韓半島의 非核化 問題가 檢討될 수 있다.⁸⁹⁾

둘째 南北韓의 勢力均衡을 위한 均衡減軍이 南北對話의 課題로 採擇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은 北韓體制의 現段階에 聯關시켜 볼때 쉽사리 成果를 얻기 힘들다. 적어도 北韓이 스스로의 選擇에 의하여 體制開放的 改革을 止揚하고 高르바초프의 表現대로 「있는 그대로의 現實世界에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世界的 規模에서의 共產圈의 變化, 中蘇 兩大國의 實質軍縮의 推進은 北韓의 革命手段으로서의 軍備에 대한 態度를 바꾸게 할 要素가 될 수 있다. 이런 見地에서 韓半島의 非核化 問題와 아울러 南北韓의 勢力均衡을 향한 均衡減軍論은 南北韓의 軍縮을 위한 實效性있는 提案으로 계속 提起될 必要가 있다.

盧泰愚大統領이 1989年12月2日 파리에서 南北軍縮을 提議하면서 軍事力의 對北優位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좋은 提案으로 評價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4.
- 2) Robert A. Scalpino, The Japanese Communist Movement, 1920 - 1966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1967) pp.328 - 34, 1920年代 日本은 Marx가 共產革命에 適合하다고 규정한 與件과 맞았으나 革命은 일어나지 않았다.
- 3) John Kautsky, "Communism and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XXVI;1 (March,1967), p.14
- 4) Chalmers Johnson, Ibid, pp.5-7.
- 5) Ezra F.Vogel (Harvard University), News Letter on Comparative Studies of Communism, I:PI (Feb, 1966)
- 6) Stalinism은 共產主義의 目標文化를 具現하기 위한 移轉文化(transfer culture)라는 見解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Chalmers Johnson, Ibid, 參照
- 7) 中川八洋, ゴルベチョブの 嚮, (1987)는 日本右翼의 立場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 8) Wladyslaw W.Kulski, Peaceful Coexistence, (Henry Regnery Company, 1976) p.126.
- 9)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l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raeger, 1st ed., 1956, rev. 1965) pp.9-10
- 10) John Michael Montias, 「Types of Communist Economic System」, Chalmers Johnson, ed. Ibid. p.117 參照
- 11) Dankwart A.Rustow, 「Communism and Change」, Chalmers Johnson, ed, Ibid, pp.350-352
- 12) C.J. Friedrich and B. Brzeziunski, Ibid., pp.9-10.
- 13) 共產圈의 變化研究는 1966年
Au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s 支援, 着手되었다
- 14) David Lane,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George Allen & Unwin 1976), p.51. 參照.
- 15) Galia Golan, The Czechoslovak Reform Movement (Cambride University Press, 1971) p.133. 參照
- 16) John Kautsky, 「Communism and Comparative Study of levelopment」, Slavic Review XXVI; 1 (march 1967), p.14.

- 17) Richard Rowenthal, 「Development versu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nge in Communist Systems, Chalmers Johnson, ed., (1970) p.35.
- 18) Chalmers Johnson, ed., Ibid., pp. 8~9.
- 19) 西村文夫・吉田清彦編, 現代蘇聯の 經濟と産業(日本國際問題研究所), p.542
- 20) Robert T. Halt and John E. Turner, The Political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Princeton, N. J, 1966) p.17.
- 21) Chalmers Johnson, Ibid., p.14.
- 22) Chalmers Johnson, Ibid., p.24.
- 23) Chalmers Johnson, Ibid., p.25.
- 24) Robert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XVII : 4 (July 1965), p.560.
- 25) Anthony Downs, Inside Bureaucracy,(Boston, 1967), pp.262-266.
- 26) Anthony Downs, Ibid., p.272
- 27) 辻村 明, 「社會體制の 收斂?」 辻村 明 編 社會學講座 13 現代社會論(東京大學出版會, 1972), pp.178-179.
- 28)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Chalmers Johnson ed, Ibid., p.320
- 29) Issac Deutscher의 立場은 Alfred G. Meyer의 Ibid.를 再引用
- 30) Alfred G. Meyer, Ibid., p.320.
- 31) Alfred G. meyer, Ibid., p.321
- 32) Allen Kassof, 「The future of Soviet Society」, in Kassof, ed., Prospects for Soviet Society(New York, 1968), p.505
- 33) Zbign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 USSR (Viking Press, 1963), p.55
- 34) A. Inkeles, What is Sociology ? 辻村明譯, 社會學とは何か, (至誠黨 1967), p.157
- 35) 辻村 明 編, 前掲書, p.178.
- 36) R.V. Burks, 「Technology and Political Change in Eastern Europe」,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p.265
- 37) W.W. Rostow, Politics and the Stages of Growth (Princeton University, 1971), p.18
- 38) Z. Brzezinski and S.P. Huntington, Ibid., p.431
- 39) John Michael Montias, 「Types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pp.119 ~ 121.

- 40) Peter Christian Ludz, Parteielite in Wandel (Cologne, 1968), pp. 35 ~ 37, Alfred G. Meyer, Ibid., p. 327 recit.
- 41) N. Khurichev, 「 on Peaceful Coexistence 」, Foreign Affairs (Aug, 1960)
- 42) フルンチョフ, 社會主義と共產主義 (駿台社 1964) pp. 121 ~ 183
- 43) 矢吹晋澤 (小島麗逸解題), 中國社會主義經濟の理論 (龍溪書舎 1975), pp. 285 ~ 289
- 44) Henry Kissinger, The Necessity for Choice, Prospec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 double-day Anchor Book, 1962), p. 9.
- 45) 1968年 11月 12日 Poland 共產黨第 5 回黨大會에서 行한 Breznev 演說, 世界週報 1989年 (8月 8日 ~ 15日) p. 61에서 引用
- 46) Helsinki 會談에서 人權問題와 함께 平和的 現狀變更容認問題는 Alec Douglas Home 英國外相이 提案하여 받아들여진 것이다.
- 47) Gorbachev 의 歐洲議會演說과 1989年 12月 3日 Molta 頂上會談에서의 記者會見內容은 世界週報 引用
- 48) Peter Knirsch, Interdependence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Paris 1977, esp., p. 2 ~ 10
- 49) A. Czepurko, 「East-West trade prospects up to 1980」, Forschungs-berichte des Wiener instituto für Internationale Wirtschaftvergleiche, Nr. 31, 1975, bes. S. 1-3. ソ連・東歐の經濟 (五井一雄・野尻武敏編著, 中央大學校 出版部, 1981), pp 65-66 再引用
- 50) 五井一雄; 野尻武敏 編著, ソ連, 東歐の經濟, pp 44-45
- 51) 前掲書, pp 48
- 52) 前掲書, pp 51-53
- 53) Halstein 原則은 西獨을 承認한 國家가 다시 東獨을 承認할 때는 西獨의 單獨代表權 否認을 理由로 그 나라와 國交를 斷切한다는 당시 西獨外相 Halstein 外交原則이었으나 東西獨 UN 同時加入과 함께 廢棄되었다.
- 54) 五井一雄, 野尻武敏, 前掲書, p. 52
- 55) 李用熙, 一般國際政治學上 (博英社, 1975), Communication 理論 參照.
- 56) 岩田昌征, 勞動者自主管理, (紀伊國屋新書, B54, 1974), pp. 152-163
- 57) 南塚信吾, 「ハンガリー改革の歴史的 意味」, ソ連研究 第八號, 1989年 4月, pp. 31-45 參照. 그러나 以上 3個類型分類는 筆者 獨自的 分類임.
- 58) Stalinism이 初期工業化에 寄與했음은 Richard Lowenthal, David Lane, R.V. Burks 등에 의해 共通的으로 認定되고 있다.
- 59) David Lane,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Toward a Political Sociology of State Socialism, (George Allen & Unwin LTD, 1976) pp. 171-172

- 60) 副島種典, 社會主義의 理想, 現實, 未來, (大月書店 1985) pp. 84-85에 논의되어 있다. 特히 勞動意慾을 喪失한 勤勞者를 監督하기 위해 안드로포프書記長 治下에서 만들어진 다음의 規律은 매우 示唆的이다. ① 正當한 理由없이 缺勤한 者는 그 날수만큼 年次休暇를 줄인다. ② 正當한 理由없이 一日中 3時間以上 職場을 離脫한 者는 缺勤으로 취급한다. ③ 勞動規律을 범한者 즉 正當한 理由없이 缺勤하고 醉한 狀態에서 일한 者는 3個月以內에 給與가 더 낮은 任務에 돌리거나 더 低級의 다른 職務로 돌리며 이 期間은 在職期間에 算入하지 않는다.(Pravda, 1983年 8月 7日)
- 61) 蘇聯의 Yevsey Gigoryevitch Liberman(1987-)는 1962年 經濟行政의 過度集中, 物質的 誘因의 不充分, 一方的인 工業成果測定등 蘇聯經濟의 問題點을 指摘, 世界的 名聲을 얻는다(Anthony E. Scaperlanda, 「The political economy of Liberman-Type Reform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V/No. 1/ March 1971, p. 77.
- 체코의 Ota Sik는 科學아카데미經濟研究所長은 社會主義 經濟管理機構의 改革, 價格政策의 改革을 부르짖어 1968年 改革의 理論家로 (Socialist pturalism을 代辨하고 있다. 이 理論이 오늘날 Hungary 改革 model의 骨幹이 되고 있다. David Lane, Ibid., pp. 165-167
- 헝가리의 T.Ivan Berend는 現代헝가리 改革의 理論家이며 科學아카데미 總裁로서 포슈가이 改革派指導者와 提携하여 政治, 經濟同時改革運動을 主導하고 있다.
- 62) 南塚信吾, 前掲論文, p. 32
- 63) 南塚信吾, 前掲論文 P.42.
- 64) David Lane, Ibid., P.165
- 65) 南塚信吾, 前掲論文. P34. 中共은 1989年 10月 23日 - 11月 9日까지의 旅行을 통해 社會主義的 所有形態의 多樣化가 推進되고 있는 것을 筆者가 直接 確認했다.
- 66) Nina P. Halpern,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Communist Systems : 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ume XXII , Nos. 2 and 3, Summer/ Autumn 1989.P.143.
- 67) 六塵茂夫, 「フレアニア의 國內改革 とヘレスト 로йка」, ソ連研究 第 8號 1989年 4月號, P.97
- 68) 南塚信吾, 前掲論文 P.39.
- 69) フランソワ・エスフル (英國戰略問題研究所長은 1989年 12月 7日 朝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美國은 支援을 口頭로 약속하지만 財政能力이 없다는 診斷」

- 70) Socialist pluralism.은 Les Johnston, *Marxism, Class analysis and Socialist pluralism*. Allen & Unwin(publishers)LTD., P.121에서 評論, 新權威主義에 대해서는 日本의 伊東孝之, 「システム 變動下のポーランド」, ソ連研究 第8號(1989年4月) P.10 …… 「-元的 支配가 無力, 이데올로기, 情報·經濟手段등 單一의 政治組織에 集中된 體제도 支配의 根據는 合法的인 것이 아니고 特定の 政治그룹이 歷史에 의하여 國民을 理想社會로 引導할 使命을 賦與받고 있다는 支配인데 비해 新權威主義는 一元的 支配보다 分散的이고 統治者는 無力以外的 手段의 獨占을 받드시 바라지 않고 支配의 根據는 역시 合法的인 것은 아니지만 이 데올로기가 아닌 일반국민들에 의해서 受諾된다고 생각되는 權威」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東獨, 헝가리의 새로운 사태는 이 用語의 必要性을 否認할 수 있다.
- 71) H.Laski, Reflection in the Revolution of our Time(Callen and Unwin LTD.) 參照
- 72) R.V Burk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 in Moris Bornstein, ed., Plan and Market(New Hanen : Yale University Press, 1973), pp373 - 402, Gregory Grossman, 「Economic Reforms : The Interplay of Economics and politics」, in R.V.Burks, ed., The Future of Communist in Europe(Detroit 1968), pp 103 ~ 40.
- 73) Wlodilmierz Brus, 「Political Pluralism and Markets in Communist Systems」, in Susan Gross Solomon, ed., plaralcin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 1982), pp.108 ~ 130.
- 74) 筆者의 中共旅行에서 確認
- 75) 이 4原則은 아직도 有效하다. 矢吹晋 編, 中國のペレストロイカ「民主改革の旗手たち」(蒼蒼社 1988) p.28
- 76) Tito는 당시 경제평의회 議長인 Boris Kidric에게 「集權的 管理는 不可能한 일이었다. 官僚主義는 그 自體로도 나쁜 現象인바 동시에 생산의 效率性을 低下시켰다」고 1957年5月24日 Politika 誌와의 인터뷰에서 술회했다. 岩田昌征, 前掲書 p.143
- 77) 岩田昌征前掲書, p.145
- 78) Nina Halpern, ;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Communist Systems : 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I, No2 and3, 1989), pp.143-149

- 79) 六鹿茂夫, 「ル アニマの國內改革とペレストロイカ」, ソ連研究第8號 1989年4月, p.92.
- 80) 六鹿茂夫, 前掲書, pp.91-93.
- 81) 六鹿茂夫, 前掲書, p.93.
- 82) 六鹿茂夫, p.95.
- 83) 同上
- 84) 同上, pp.102 ~ 103.
- 85) Andreus Rothstein, Peaceful Coexistence, (Pengeuin Book, LTD. 1985) p.17 에서 再引用
- 86) W.W.Rostow, Politics and the States of Growth. , ibid., p.21
- 87) 多賀秀敏, 「第三世界の軍備と軍縮」, 現代の軍縮問題 (日本國際政治學會編 80)p.80
- 88) 多賀秀敏, 前掲論文, p.88
- 89) 코르바초프, 페 레스트로이카, (高明植 譯, 時事英語社, 1989) p.192

南北韓 軍事對峙의 變動 展望

金 大 洙
(韓國日報 論說委員)

目 次

- I. 問題提起
 - 南北韓의 高火力 過防衛
- II. 試驗끝난 힘의 優位 : 均衡定着
- III. 高火力의 實際
- IV. 北韓軍의 攻擊能力
- V. 北韓의 武器去來 및 軍事費 動態
- VI. 防衛豫算의 生産性과 對話테이블까지의 코스트
- VII. 軍縮志向性 高火力 過戰力(1)
 - 軍縮志向性 高火力 過戰力(2)
 - 軍縮志向性 高火力 過戰力(3)
- VIII. 結 語

I. 問題提起

- 南北韓의 過兵力 高火力 -

韓半島에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南北韓의 軍事力 - 그것은 南北分斷을 반 영구화시킨 主要 原因중의 하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南北韓間의 對話를 不可避하게 만든 環境 요소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동안 南北韓의 軍事力은 제각기 하나의 實體로서의 變化, 즉 規模나 性能 등의 팽창, 向上을 보인 이외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政治的 軍事的 意味에서도 몇단계의 變化를 거쳐왔다.

現實的인 攻擊力 또는 防禦力으로서 意味를 가졌고 그런 意味에서의 實際 힘의 行使로 3年間の 戰爭을 치루었으며, 지금은 戰爭抑止力으로도 作用한다.

最近 核의 중무장 狀態가 戰爭 抑止力으로 作用하고 있지만 1950 年代만해도 그런 抑止力에 대한 概念이 덜 成熟되었던 시기였다.

韓國 動亂에서 美軍을 主軸으로 한 유엔軍을 指揮하던 더글라스 맥아더 元帥가 트루만 당시 美國 大統領에게 유엔軍을 攻擊하는 中國兵力이 集結하고 있는 滿洲地域에 대한 核攻擊을 建議한 바 있음에 비추어 그 당시에는 核武器 使用에 慎重을 기하고는 있었으며 요즘처럼 抑止力 概念이 제대로 形成돼 있지 않은 狀態였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韓半島에서의 軍事力 대치는 당초엔 「實際 行使」를 前提로 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南北 分斷의 고정화 장치로 역할한 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여러가지 變化의 곡절을 거쳐 지금은 兩側 軍事力이 戰鬪用이 되기 보다는 戰鬪 抑止用으로서 더 큰 意味와 比重을 지니는 하나의 逆說的 狀況을 보이기에 이르러 있다.

美·蘇 초강들의 核戰略의 基本 骨格은 어느 一方이 先制 攻擊을 行했을 경우 攻擊받은 다른 一方이 殘存 核 攻擊力으로 보복공격을 相對方에게 가한다는 가상적 狀況을 바탕으로 하여 形成된 것이고 따라서 이런 「核 대치」現實에서는 在來式 軍事 編制와 在來式 裝備를 근거로 한 종래의 「힘의 均衡」理論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實情이다.

敵의 攻擊을 받고도 피격 이전의 保有 核戰力 4분의 1 또는 5분의 1만 殘存해도 相對方에게 응분의 보복을 行할수 있는 狀況에서 山술적인 파워 балан스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核戰力을 떠나서 在來式 武裝의 경우도 火力과 機動性이 2次大 戰當時보다 월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韓國戰爭, 越南戰爭 當時보다도 크게 高度化되어 있어서 韓半島같이 相對的으로 狹小한 地域에 大規模 兵力과 火力이 集結되어 있는 경우에 實際 全面的인 武力行使의 結果가 核戰의 結果보다 별로 나을 바 없으리라는 想定이 可能하고 보면 이 경우에도 구식 힘의 均衡論은 適用하기 어려운 게 現實 狀況이다.

따라서 現在 韓半島에서 대치하고 있는 南北韓의 軍事力은 비록 그것이 核戰力 以下 水準이라고는 해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戰爭 抑止力을 發揮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이런 억지 效果가 單純히 山술적인 힘의 均衡에서만 빚어진 것이 아님을 南北韓 兩側이 다함께 感得하고 있는 狀況이다.

이런 狀況이 1953年 休戰以來 지금까지 南北韓의 軍事 대치가 形態나

성격면에서 相當한 變化를 가져온만큼, 相應하는 再吟味, 再定義를 통하여 새로운 軍事狀況의 主導形態와 方向을 모색 展望해야 하는 것이다.

II. 試驗끝난 힘의 優位 : 均衡定着

韓國戰爭當時, 즉 1950年 8月末頃 北側이 낙동강 근처까지 南下한 것은 그들의 軍事力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힘의 현저한 不均衡이 軍事的 安定狀態를 뒤흔들게 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그로부터 4개월쯤 지났을 때 韓國軍과 유엔軍이 北進, 韓半島와 中國 滿洲間 國境地帶의 楚山에까지 北韓軍을 추격, 北進한 것은 韓國軍과 美軍을 主軸으로한 유엔軍의 戰力이 北韓 軍事力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즉 이 역시 힘의 극심한 不均衡이 단기간에 特定 該當地域 情勢의 급격한 變動을 초래한 또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후 근 3年間 南北韓 兩側은 進·退의 幅이 戰爭初期에 비해 별로 크지 않은 狀態에서 현상 고착 狀態에서의 消耗戰을 힘겹게 끌어나가고 있었다.

즉 戰爭初期에 비해 힘의 均衡이 거의 대등하게 자리잡힌 狀態가 빚어진 結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交錯狀態를 깨뜨리기 위한 몇가지 전술적 시도는 별반 效果를 내지 못했으며 戰線에서 교전중인 雙方의 軍事活動은 원천적으로 워싱턴과 모스크바로부터의 견제하에 놓였기 때문에 스스로 均衡을 갖추도록 강요당한 국면도 보였다.

그런 狀況은 당시 이른바 制限戰爭이라는 表現으로 모호 막연하게 說明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休戰이 成立되었다. 勝者도 敗者도 없이 戰爭은 일단

매듭지어졌다. 힘의 均衡이 決定的으로 定着한 것이다.

그 이후 36年間に 休戰線에서 대치중인 兩側 軍事力은 規模의 增加 變動은 말할 것 없고 性格上의 變化까지 겪고 또한 보여 왔다.

現在 南北韓間의 軍事的 대치관계는 흔히 「힘의 均衡狀態」에 있는 것으로 간주,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 말했듯이 火力과 기동성이 持續적으로 增強, 高度化되어 이제는 비록 核武裝을 하지 않은 在來式 軍事力일지라도 戰略軍으로서의 機能과 意味를 지니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비록 南北韓 雙方間에 몇차례의 平和統一을 前提로 한 會談이 있었기는 했으나 軍事的인 警戒態勢는 거의 戰時에 準할 정도로 敏感해진 狀態, 緊張된 狀態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南北韓間의 軍事 對立關係 進展은 兵力이나 武裝體制의 均衡狀態 以外에 實際로 戰鬥力을 行使하겠다는 戰爭意志를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의해서도 크게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現在 우리 立場으로서는 假想 敵의 도발을 억지하는 견지에서의 軍事力을 確保 維持하면서 또 한편으론 바로 그 軍事力이 만일 假想 敵의 침공이 있을 때엔 防禦, 反擊하는 수단으로서의 意味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美 國務省의 데이비드 램버트슨 東아시아·太平洋擔當 次官補는 今年 4月 11日 美 下院 外交 小委員會에서 韓國軍 訓練計劃 支援 資金을 89會計年度의 1百 50萬 달러에서 90會計年度에는 1百 65萬 달러로 小 幅 增額할 것을 要求하면서 이 計劃은 「北韓으로부터의 새로운 공격」을 막기 위한 韓國의 防衛力 提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¹⁾

「北韓으로부터의 새로운 공격」은 지난 36年間 끊임없이 韓國이나 美國側의 韓半島 最大 關心事였고 최대의 警戒事案이었다.

그리고 具體的 反擊 問題도 끊임없이 檢討되어오는 課題이기도 한 것이다.

Ⅲ. 高火力의 實際

70年代 중반, 그당시 韓·美 統合 1軍團長 홀링스워드 中장은 北韓軍 이 남침할 경우 처음 5日間에 B52 爆擊機를 包含한 大規模 空軍力으로 1日 平均 1千回程度의 出擊과 集中爆擊으로 北韓軍의 進격을 저지시키고 그다음 4日間에 地上군 兵力으로 그들을 소탕키로 하는 이른바 「9日 戰爭」 構想을 辟력하여 한동안 주목을 끈바 있다.

B52 爆擊機의 爆彈 탑재량은 約 33톤, 그리고 기타 소형 戰爆機의 爆彈 탑재량은 3톤內外되고 있는데 1千回 出擊의 構想에 있어서 40% 程度는 B52 出擊, 其他 60%는 小型 戰爆機 出擊으로 實行될때, 推定 狀況은 대략 다음과 같다.

B52가 6萬6千톤, 小型 戰爆機가 9千톤, 도합 7萬5千톤의 爆彈을 투하하게 되는데 이는 2百25kg짜리 爆彈 34萬個에 달하는 規模다.

이 34萬個의 爆彈중 30%는 北韓 後方地域에 투하되고 전선에 70%가 투하된다면 전선의 北韓軍에 투하되는 爆彈은 24萬個 程度로 가상할수 있다.

全體戰線 1百55마일, 前後幅 2마일로 확정해보면 3百10 평방마일이 優先 爆擊 對象 地域이 되는데, 河川, 호수등을 除外하지 않고 平均値를 算定하면 1평방 마일당 8백개씩의 爆彈이 투하되는 셈이며 이는 10.6 평방미터에 1개꼴이다. 이는 3평당 1個以上 투하되는 셈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想的인 計算이다. 그리고 實際로 爆彈을 해당 全地域에 고루 고루 뿌린다고보다는 對象軍 집결지에 集中되는 것이 상례인만큼 實際 狀況과 假想 狀況과는 多小間 差異가 있을 수 있다.

戰術空軍은 地上軍에 대해 補完的인 것이지 결합적인 것은 아니다.

戰術空軍은 적 地上軍의 침투를 完璧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迅速한 集結能力을 가지고 아축 地上軍의 사정거리 및 정찰 감시거리 밖에 있는 目標들에 대해 效果的 타격을 줄수 있는 速度와 행동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戰術空軍의 技能은 항상 戰鬥 遂行上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韓國戰爭이나 월남전 등에서 비록 만족한 成果를 거두지는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주된 作戰能力을 크게 저하시키고 普及라인에 타격을 주었으며 2次大戰當時의 노르만디에서 또는 67年 中동에서의 「6日戰爭」 등에서는 決定的 要素로서 作用하기도 한 것이다.

월남전을 계기로 하여 헬리콥터 공격, 공수 특전부대의 作戰幅 擴大 등이 패턴을 갖춰 이제는 공중으로부터의 攻擊이 다양화 되었고 또한 空軍의 전유물만도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홀링스워드」의 「9日 戰爭構想」도 새로 補完돼야 할 것이며 거기엔 陸軍이나 해병의 機能까지 包含될 수 있어 北韓側의 可能的 攻擊에 대한 우리측의 可能的 반격 形態와 機能은 훨씬 다양하고 強力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관찰, 推定은 軍事力의 「實際 行事」를 北韓이 考慮하는 경우에 對備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行하게 되는 것이다. 有事時에 대비하여 「홀링스워드」의 「9日 戰爭 構想」같은 具體的 檢討도 있었음을 우리는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Ⅳ. 北韓軍의 攻擊 能力

休戰線에서 우리 側과 대치하고 있는 北韓은 그동안 持續적으로 軍事力을 增強하여 이제는 서울까지도 저들의 砲擊 射程距離에 들게 된 程度다. 北韓軍은 南韓의 全地域에 걸쳐 모든 目標地域을 同時に 攻擊할수 있으며 現狀態에서 兵力과 裝備의 再配置없이 즉시 軍事攻擊을 展開할수 있는 態勢를 維持하고 있는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北韓軍은 平壤-元山線 以南의 前方지역에 地上軍의 3分の2 程度를 추진 配置하고 있으며 艦艇 및 戰鬪機 등 역시 過半數를 즉시 攻擊轉換이 可能하도록 配置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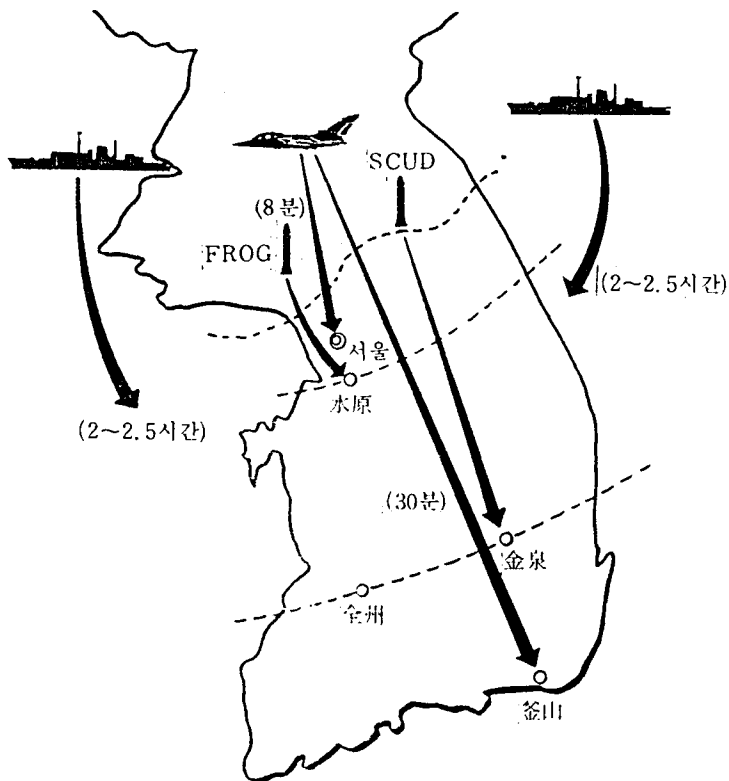
北側이 保有하고 있는 長距離砲는 射程距離 20 ~ 40 km로서 休戰線近方의 現 配置線上에서 首都圈에까지 打擊을 가할수 있으며 射程距離 55 ~ 72 km인 프로그(FROG) 미사일은 水原一帶까지, 射程距離 3百km의 스크드(SCUD)미사일은 全州와 金泉을 잇는 線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南韓 國土의 3分の2 程度가 北韓의 攻擊圈에 들게 되거니와 저들의 戰鬪器는 現位置에서 발진하여 首都圈에는 8分, 釜山까지는 30分以內에 到達할수 있는 狀態다.(圖1 參照)

北韓 地上軍은 平壤과 元山을 잇는 平元線 以南 前方지역에 主力部隊 60個 定規 師團, 旅團들을 추진 配置함으로써 部隊의 調整이나 再配置 없이 즉각 攻擊이 可能한데

- ① 東部戰線에 第1軍團
- ② 中東部戰線에 第5軍團
- ③ 中西部戰線에 第2軍團
- ④ 西部戰線에 第4軍團이 각각 攻擊隊型으로 配置돼 있다.

圖 1 .



北韓 地上軍 編成의 概略的 內容을 보면

△ 步兵 58 個 師團, 旅團 (教導師團 23 個 包含)

△ 機械化 步兵 23 個 旅團

△ 戰車師團 旅團 13 個

△ 特殊部隊 22 個 旅團

△ 砲兵 30 個 師團, 旅團 等 總 1 百 46 個 師團, 旅團으로 되어있는데 速度戰 能力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²⁾

그중 後方地域에 縱心 및 平壤地域에 第 3 軍團과 首都防衛司令部 및

第7軍團이 配置되어 있고 또한 그 後方地域에 第6軍團 및 第8軍團이 配置되어 梯隊別 投入이 可能하도록 되어있다.(圖2, 圖3, 圖4, 圖5 參照)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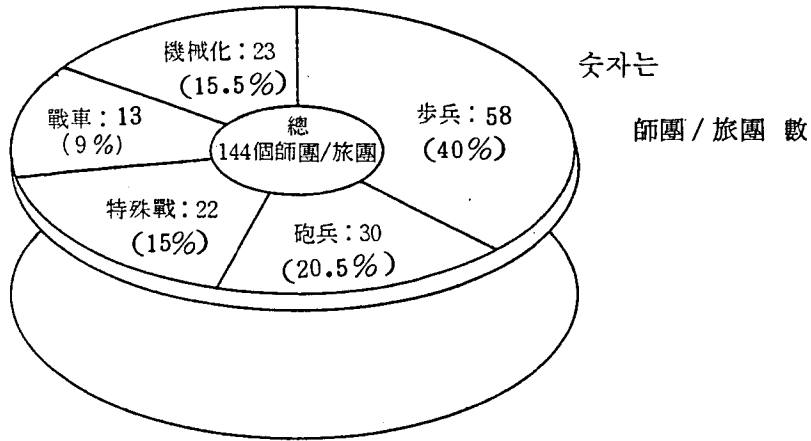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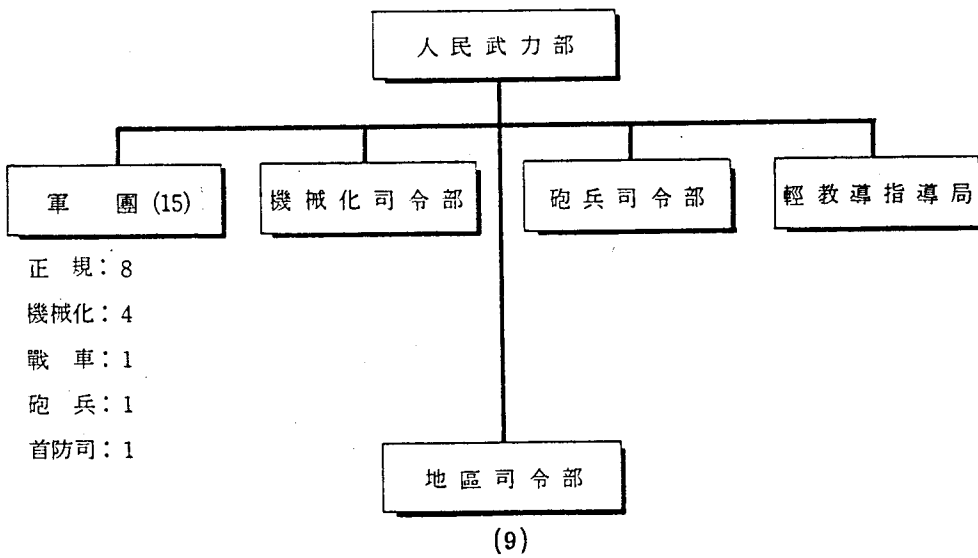


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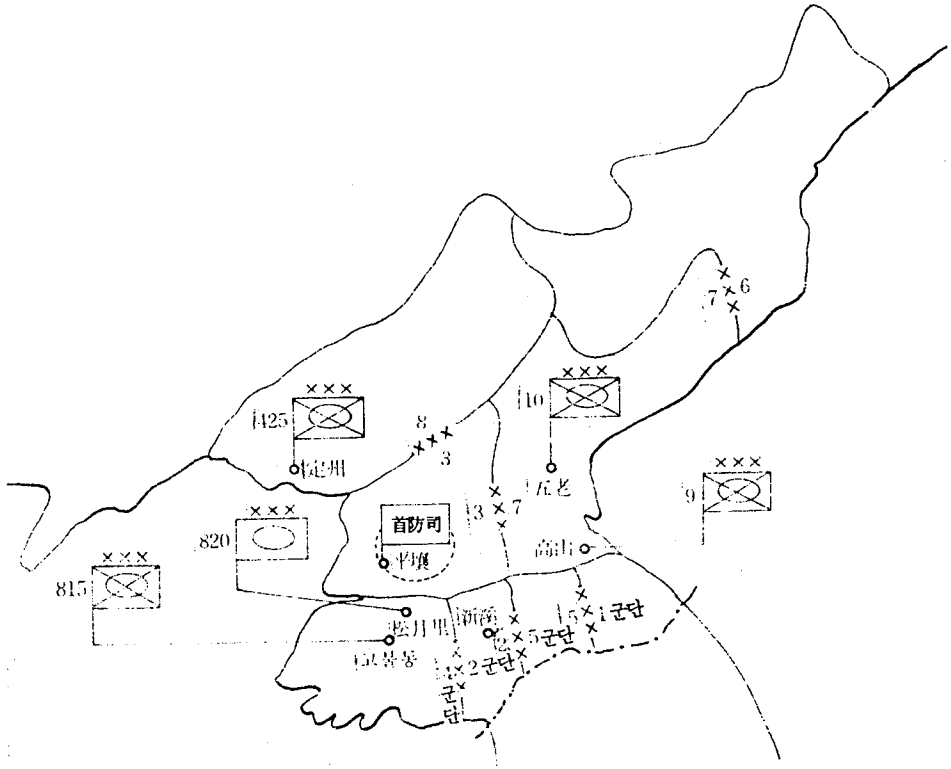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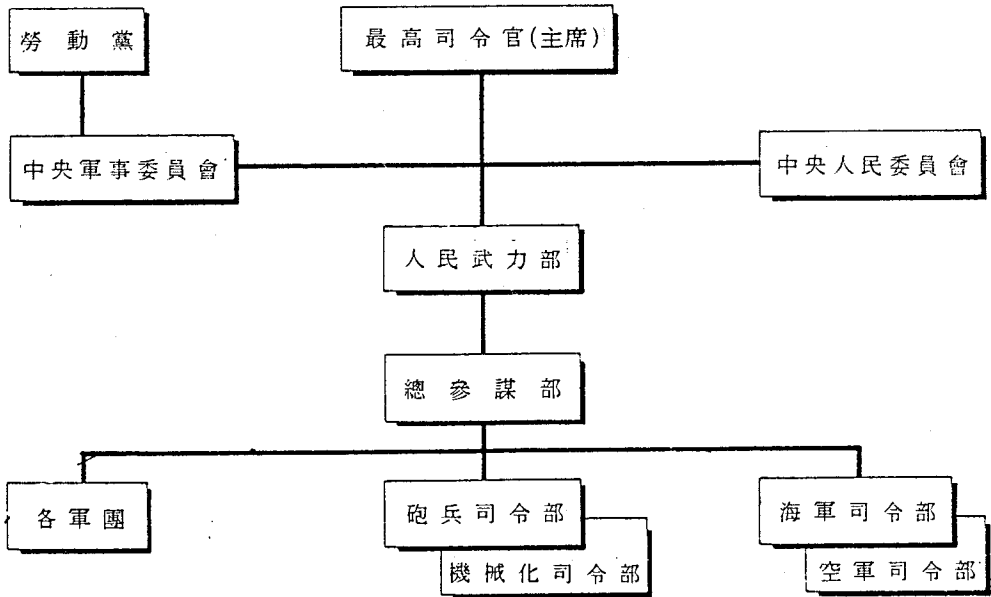


圖 5



한편 北韓 海軍은 海軍司令部 예하에 東海艦隊, 西海艦隊가 있고 東海艦隊 司令部에 8個 戰隊, 西海艦隊 司令部에 5個 戰隊等 도합 13個 戰隊가 있다.

東海司令部에 約 3百 80隻의 艦艇, 西海艦隊 司令部에 約 2百 50隻이 所屬되어 있는데 3分の 2가 전방기지에 추진 配置되어 있고 유사시 東海 西海 양쪽에서 2時間 30分以內에 우리 首都圈 近接 海域과 東部 海域에 接近해올 수 있는 것이다.

北韓 空軍은 SU-7 SU-25, MIG 15, 17, 19, 21, 23, 29 등 戰鬪機 7百 40台, IL-28 爆擊機 80여대, AN-2, 24, IL-14, 28, 62, LI-2, T-134, T-154형 輸送機 3百여대, H-500, MI-2, 4, 8 등 헬리콥터 約 2百 80台 등등 約 1千 6百여대의 航空機를 保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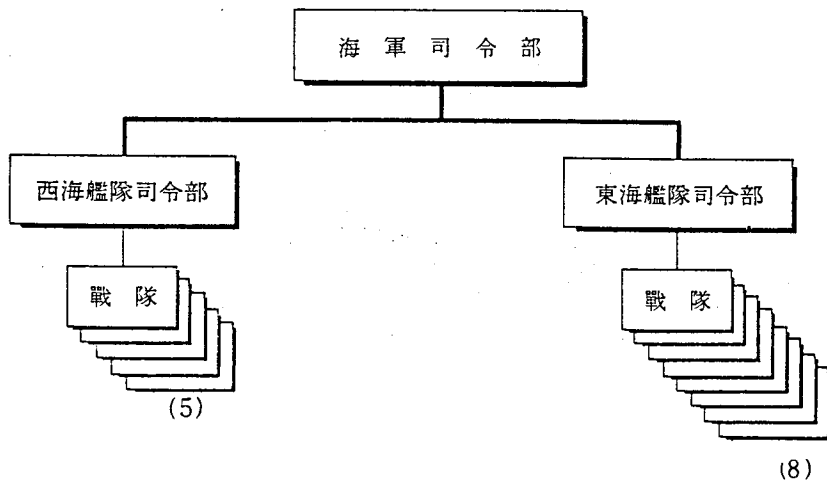
그 중 1950年代에 生産된 구형 戰鬪機인 MIG-15, MIG-17 戰鬪機가 3百여대로 保有 전술기 數의 約 40%를 차지하고 있어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는 크게 열세에 놓여 있으나 裝備의 水準이나 技術面에서 北韓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기도 하나 또다른 관점에도 유의할 必要가 있다.

즉, MIG-15, MIG-17 戰鬪機는 비록 구형이기는 하나 部品을 北韓이 生産하고 整備가 손쉬웁기 때문에 稼動率이 높아서 戰場 縱深이 짧은 韓半島에서 對地攻擊등 중요한 전술표적에 대해서는 效果的으로 運用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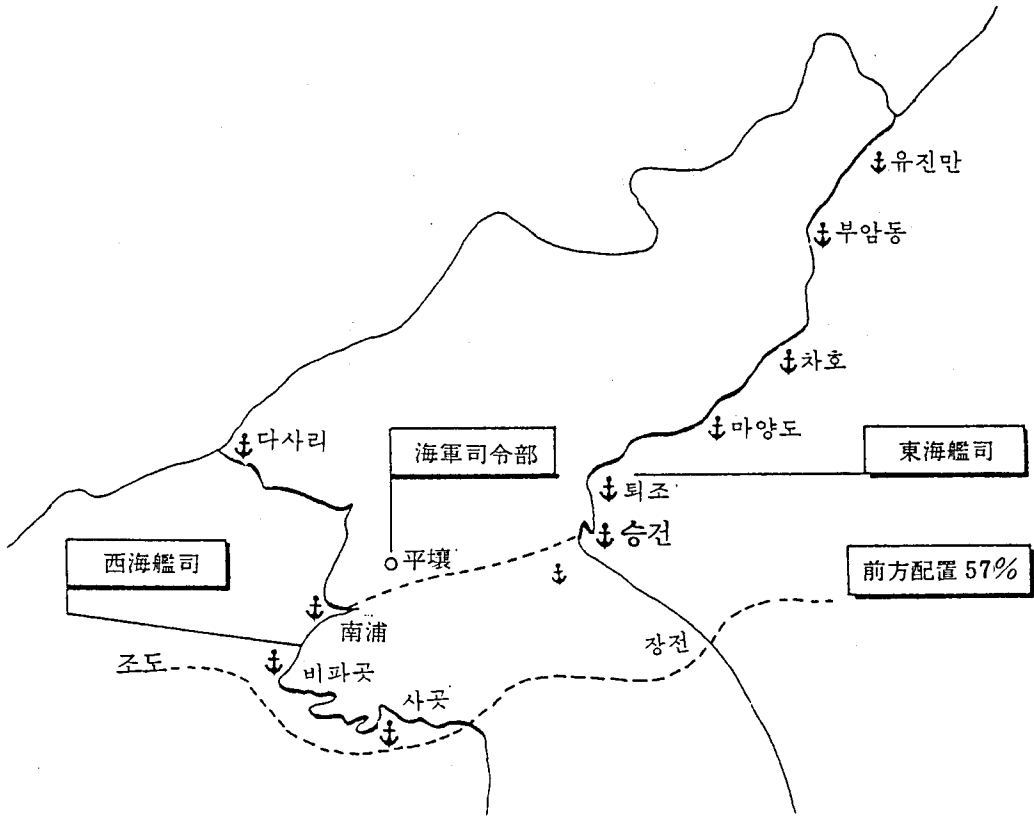
MIG-15, 17 및 19기는 우리 首都圈을 包含한 北部地域에 대한 발진 攻擊이 可能하고 MIG-21, 23, 29, SU-7, 25기는 中部와 南部地域에 대해서까지 攻擊할 수 있으며 IL-28 爆擊機와 一部 전술기는 制限된 후방 차단 作戰이 可能하다.

그리고 北韓 空軍은 18個 作戰基地의 地下 格納庫 施設, 多様な 防空武器의 大量 配置, 廣範圍하고 견고한 地下施設等을 갖추고 있어 防空能力이 相當水準에 달해 있는 것으로 評價되기도 한다.³⁾ (圖 6, 圖 7, 圖 8, 圖 9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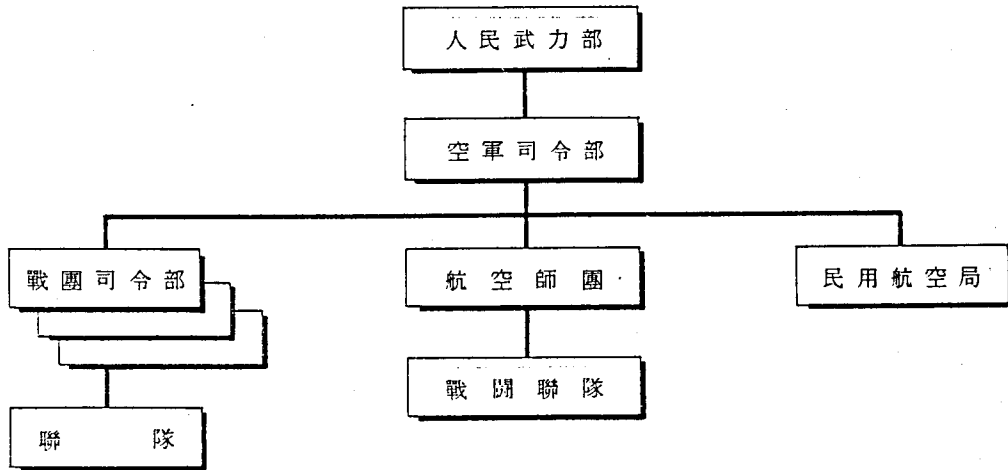
(圖 6)



(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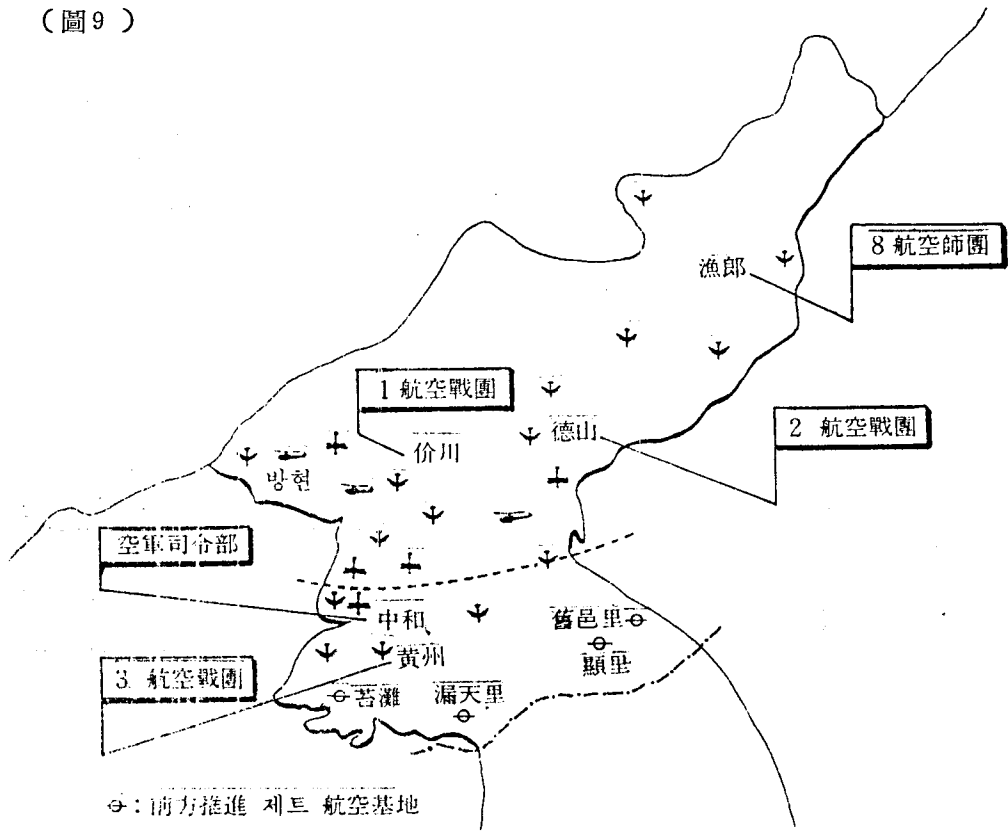


(圖 8)



(6)

(圖9)



北韓은 1986年 평안북도 “방현”에 (圖9 參照) 戰鬥機工場을 完工 함으로써 MIG-21 戰鬥機 試製品을 生産하는 段階에 있고 地對地, 地對艦, 地對空 유도탄등도 組立, 모방 生産하고 있으며

△ 총포工場 17 個

△ 彈藥工場 35 個

△ 전차, 장갑차工場 5 個

△ 함정건조소 5 個

△ 航空機工場 9個

△ 유도무기공장 3個

△ 通信裝備工場 5個

△ 化學 生物學武器工場 8個 等 포함 1百34個所の 軍需工場을 保有하고 있으며 大部分이 地下化되어 있다.⁴⁾

그리고 北韓은 포함 1百14個所の 一般 工場을 戰時轉換工場으로 指定하여 戰時에는 軍需物資를 生産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彈藥, 油類, 食糧 등 戰爭物資 備蓄 狀況은 大略 다음과 같다.

① 彈藥 → 北韓의 彈藥 備蓄量은 1百23個所の 貯藏施設에 備蓄된 47萬톤을 비롯해서 포함 約 99萬톤에 달하며 이 數量으로는 約 4個月間 戰爭持續이 可能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② 油類 → 北韓의 年間 油類需要는 約 3百15萬톤이지만 供給은 約 2百30萬톤에 不過한 實情. 그러나 北韓은 民需用 油類를 最大限으로 節約하여 戰時에 對備한 軍需用 油類 備蓄에 注力한 結果 北韓의 軍 基地와 前後方 地域의 1百64個 貯藏所에 約 1百9萬톤의 油類가 備蓄돼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③ 食糧 → 北韓의 年間 食糧 所要量은 約 6百2萬톤인데 비해서 生産量은 約 5百萬톤으로서 不足한 量은 輸入으로 充當하고 있는 實情이지만 이미 備蓄한 食糧이 있고 또한 繼續 生産으로 食糧 역시 相當期間에 걸친 戰爭 持續에 支障없는 程度로 備蓄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V. 北韓의 武器 去來 및 軍事費 動態

北韓은 美國, 蘇聯, 프랑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트남등과 더불어 化學武器를 所有하고 있는 9個國中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 通常的인 武裝으로 우리를 威脅하는 외에 追加的인 威脅 要素를 가지고 있다.

化學武器 生産은 施設에서나 技術面에서 그다지 最尖端의 施設 또는 技術을 要하진 않기 때문에 北韓같이 産業水準이 落後돼 있는 地域에서도 흔히 製造되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버마, 中國,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스라엘, 리비아, 臺灣등도 化學武器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로 分類되기도 한다.⁵⁾

北韓은 또한 이란, 이라크 戰爭에 있어서도 兩側에 武器를 販賣한 事例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非道德的 武器去來 行爲를 한 나라인만큼 化學武器의 使用, 즉 非道德的 非人道的 武力行使를 언제 犯할지 모르는 危險한 相對임을 한번 더 實感하게 된다.

北韓은 1987年 이란側이 非武裝 商船들에게 많은 被害를 주던 때 바로 그 기회를 大量으로 販賣한 것으로 國際 武器市場에서 전해지고 있다.⁶⁾

또한 1987年 6月 17日字 월 스트리트 저널紙는 日本이 北韓에 대한 トラック 輸出을 中斷했다고 報道한 바 있는데⁷⁾ 北韓이 日本으로부터 輸入한 大型 トラック을 로케트砲 裝着에 利用하였고 그런 事實이 日本의 國內法에 違背되기 때문이라는데(原文 別添) 北韓이 그런 裝備를 購入하면서 相對國을 欺瞞했다는 點에서 그 不道德性을 한번 더 警戒하게 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蘇聯에 대하여 潛水艦 製作에 主要 技術을 販賣한 個人들을 非難하면서 그 期間中 開發途上國에 대한 對艦 미사일의 販賣를 拒否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그 政府가 이란과 이라크에 武器를 販賣했다고 하여 野黨으로부터 攻擊받았으며 蘇聯은 이란側에 SA-7 미사일을 販賣했다는 控訴를 부정하는 데에 큰 努力을 集中한 바도 있다.⁸⁾

그만큼 國際間的 武器 去來는 道德的 批判을 쉽게 받고 各國이 예민하게 反應하는 것이다.

北韓이 비교적 그런 批判에 둔감하고 덜 구애받는 態度를 取하기 때문에 우리는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감춰진 또 하나의 毒素에도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北韓의 軍事費 支出 規模는 持續的으로 增加해 왔다.

年度別 增加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單位:百萬元)

△ 1978年	2,344
△ 1979年	2,563
△ 1980年	2,750
△ 1981年	3,009
△ 1982年	3,242
△ 1983年	3,530
△ 1984年	3,819
△ 1985年	3,935
△ 1986年	3,976
△ 1987年	4,183 ⁹⁾

一般的으로 北韓 貨幣價値에 대한 概念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달러貨, 86年 不變價格으로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單位:百萬元)

△ 1978年	1,051
△ 1979年	1,149
△ 1980年	1,233
△ 1981年	1,349
△ 1982年	1,454
△ 1983年	1,583
△ 1984年	1,713
△ 1985年	1,765
△ 1986年	1,783
△ 1987年	1,876 ¹⁰⁾

絶對額만으로는 알제리아, 쿠바 등 보다 약간 많은 程度이나 北韓에서의 强制動員, 低賃金 狀況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거의 全額이 戰力과 直接 連結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시된 絶對額보다 다소 上向 調整하여 戰力을 推定하는 것이 다른나라와 적절한 比較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한가지 勘案할 것은 北韓이 最近 新銳 航空機를 導入한 것으로 傳해 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尖端裝備의 特性에 비추어 軍事費의 加重現象이 不可避할 것이라는 點이다.

Ⅵ. 防衛豫算의 生産性과 對話테이블까지의 코스트

스톡홀름 國際平和問題研究所 側은 87年度 韓國의 軍事費는 달러表示 86年 不變價格으로 53億 1千萬달러로 推定했다. 이 規模는 北韓의 18億 7千6百萬달러에 대해 2.83 배에 달한다.

물론 우리나라 國防費에는 高額의 人件費가 包含돼 있기 때문에 額面만으로 國防費의 性格을 判斷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비록 額面만으로 性格 判斷이 어렵기는 하나 그래도 絕對額에서 2.8 배면 北韓으로서도 戰略的 對應의 必要性을 느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現在까지 南北韓間의 對話가 원만히 進行되지 않은 것도 어찌보면 北韓側이 戰略的 對應을 심각히 생각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던 때문인지의 의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로 여겨지는 바도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狀況을 놓고 보면 南北韓이 各各 自體 人口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比率을 軍事力에 充當하고 있을 뿐아니라 各種 資源과 豫算 또한 兩側이 모두 지나치게 높은 比率로 軍事力 維持에 配定하고 있는 狀態다.

이런 狀態에서는 南北韓 對話의 圓滑化와 거기서 종국적으로는 兩側의 軍備 縮小에 까지 連結됨이 바람직하다는 常識論도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南北韓 兩側의 相互 信賴라는 底邊도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실사 軍縮에 合意한다고 해도 그 성실한 實施를 確認할수 있는 점검 監視 體制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에 풀기 어려운 問題點, 순탄치 못한 고비들이 허다하게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明若觀火하다.

지금으로선 軍備 縮小가 南北韓 兩側에게 듣기 좋은 얘기로 끝나고 있을뿐 그 實現 可能性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狀況이다.

軍縮을 그렇게 바라다면서도 그 實現이 가망없게 여겨지는 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정 軍縮을 實現하기 위해, 상대방을 軍縮 現實로 끌어 내기 위해 逆行性 軍擴措置도 고려했으면 한다.

우리의 國防豫算이 단순히 消費的인 性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GNP로 환류하는 등 經濟的 誘發效果도 낸다는 점에 보다 깊게 留意하여 防衛豫算의 技術的 運營으로 그 生産性を 높여야 할 것이다.

防衛豫算의 生産성이 높아진다면 國防費가 상당 比率로 增加된다고 해도 消費的 國民 負擔의 增加만에서 끝나지 않고 經濟的 成果의 誘發效果도 올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어느 범위, 어느 規模로 防衛豫算을 增額시키는 것이 가장 效果的인지의 問題는 持續的으로 研究해야 할 課題로 남지만 그러한 豫算戰略은 北韓으로 하여금 被動的으로든 能動的으로든간에 可能한 한 防衛豫算을 增額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몰리도록 만드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다.

北韓에게는 3者擇一式 選擇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첫째 계속 무리하게 對應 戰略을 推進하여 그들의 經濟能力의 限界를 넘는 負擔에 빠져 증극적으로는 經濟的 破綻에 직면하는 일. 그것은 계속 연관 效果를 빚어 저들 體制의 崩壞까지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韓國 國防研究院이 82年을 基準으로 하여 國防費 支出에 따른 經濟的 誘發效果를 分析하여 國防費의 58%가 國家 經濟에 附加價值 創出效果를 냈음을 밝힌바 있다.

이 分析은 82年 當時를 基準한 것이지만 그 이후 國內에서 生産

獲得되는 무기 體系가 훨씬 많아졌고 앞으로 더욱 增加될 展望이므로 國防費의 經濟 연관 效果誘發 範圍는 더욱 增加되었을 것으로 思料되고 있다.

그밖에 技術의 波及效果에서도 상당한 實績이 나타났다. 地對地 유도탄인 韓國型 나이키 호크 미사일의 추적장치 技術은 三星 미놀타 카메라에 應用되었으며 발칸포 生産技術은 大字의 數値制御 工作機械 製作에 利用되었다.

一般社會에 비해 相對的으로 經費가 節減되고 훨씬 效率높은 方法으로 技能人力이 여러 分野에서 大量 배출되어 軍에서 養成된 高級 技術者나 技能人力 中間 年間 8萬3千餘名이 社會로 進出하고 있는 것이다.

軍의 2百91個 主要 특기중 53%인 1百54個가 기술 특기이며 2百65個 教育過程中 1百45個가 技術訓練 過程이어서 여러 尖端 産業分野의 급속한 成長에도 防衛豫算의 效果 여파가 크게 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各種 電子裝備의 조작, 비행기 조종 및 整備등 民間 航空의 諸 分野는 대부분 空軍에서 教育받고 熟練된 技能人力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自動車나 建設關係 중장비등을 조작 整備하는 地上 業務나 各種 船舶을 修理하는 등 海運關係 從事者들은 陸·海軍등에서 社會보다 低廉한 費用으로 집중 教育된 人力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에 熟練된 技術人力을 배출하는 外에 一般的인 雇傭側面에서도 防産業體에 從事하는 人員이 5萬名이 넘고 職業軍인이 약 14

萬名, 軍務員이 약 2萬7千名으로서 약 21萬여명이 雇傭되어 있고 有關産業 部門에 雇傭된 人員까지 합치면 50萬名이 넘는다.¹¹⁾ 따라서 우리의 防衛費 運營效率에 대한 測定の 精密化, 防衛豫算 運營 技術의 高度化 問題도 좀더 깊이있게 관찰,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둘째로 北韓은 韓國과의 힘겨운 豫算競爭을 하다가 經濟破綻에 빠지느니 차라리 豫防 戰爭의 性格을 띤 戰爭 挑發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역시 現實的으로 北韓에 승산이 없는 한 北韓은 第3의 選擇을 하도록 強要 당하는 處地에 설 수밖에 없이 되는 것이다.

- ③ 北韓으로선 不利한 競爭을 하다가 經濟破綻을 자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南韓과 武力戰爭을 일으킨다면 經濟的 破綻을 더욱 앞당기고 軍事的 자멸까지 접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리라는 것을 充分히 計算에 넣고 있었다고 보게 된다. 결국 남은 選擇 한가지는 協商테이블로 나오는 일만 남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防衛豫算運營 戰略으로 저들에게 壓力을 加한다는 것은 곧 저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政治的 코스트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防衛費運營 戰略을 보다 效率높게 하기 위해서는 GNP 로의 環流 등 經濟效果 유발의 加速化 措置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견 外觀上으로는 負擔만의 加重으로 보일수 있는 일이 여러 分野에 關聯 效果를 뿌리면서 負擔만의 增

加로 끝나지 않도록 關係 裝置가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國家의 資源을 순수 經濟開發 分野에 집중하는 것이 經濟成長을 위한 正統적 方法이다. 그리고 資源을 國防 分野에 집중하는 것은 일단은 經濟 發展을 위한 正常的 方式은 아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同一 資源을 자체의 經濟成長과 國土 防衛라는 2大 名題에 나누어 充當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두 名題中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立場이고 보면 상 관적인 妥協效果的 極大化만이 남은 路임이 너무도 自明하게 비추 어져 나온다.

Ⅶ. 軍縮指向性 高火力 過戰力(r)

(1)

航空機の機體, 艦艇の船體, 기타 地上 裝備의 基本 몸체 등의 使用年
限이 최근 技術 高度化와 資材 特性 開發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各種
軍需 産業分野에선 이들 中古 몸체들을 活用, 再生시켜 繼續 活用하는
길을 찾음으로써 防衛豫算의 大幅 節減도 기할 수 있게 된다.

2次大戰中 一般的으로 戰鬥機 1대의 비행시간은 불과 70時間이었고
그래서 수개월만에 그 戰鬥機는 廢品이 되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美國의 F/A-18 같은 機種은 6千時間이나 비행이 可能하여 正常的인 경
우 消耗 또는 交替되는 裝備나 部品 以外の 그 機體 自體는 20年間
이나 使用할 수 있다고 推定되고 있다.

이런 趨勢는 漸次로 各種 裝備의 廉價 生産을 可能하게 해주었으며 또
한 상당수 開發途上國들의 軍需産業에 대해서도 좋은 자극을 주기도 했다.
그뿐만아니라 先進國들의 軍需 産業에도 한가지 收支 改善의 길을 提供
했다.

美 海軍은 독자적으로 艦艇 壽命 延長事業을 推進하는가 하면 西獨은
그들의 F-4機 現代化 事業을 크게 벌이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은 1987年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F-8 戰鬥機의 性
能을 改善하기 위하여 2億 4千 5百萬 달러 規模의 設計 用役 契約
을 그라만 航空社와 締結했다.¹²⁾

그런가하면 파키스탄은 中國製 F-7 戰鬥機를 다시 補強된 新品化 하기 위해 1億 5千萬 달러짜리 契約을 締結했다.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 共和國이 保有하고 있는 프랑스製 미라주기를 改造해 주기로 했고 콜롬비아가 保有하고 있는 미라주기 現代化를 위해서는 2億달러의 契約을 締結했다.

한때는 英國과 美國의 일부 軍수공장은 이집트가 保有하고 있는 蘇聯製 戰車들을 改造하는데에 도움을 주기까지 했더니 軍事 裝備 關係 國際去來는 그야말로 복잡한 난맥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물론 이런 國際的인 去來에서 新製品去來를 去來業者들이 더 좋아하기는 하나 新素材 開發, 새로운 技術等 때문에 中古 裝備의 現代化 計劃이 도처에서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英國같은데서도 各種 舊型 함정들을 계속 就役시키면서 그 내부에 最新 電子 裝備를 갖추어 외형으론 구식 함정이나 성능면에서는 최신형 함정에 뒤지지 않게 運營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經費 節減型 裝備 改善計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資源 貧國으로서의 처지를 통감하는 우리로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우리의 戰力增強을 效率的이고 經濟的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이런 種類의 事業(ship (or tank) life extension Programme) 또는 (F-4 (or F-7) modernization programme)들은 그것 그대로가 가까운 將來에 우리와 北韓間의 주요한 競爭分野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南北韓이 정말 의외로 兩側間 信賴 狀態를 구축하고 피차 軍事力 增強을 포기하고 뒤이어 兩側이 軍事力을 減縮하는데에 合意하고 檢證이 確實히 進行되고 違反의 경우를 效果的으로 제재한다면 명실상부하게 南北韓의 軍備 縮小가 가능해지고 東北亞의 緊張狀態도 상당히 緩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軍縮에 이르기까지 信賴 構築段階, 軍事力 凍結, 檢證 등의 그 어느 段階 하나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일반 軍縮論의 경우에도 흔히 提起되는 障礙 要素로

- ① 軍縮 對象 範圍와 武器 種類 選定의 問題
- ② 軍備 縮小 比率 決定의 問題
- ③ 不信의 問題
- ④ 監視, 檢證의 課題
- ⑤ 軍縮協定 違反의 경우에 대한 效率的 措置의 難關
- ⑥ 軍縮이 經濟, 社會的으로 波及시키는 부분적인 否定的 效果
- ⑦ 軍部の 反撥
- ⑧ 第3國의 介入 가능성

등이 꼽히는데 韓半島에는 여기에 더해 歷史的 遺來를 가진 깊은 감정적 要素와 東北亞 地域 나뉠으로의 諸般 特性等이 가미되어 일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¹³⁾

따라서 現段階로서는 軍縮을 일단은 단념한 狀態를 想定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南北韓 兩側이 지금 態勢에서의 軍備 凍結로 들어갈 可能性

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實情이다.

한가지 남은 길로는 비록 우리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나 불가피하게 段階的인 軍備 擴充의 選擇이 있을 수 있다.

前述한 바도 있거니와(「防衛豫算의 生産性과 對話 테이블까지의 코스트」) 역설적이지만 軍費 擴充이란 逆行性 段階를 거쳐야 南北韓間의 진정한 對話 또는 軍縮이 摸索될 수 있다고도 보게 된다.

北韓의 兵力은 人口 1千名當 40名이고 韓國은 14名이다.

戰時가 아닌 休戰 狀態에서 人口 1千名當 14名은 매우 많은 것이며 40名은 너무 많은 것이라는 게 상당수 專門家들의 見解다.

그런데 武器의 性能이 자꾸 高度化되어 殺傷 能力이 韓國戰爭 당시보다 더 強化되었는데도 南北韓이 兵力 減縮은 커녕 도리어 兵力數를 늘리는 趨勢에 있어서 理解할 수 없는 「不必要한 現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같이 兵力 過多·火力 過度의 狀況에서도 「不必要하게」 戰力을 增強하고 있었다는 것을 北韓側이 아직 못느낀다면 도대체 北韓은 얼마큼의 兵力을 늘리고 얼마큼의 火力을 增強해야 진정한 對話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北側에게 그들의 兵力과 火力이 이미 過度한 水準을 넘어갔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절실하게 제기되어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戰力強化가 얼마나 虛妄한 것인지를 실감시키기 위한 苦肉의 方法으로 연상되는 하나의 政策 考慮事項이 우리의 激烈하고도 大幅的인 火力 強化인 것이다.

그리고 北으로 하여금 숨가쁘게 뒤따라 오면서 왜 이렇듯 不必要한 程度의 過剩 武裝을 해야 하는지 懷疑를 느끼게 하는 效果를 期待해

보는 것이다.

美國의 아이젠 하워 前大統領은 美 議會에서의 發表를 통해 韓國戰爭中 約 1 百萬의 韓國人이 피살되었다고 말했는가 하면 언론인 돈 오버도퍼는 北韓民間人 1 百 30 萬名, 南韓 民間人 1 百 40 萬名이 死亡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또다른 評論家 헨팅턴은 南北韓 통털어 2 百萬名 내지 3 百萬名이 死亡했다고 主張했고, 보른은 兩側의 民間人·軍人 통털어서 約 9 百萬名이 犧牲되었다고 推算했다.

그러나 SIPRI (스톡홀름 國際平和問題研究所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研究發表資料, Anti-personnel Weapons 를 통해 그런 숫자는 戰死者와 그밖에 戰鬥 以外の 경우에 發生한 死亡者, 부상자, 행방불명자, 피난민, 고아등까지 包含된 것일 수 있다고 나름대로의 추정을 添加했다.¹⁴⁾

그런데 韓國戰爭이 休戰된지 36 年이나 지나고 그동안 兩側 戰力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음에 비추어 이렇듯 過剩된 火力·兵力이면 유사시 얼마나 많은 동족이 犧牲될는지 한심스러운 느낌이 자못 큰 것이다.

이 時代를 살면서 불의의 民族的 大慘事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막연히나마라도 한다면 北側의 무모하고 犯罪的 大量 殺人 挑發 危險을 막을 수 있는 有效한 方法講究에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3)

흔히 軍備 縮小라면 兵力數의 減縮, 武器나 기타 裝備의 選擇的 廢棄 등을 主로 생각했지만 이 기회에 각종 기동 연습등 「軍事 행위의 제한」

도 考慮에 넣어보도록 한다.

部隊의 迅速한 移動과 전개는 모든 戰術의 序頭에 서는 原理로서 每年 大規模 美軍 兵力이 美 本土로부터 한반도로 이동 전개하는 팀 스피리트 訓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

애당초 팀 스피리트 訓練의 實施 背景을 보면 1.21 事態, 東海岸 武裝共匪 侵襲事件등 一連의 北韓 도발로 한반도에서 緊張이 高潮된 狀況에서 1969年 3月 17日 부터 20日까지 유엔군 司領部 主管으로 美 兵力을 美國 本土에서 韓國으로 迅速히 移動시키는 「포커스 레티나」 訓練이 實施되었다.

이 訓練은 完全武裝한 美兵力 2千5百名을 美 本土에서 韓國까지 1萬3千6百km를 불과 31時間內에 비행, 作戰地域에 投入한 訓練이었다.

이 訓練은 훗날 「美 本土의 戰術部隊를 迅速히 韓國에 投入할 수 있는 能力을 실증했으며 아울러 韓國 防衛를 위한 많은 資料와 敎訓을 준 訓練」으로 評價되었다.

그후 몇차례 類似한 訓練이 계속되다가 팀 스피리트 訓練이 76年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연례적인 訓練으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여기서 美軍은 ①韓國地域으로의 移動段階 ②戰線에 投入되는 段階 ③敵의 攻撃을 防禦하는 段階 等 세 段階로 訓練을 실시하고 韓國軍은 韓美聯合防禦訓練을 實施해 왔다.

이 팀 스피리트 訓練도 앞으로는 좀더 積極적이고 攻撃的 形態를 갖추어 假想 敵으로 하여금 相應하는 코스트를 支出하도록 強要하는 水準에 달해야 할 것이다.

그런일이 바람직한 것은 軍縮이 兵力減縮이나 裝備의 選擇的 廢棄 等の

手法으로만 進行될 것이 아니라 「軍事 行爲의 制限」까지도 包含하는 것이 되도록 誘導하기 위해 필요한 措置로 思料되기 때문이다.

北韓도 86年 10月 16日, 87年 10月 14日, 88年 10月 27日等 年例的으로 이른바 「朝·蘇 海 空 聯合訓練을 東海에서 非公開裡에 실시했다.¹⁵⁾

따라서 우리로서는 軍事演習의 增幅, 즉 行爲의 擴大推進도 考慮에 넣어야 할것 같다.

現在까지 팀 스피리트 訓練은 在來의 地上軍 戰鬥力과 海·空軍의 支援을 立體的으로 統合, 近接戰鬥와 後方戰鬥等を 同時に 遂行하는 空·地 戰鬥 (air land battle) 敎理를 開發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런 戰鬥 敎理는 自然히 特戰 能力에 대한 억지력 發揮도 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우리는 假想 敵에 대해 行動의 幅을 줄이고 特戰 意思를 포기하도록 強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北韓은 約 10萬名의 特殊部隊를 保有하고 높은 機動性으로 우리 後方에 奇襲的으로 空輸 浸透시킬 수도 있다.

이런 特殊戰은 韓半島같이 狹小한 地域에서는 戰略的 意味까지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特殊部隊 大量 浸透를 事前에 억지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機動性 높은 空·地戰鬥 교리 개발을 重要視 하는 것이다.

北側의 特殊戰 能力에 대해 우리의 억지력이 有效한 것은 우리의 관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으로 特戰部隊를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北韓에서 特殊作戰을 擔當하는 11萬 兵力 規模의 第8 特殊軍團은 경보 병여단 航空浸透旅團, 그리고 海岸上陸旅團 等으로 編成되어 있다. 경보병 旅團은 徹底한 게릴라 訓練을 통하여 모든 氣候, 地形에 適應하도록 目標하고 있는 遊擊部隊로 알려져 있고 航空浸透旅團은 흔히 하는 말로 공정여단, 그리고 海岸上陸旅團은 概念上 우리 海兵旅團과 대동 소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원래 北韓의 特殊部隊란 蘇聯의 特殊部隊「스페츠나즈」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蘇聯의 「스페츠나즈」라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特殊部隊의 하나로 꼽히는, 戰鬥보다 테러에 치중하는 性格이 짙은 部隊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北韓은 한때 特殊部隊를 테러 위주의 部隊로 維持하다가 近來에 이르러서는 正規軍과 協同作戰도 할 수 있고 또 單獨으로 相對方 後方に 浸透하여 獨自의인 作戰도 수행할 수 있는 部隊로 性格도 바꾸고 編成도 고친 것으로 전해진다.

바꿔말하면 보조적인 테러 集團이 아니라 오히려 先導의인 特攻部隊로서의 性格이 강해졌다면 正規軍보다 더 機能的인 部隊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北韓의 그러한 特攻戰術에 대해서는 相應하는 特戰 기량으로 對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特戰部隊들이 일단 戰略的 對應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경우」가 너무 많은 출혈을 兩側에게 強要할 것이기 때문에 特殊戰 機能은 보다 강한 特殊戰 潛在機能으로만 억지할 수 밖에 없이 된다.

마치 「核」에 대해서는 「核」으로만 억지된다는 論理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北側의 特殊戰 意志를 制御하기 위해 우리 나름으로의 特殊戰 기량을 강화하고 訓練을 통한 機動性 提高를 一般 正規部隊에도 擴散, 普遍化시켜야 할 것이다.

韓國軍이 戰略 戰術 教理 研究에 배정하고 있는 豫算은 年間 81 億원 (約 1千2百餘萬 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물론 特殊戰 分野와는 關係가 없다.

그러나 그정도 豫算으로 特殊戰 方式과 어느정도 關係가 있는, 現在까지 特특한 「air land battle」 교리를 獨自적으로 研究 開發하려면 約 25 億원 (3百74萬달러) 정도의 豫算이 追加 所要되었을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¹⁶⁾

따라서 韓·美 合同 年例訓練인 팀 스피리트 訓練이 단순히 軍事訓練이라는 性格外에 다른 몇가지 戰略的 意味도 지니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擴大 實施도 推進해 必직한 事案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팀 스피리트 演習期間中 美軍은 自國에서 새로 開發한 武器 및 裝備들을 野戰 試驗하며 따라서 統合 編成되어 訓練하는 韓國軍은 자연스럽게 新開發 裝備등에 접하고 그 性能이 韓國의 作戰環境에 實用的인지 不適合한지도 訓練過程에서 判斷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製作·實驗의 費用, 附帶構造에의 適合性 與否를 判別하는데 所要되는 時間과 經費등이 節減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로서의 軍事演習의 增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假想敵의 戰爭 意志를 근원에서부터 制壓하는」 戰略的 意味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空中 早期 警報 統制機 (AWACS) 1 台의 價格은 約 1 億 5 千萬달러이
며 이를 運營 維持하는데에는 年間 約 24 億원 (月 2 億원정도) 의 豫算
을 요한다.¹⁷⁾

韓國側 立場에서는 電子戰 裝備를 포함하여 美軍의 情報 資產을 利用
하는 것이 現實的으로 다른 選擇의 餘지가 없는 實情이므로 이런 制限
된 立場에서는 주어진 與件의 최대 活用밖에 다른 「最善」이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Ⅷ . 結 語

지금까지 우리는 몇번이고 南北對話에 임했다가도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보이코트하면 별수 없이 다음번 提議를 하고 北韓側의 答을 기다리거나 혹은 北韓側의 다음 提議를 기다리는 그런 態度를 보여왔다.

또한 실은 그럴수밖에 없었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에 北韓이 방자스럽게 일방적으로 南北對話를 拒否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수 있었다면 北韓은 감히 그렇게 쉽게 南北間 各種 對話를 끊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南北對話를 進行하는 채 하면서 몰래 땅굴을 파고 正常的인 南北交流를 시도하는 채 하면서 이면으로 南韓 사람들을 秘密裡에 招請하는 등 이중적인 일을 벌여오던 저들이다.

저들에게 正常的인 對話가 通하려면 벌써 通했다.

지금 저들의 體制나 與件으로는 우리와 正常的 水準에서 對話할 만한 狀況에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立場을 본다면 北側이 對話를 일방적으로 斷絶하거나 또는 어떤 공작을 벌여도 아무런 應懲을 하지 못했다. 우리로부터 應懲당할 憂慮가 없는 한 저들은 언제까지나 마음놓고 우리를 우롱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應懲당할 걱정 없는데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는 對內的으로 일부 左傾勢力의 擡頭 現狀을 겪고 있다.

이런 狀況은,

①對內的으로 과단성 있게 拔本塞源하여 雷動勢力 出現을 사전 봉쇄하고,

②對外的으로 北韓側이 南韓의 左傾勢力을 利用할 수 있다고 오산하는 경우를 뿌리채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연한 態度를 要求하는 것이다.

國防 豫算의 擴充, 그에 따른 우리의 각종 裝備와 火力 增強등 戰力強化, 각종 軍事訓練등 시위적 「行動의 增幅」으로 假想 敵의 行動 增幅을 강요하고 거기서 그들 스스로가 行動 增幅의 자제를 깨닫게 하고 그로써 特戰 能力과 의지도 억지하도록 誘導하는 등의 問題를 想定한 것도 실은 北韓側의 攻擊的 態度에 대한 有效한 억지작용, 내부에서 대두하는 일부 左傾勢力에 대한 경고적 措置라는 脈絡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 1) 서울經濟新聞 89年 4月 13日字
- 2) 國防白書 88年版(國防部發行) pp.26, 27, 78.
- 3) Ibid., pp. 86 ~ 87.
- 4) Ibid., pp. 89 ~ 90.
- 5)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發行「SIPRI Year Book 1988」, pp.102, 121, 122.
- 6) Ibid., p.190.
- 7) Ibid., p.201.
- 8) Ibid., p.194, 201.
- 9) Ibid., p.160.
- 10) Ibid., p.165.
- 11) 國防白書 88年版(國防部發行) pp. 196, 197
- 12)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Year Book 1988」
p. 196
- 13) 崔 榮「南北韓의 軍備縮小」- 信賴構築方案과 관련하여 - 「外交」誌 第9號
(외교협회발행) 1989年 3月號 pp. 73 ~ 82
- 14) 「Anti-personnel Weapons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編
: Taylor & Francis Ltd, London, 1978年 發行), p. 49
- 15) 國防部 發行資料: 「팀 스피리트訓練의 오늘과 내일」, p. 6
- 16) Ibid., p. 16
- 17) Ibid., p. 18

韓半島 軍備統制의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申 正 鉉
(慶熙大學校 教授)

目 次

- I. 序 論
- II. 軍備統制의 理論的 背景
- III. 韓半島 軍事 및 戰略狀況
- IV. 韓半島 軍備統制의 可能性
- V. 韓半島 軍備統制 모델의 摸索
- VI. 結 論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근래에 들어서 韓國社會에서의 軍備統制(Arms Control)에 대한 關心과 論議가 크게 增大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천년과 比較해 볼 때 淸々한 變化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南北韓이 戰爭을 經驗했고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계속 軍事的 對峙상황을 維持해 오는 동안 韓國에서의 軍縮을 包含한 軍備統制에 대한 論議는 韓國의 安全이나 統一에의 接近을 위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 대신 南北韓 間에는 軍事力 強化에 重點을 둔 軍備競爭 狀態가 持續되어 왔고 또 그것이 정당화 되어 왔다. 즉 언제나 軍事力 面에서 얼마나 적은 것(how little)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커야하는 것(how big)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한반도 내에서 南北韓 關係가 고도의 긴장을 수반한 불안정한 狀態를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세계 어느 地域에 비해서도 한반도는 紛爭의 潛在力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러한 潛在力은 南北韓이 각기 可能的한 한 軍事力을 強化시키는데 보다 큰 비중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韓國社會 특히 知識層에서 부터 한반도에서의 南北韓 關係의 安定과 平和를 維持하는 問題와 關係해서 우선 軍事的인 側面에서 軍備統制의 概念(물론 이 概念은 오직 軍事的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適用하려는 시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軍備統制의 概念은 美·蘇 戰略關係나 東西關係의 改善이나 安

定을 꾀하려는 理論的, 政策的 시도와 關聯해서 지난 20 여년간 널리 適用 되어 왔다. 특히 美·蘇間의 戰略核武器의 制限이나 縮小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기의 적절한 管理를 위한 手段으로 軍備統制의 概念이 사용되었다. 이제 여러가지 側面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韓半島 상황에도 과거와 달리 軍備競爭이나 抑制(deterrence)의 수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軍備統制의 觀點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새로운 事態進展들에 의해 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첫째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環境의 變化이다. 韓半島 戰略狀況은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4大 強國들 즉 美國, 蘇聯, 中國 및 日本의 外交 戰略的, 經濟的 이해관계로서 얽혀져 전개되고 있는 複雜한 相互關係와 密接히 연계되어 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말엽부터 韓半島에 대한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例로 들지 않더라도 戰後 解放에서 부터 分斷 그리고 그 이후의 한반도 戰略的 狀況의 전개를 감안해 볼때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깊이 內在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 국제 환경은 新데탕트(neo-detente)라는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소련간의 INF 廢棄協定이나 戰略武器 減縮協商(START)에 대한 合意등을 기초로 한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들간의 화해와 협력의 무드를 조성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變化는 東西關係에 있어 다원화와 相互依存性을 더욱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中에서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書記長에 의한 國

內改革과 대의 開放政策, 그리고 일방적인 감군선언이나 철군조치등은 동서 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미 소련은 中國과의 接境地域에서 상당수의 兵力을 撤收시켰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과 極東地域에서의 감군의도를 표명함으로써 東北아시아 地域의 戰略關係에 어떤 變化를 가져오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소련은 中國과의 關係를 정상화했으며 日本등 다른 아시아 國家들과도 外交的, 經濟的 關係를 擴大하는데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것은 소련과 中國이 다같이 國內 經濟開發에 關心을 集中시키면서 對外的으로 開放化 政策을 追求함으로써 東北亞 地域에 있어 冷戰的 對決은 점차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테망트의 特徵은 國家들간의 關係에서 軍事, 戰略的인 수단보다는 外交, 經濟的인 手段들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결과 갈등보다는 교류와 협력이 強調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軍備競爭이나 強化보다는 軍縮 혹은 軍備統制의 추세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脈絡에서 볼때 한반도에서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한 關心의 增大는 적어도 주변 國際環境의 變化를 考慮해 볼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南北韓 간의 군사적 관계가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과 戰爭을 經驗했고 또 休戰線을 中心으로 對峙狀態를 持續해 오는 동안 南北韓은 각기 軍事力을 增強시키는데 최대의 政策的 우선권을 두어왔다. 그 결과 한반도는 세계 어느 地域에 비해 보더라도 軍事力 過密化 현상을 가져온 반면 그에 대한 管理나 統制에 대한 아무런 조치들도 실질적으로 추구되지 않았다.

한반도와 같은 좁은 地域에 南北韓 軍事力을 합쳐 총 150 여만명에 달하

는 兵力과 미사일을 包含한 최신 무기들이 配置되어 있다는 점에서 戰爭이 일어날 경우 破壞力의 정도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클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또한 南北韓은 각기 美國 및 소련등 초강대국들과 軍事同盟體制를 維持하고 있어 雙方間의 紛爭이나 무력갈등은 쉽사리 強大國들의 代理戰이나 또는 直接 強大國들 간의 全面戰 形態로 擴大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同盟體制들은 南北韓의 個別的인 軍備強化를 어느 정도 抑制시킬 수 있는 效果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소련이 北韓에 MIG-23기를, 그리고 美國이 南韓에 F-16기를 각기 제공하듯이 비교적 최신병기들을 提供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軍備競争을 促進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기도 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군비통제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는 南北韓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軍事力이 적어도 破壞力의 基準에서 볼 때 어느정도 均衡狀態에 近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느 일방에 의한 선제공격이 반드시 戰爭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報復攻擊에 의한 破壞 效果가 오히려 클 수 있다는 戰略的 評價를 可能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南北韓은 과거 어느때 보다는 雙方間의 문제에 보다 큰 關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주변 國際戰略環境의 變化 역시 그러한 方向에서 機能할 수 있는 여지가 充分히 存在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의 문제는 깊이있게 論議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계속하는 동안 南北韓은 각기 軍비증강에 많은 費用을 支拂해 왔으며 따라서 財政的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北韓의 경우 연간 GNP의 20 내지 25%를, 그리고 南韓의 경우 5 내지 6%를 각각 군사비로 支出함으로써 內部的으

로 經濟發展을 어렵게 만드는 要因이 되어왔다. 北韓은 100萬名에 가까운 軍人力을 維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60年代 中반 이후 무기생산을 위한 投資도 積極 增大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現在 北韓에는 다수의 총포 및 탄약 생산공장과 전차 장갑차 工場과 함정 건조소, 그리고 항공기 유도무기, 통신장비 및 화생무기 생산 工場등이 있으며 그밖에 100여개 이상의 一般工場을 전시 전환공장으로 지정하여 戰時에는 軍需物資를 生産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南韓에 있어서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 美國의 對 友邦國 군사원조정책이 유상원조 내지 공동부담의 形態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M-16소총, 탄약, 통신장비, 고속정, 다연장 로켓트, 155밀리 개량곡사포와 자주포, 장갑차와 전차등 군사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을 開發하게 되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韓國政府가 1974년부터 1987년까지 군수산업을 위해 投資한 額數는 總 17,131千萬弗에 달한 것으로 集計되었다.¹⁾ 비록 南北韓이 다른 經濟體制를 維持하고 있고 또 經濟發展의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軍備增強을 위해 支出하는 비용은 그의 經濟能力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雙方은 어떤 形態로든 軍備競爭을 지양하는 상호조치에 關心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經濟的인 面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군사비 지출은 南北韓에 있어 다같이 생산적인 支出이 될 수 없으며 軍事費의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經濟成長을 위한 潛在力은 그만큼 더 경감되기 때문에 雙方間에 軍備統制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넷째로 韓國社會內部的 構造的, 意識的 變化가 韓半島 軍備통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韓國은 지난 20여년간 高度의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해왔으며 그에 따라서 社會內部的 構造的 變化와 더불어 國民들의 政治意識을 고양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1987年 6월에 있었던 韓國社會의 民主化와 改革에 대한 國民的 要求는 바로 그와같은 變化를 代表的으로 反映하는 것이었다. 國民 個個人들이 政治 參與에 대한 權利를 신장시키는데 관심을 增大시킨 반면 그들의 韓半島의 분단 狀況이나 潛在的인 위기, 統一에의 接近 등의 다양한 인식과 觀點을 자유롭게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蘇聯과 中國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對內的 改革과 對外的 開放化와 이에 대한 韓國 政府의 北方政策의 推進은 韓國社會에서 지금까지 傳播해 왔던 경직된 反共理論에 대한 再評價와 더불어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위협은 별도로 하더라도 蘇聯이나 中國으로 부터의 軍事的 위협에 대한 一般 國民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提供하였다. 同時에 一般的으로 美國의 擴大된 抑制戰略에 基礎한 韓國에 대한 安보公약에 대한 再評價를 可能케 하였다. 오히려 그러한 變化는 韓國社會 內에서 部分的으로나마 反美運動을 일으키는 한 要因이 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韓國社會에서 南北韓 間의 갈등과 대립을 縮小시키고 그 대신 安全과 平和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雙方間의 軍縮을 包含한 軍備統制가 有用한 手段이 될 수 있다는 期待感이 增大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유럽에서 東西關係를 改善시키고 防衛費 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한 主要한 要素로서 軍備統制의 概念이 適切한 것으로 수긍되는 경우처럼, 비록 그의 實際 適用에 있어서는 상당한 問題點들이 수반되고 있지만, 韓半島에

서도 그러한 傾向이 점차 增大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韓國社會에서 軍備統制는 現存하는 南北韓 關係를 改善시키고 窮極적으로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民族統一을 實現하는 過程에서 必須的인 手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希望的이고 規範的인 思考體系가 점차 增大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 研究의 目的과 方向

一般的으로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의 問題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環境的 혹은 意識構造上的 變化와 함께 보다 더 現實的인 問題로 提起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南北韓 間의 軍事的 緊張이나 위협을 減少시키거나 또는 民族統一을 實現하는데 寄與 할 수 있다는 새로운 認識과 評價가 그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을 일층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어려운 問題는 그 동안 韓半島의 軍備統制에 대한 充分한 研究나 檢討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앞에서든 言及한 바와 같이 南北韓 關係는 적어도 휴전 이래 軍備競爭과 그에 기반을 둔 對峙狀態만을 持續해 왔을 뿐 實質적으로 軍備減縮이나 制限, 혹은 統制 등과 關聯된 아무런 裝置들이나 節次들을 수반해 오지 못했다. 그 結果 韓半島는 여전히 高度의 緊張만을 내포하게 되었고 때때로 紛爭을 표출시킬 수 있는 危險한 地域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過去 어느 때 보다도 軍備統制의 趨勢가 全 世界的 水準에서 팽배되고 있는 시점에서 韓半島에서는 이에 대한 新지한 論議와 研究가 行해져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本 研究는 바로 그러한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

면서 하나의 지적인 시도로서,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의 實現可能性을 檢討해 보고 그에 따른 問題點들을 分析, 評價해 보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美-蘇 戰略關係나 東西關係(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關係)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相互關係의 改善과 安定을 위해 軍備統制의 概念이 適用되어 왔고 또 實際로 어느정도 效果도 거둘 수 있었지만 韓半島의 경우에는 매우 생소한 概念으로 提示되고 있고, 어떤 具體的인 結果도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問題에 대한 檢討는 特別한 制約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 問題에 接近하는데 임어보다 더 包括的이고 理論的인 次元에서 問題의 本質을 理解하고 그에 대한 可能한 對應方案을 마련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軍備統制에 대한 概念 說明이나 經驗的 事例들이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本 研究가 檢討하고자 하는 內容들은 (1)軍備統制에 대한 一般的인 의미규정과 前例들에 대한 理解, (2)軍備統制가 추구하는 目的과 機能에 대한 包括的인 考察, (3)韓半島 軍事 및 戰略 狀況에 대한 認識과 評價, (4)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의 可能性과 限界性에 대한 分析, (5)韓半島 軍備統制를 위한 可能한 方案 모색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韓半島의 軍事 및 戰略狀況에 대한 認識과 評價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軍事的 및 戰略體系에 대한 問題와 더불어 韓半島의 安全과 平和를 저해하는 軍事的 위협요소에 대한 論議가 包含될 것이며, 軍備統制의 可能性 모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南北韓이 提起해 온 軍備統制와 연관된 다양한 提案들과 함께 앞으로 軍備統制의 實現을 위한 條件들이 檢討될 것

이다. 그리고 韓半島의 軍備統制를 위한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軍備統制의 概念이 內包하고 있는 包括性을 전제로 南北韓 雙方關係와 東北亞 地域의 戰略體系의 特殊性을 考慮해서 어떤 原則的인 側面에서의 대안들과 協商過程에 있어서의 必要한 대안들이 多같이 論議될 것이다.

本 研究는 分析的인 調査(analytical survey)나 概念的 說明(conceptual explanation)에 그칠 뿐 具體的이고 技術的인 政策的 措置들을 提示하는데 있어서는 本質的인 限界性을 갖게 됨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本 研究는 韓半島의 軍備統制問題와 關聯해서 考慮되어야 할 主要 쟁점들에 대한 一般的인 評價와 어떤 必要한 措置들을 위한 基準, 提示, 그리고 앞으로의 보다 깊이있는 研究를 위한 豫備的인 知的 土台를 提供하는데 그 基本 礎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本 研究는 全般的으로 韓半島에서 軍備統制레짐(arms control regime)²⁾을 確立해 나가는 데 유용하게 使用될 수 있는 可能한 基盤을 開發하는데 關心을 두고 軍備統制問題를 接近해 가고자 한다.

II. 軍備統制의 理論的 背景

1. 軍備統制의 概念 및 理論

軍備統制의 概念은 대체로 包括的이면서 正교한 의미로 規定된다. 그것은 原則적으로 軍備의 의미를 包括하면서도 그의 接近方式이 軍事的 手段의 問題에 限定되고 있다는 점에서 軍縮과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軍縮은 基本的으로 武器問題에 초점을 두고 그의 감축이나 廢棄에 目標을 두고 있기 때문에 軍備競爭이나 抑制(deterrence)를 不必要로 하고 不可能한 것으로 規定한다.

이에 반해 軍備統制는 國家들 間의 關係에서 戰爭의 기회나 危險性을 縮小시키기 위해 一방적으로 혹은 協商을 통한 當事者들간의 合意에 基礎해서 軍事力이나 武器體制를 管理하는데 그 基本 目標을 두고 있다.³⁾ 그러한 軍事的 管理는 該當國家들이 軍事力の 統制된 증강이나 凍結, 감축, 재배치 또는 軍事的 緊張緩和나 不安定上性 縮小등과 같은 措置들을 취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特徵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軍備統制의 概念은 단순한 軍備의 制限이나 縮小등의 概念보다는 보다 더 넓은 의미를 內包한다고 볼 수 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軍備統制의 概念은 戰略武器 縮小會談(Strategic Arms Reductions Talks : START)의 경우와 武器減縮(reduction)이나 武器 數의 制限(limitations), 武器力の 配置, 訓練, 使用에 대한 規制(restrictions), 軍事力에 대한 研究 및 開發의 禁止, 그리고 信賴構築措置(C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 CBM)등을 包含한다.

軍備統制의 概念에서 該當 國家들 중 어느 하나가 軍事的 우월성을 確保할 것이라는 서로 간의 우려에서부터 나타나는 軍事的, 政治的 不安定性이 重要的 關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不安定性은 戰爭의 개연성을 增大시킬 것으로 看做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軍備統制에서는 信賴構縮措置의 問題가 중요시 된다. 軍備統制는 國家들의 軍事的 優越성을 追求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간에 確信시켜주는 方法을 찾아내는데 그 基本原則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디까지나 軍事的 優越性 確保에 중점을 두는 軍備競爭은 危險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抑制에 의한 安定(dettrence stability)과 양립할 수 있는 최저 水準에서의 軍事的 現狀維持가 軍備統制의 主要한 目的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軍備統制는 平和에 대한 廣範圍한 비전을 實現하기 보다는 政治的 갈등을 現實的으로 管理하는데 關心을 둔다.

그것은 武器體制의 破壞的 效果를 상쇄시키는 世력균형의 機能을 強化시키는데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軍縮의 措置를 包含하지만 반드시 선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軍備統制의 概念下에서는 勢力均衡에 위협을 준다고 判斷되는 경우 特定 武器體制의 增強이나 再配置가 許容되기도 한다. 이와 關聯해서 Hedley Bull이 軍備統制에서 核心的인 것은 縮小(reduction)가 아니라 自制(restraint)라고 말한 것은 매우 適切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⁴⁾ 여기서 軍備統制의 概念은 軍事的 分野에서의 持置들 뿐만 아니라 非軍事的 分野에서의 어떠한 措置들, 예를 들면 意思疎通裝置의 設置나 該當 國家들간의 行爲規範設定 등을 必要로 하게 된다.

2. 軍備統制 理論의 展開

人類는 歷史가 記錄되기 始作한 이래 그들 스스로 戰爭의 危險이나 防

衛費 負擔을 줄이려는데 關心을 두어 왔다. 그들은 戰爭이 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道德的, 倫理的 說明을 開發해 왔을 뿐 아니라 戰爭範圍나 物質을 規制하기 위한 規則들만 만들어 내는데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이와 關聯해서 軍事力을 增強시키거나 紛爭을 줄이기 위한 同盟體制나 政治的 構造들이 모색되었으며 國際的 協商을 통해 戰爭으로 危險이나 破壞力을 縮小시켜 協商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協商을 통해 國家들간의 戰爭危險을 줄이려는 시도는 바로 傳統的인 軍備統制의 범주에 包含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軍備統制의 歷史는 고대 그리스의 隣保同盟 (Amphictyonic League)에서 부터, 198 1922년 워싱턴 海軍條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近代的 意味에서의 軍備統制에 관한 理論 展開는 그렇게 긴 歷史를 갖고 있지 않다. 처음 軍備統制의 概念이 본격적으로 提起된 것은 1950年代 말엽이었다. 當時의 美國을 비롯한 西方 學界에서는 蘇聯이 Sputnik 號를 쏘아 올리는데 成功했고 ICBM의 開發이 戰略的 安定을 維持하는데 새로운 威脅要素로 등장하는데 대해 關心을 갖게 되었고 그에 關係되는 適切한 主題로서 軍備統制의 概念을 提示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軍備統制의 概念이 包含했던 特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는 安定을 고양시키고 기습공격의 危險性을 줄이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우발적인 事故에 의해 發生되는 戰爭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째는 일방적 措置든 묵시적 合意든, 혹은 公式的 條約에 의하든, 誘導되거나 호혜적인 自我統制 (induced or reciprocated self - control)를 增大시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軍備統制를 軍縮과 區別하는 것이었다. 이는 現實的으로 軍縮이 實現 不可能하다는 立場에 기인된 것이었으며, 대신 그의 主要

關心이 安定을 增大시켜 戰爭을 회피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全體的으로 軍備統制의 理論은 1950年代 후반에 팽배했던 抑制理論에서부터 成長한 것이며 그것은 곧 相互確實破壞 (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概念創出과 그의 維持속에서 하나의 必要한 要素로 看做되었었다. 따라서 軍備統制의 役割은 抑制의 概念을 確實한 破壞를 가져오기에 充分한 超強대國들간의 軍備競爭 趨勢에서 軍事的 現狀維持를 促進시키는 메카니즘으로 轉換시키는데 있었다. 이런 점에서 軍備統制의 理論은 防衛費를 줄이고 戰爭의 개연성을 낮춘다는 目標와 關聯해서 볼 때 傳統的인 軍縮理論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核武器時代에 있어 軍縮은 事實上 戰爭을 防止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效率性を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그대신 抑制가 信賴할 수 있는 戰爭防止의 方案으로 提示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抑制의 論理를 背景으로 軍備統制의 理論이 展開될 수 있었다. 이 경우 軍備統制의 性格은 本質上 限定되고 補充的인 過程으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여전히 防衛의 問題에 집착되어 있는 반면 이것을 完全히 對處하는 것이 아니며 軍備競爭을 終結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緊張을 增大시킬 수 있게 된다는 批判을 隨伴하기도 했다. 現在 論議되고 있는 軍備統制의 問題와 연관해서 제기되고 있는 批判的 견해들을 Gwyn Prins 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摘要 하였다.

- (1) 軍備統制는 國際社會에서 超強대國들의 獨占物이 되고 있다.
- (2) 軍비통제는 軍備競爭을 종결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을 규제하고 위기적인 不安定을 縮小시킬 수 있을 뿐이다.
- (3) 軍비통제는 超強대國들로 하여금 相互對話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4) 군비통제는 競爭者를 궁지에 몰아 넣는데 목적을 둔 複雜한 外交的 게임이다.

(5) 군비통제는 다른 手段에 의해 戰爭을 유발시키는 方法이다.

이상과 같은 否定的 見解에도 불구하고 군비통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해당 국가들간의 軍事力의 衡平(parity)을 유지케 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 戰略的 安定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本質上 그 有用性을 가질 수 있고 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價値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軍備統制의 類型

經驗的으로 軍備統制의 概念이나 理論이 적용되어온 예들을 중심으로해서 볼때 크게 두가지의 類型分類가 可能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戰略 核武器統制이고 다른 하나는 在來式 軍備統制이다.

(1) 戰略核軍備統制(Strategic Nuclear Control) : 軍備統制의 概念이 제기된 이래 지난 20여년간 主要한 관심은 戰略核武器와 關聯된 領域에 집중되어왔다. 그리고 그의 최초의 적용이 1963年 美-蘇間의 部分적 核實驗禁止條約(The Partial Test Ban Treaty)으로 나타났다. 당시 존 케네디 大統領은 이條約의 체결을 “ 거대한 破滅의 어두운 展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努力 ”이라고 評價했고 蘇聯과의 德 땅트의 길을 여는 시발점으로 간주했다.⁷⁾ 이어 核武器 統制와 關聯된 協定들도 1967年 「우주의 平和使用에 관한 協定」(Agreement of on the Peaceful Uses Outer Space) 1968年의 「核擴散禁止條約」(Non-proliferation Treaty), 그리고 1969年부터 1979年 사이에 進行된 「戰略武器制限 協商과 協定締結」(SALT I과 II) 등이 包

숨된다. 특히 SALT I의締結 이후 美-蘇間에는 戰略武器 配置에 관한 制限 設定 및 탄도탄요격 미사일 (Anti-Ballistic Missiles : ABM)의 配置 制限, 그리고 海軍의 挑發形態에 대한 統制와 化學武器 사용금지 등에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1970年代 후반에 들어 초강대국들 간의 政治的 關係가 惡化됨으로서 戰略武器 制限에 관한 協商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79年 末에 있어 蘇聯의 아프카니스탄의 武力侵攻은 美-蘇關係를 경화시킨 결정적인 要因이 되었다. 그에 따라 軍備統制의 論理는 美-蘇間의 戰略核武器 生産을 제한 내지 縮小시키는데 效率的으로 機能하지 못했으며 크루즈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武器生産 技術의 발달에 기인된 戰略武器開發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1970年代에 팽배했던 데탕트의 零圍氣는 美國人들에게 자국의 軍事的 優越性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로부터 軍備統制에 대한 美國 國內에서의 政治的 지지는 와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레이건 行政府는 오히려 美國의 優越한 軍事力에 기반을 둔 對蘇強勁 外交政策을 추구하게 되었다. 로렌스 프리드만(Lowrence Freedman)이 觀察한 바와 같이 美國의 軍備統制에 대한 利害關係를 活用하여 蘇聯은 自國의 軍事的, 政治的 利益을 追求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레이건 行政府가 1980年代初에 全體的인 抑制體系에 대한 代案으로서 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를 推진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軍備統制레짐을 증진시켜 戰略武器體制를 縮小시키려는 主要 國家들의 관심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대표적인 實例들이 1986年 10月の 「스톡홀름 조약」(The Stockholm Accord)과 1987年 12月の 「中距離核武器 (The Intermediate Nuclear Forces : INF) 廢棄協定」이다.

특히 INF廢棄協定은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核武器의 약 4% 減縮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 같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協定들에 비해 볼 때 軍備統制의 분야에서 劃期的인 進展을 기록한 事件이었다. 그후 두 초강대국들인 美國과 蘇聯은 軍縮을 包含한 軍備統制의 문제에 보다 더 積極的인 態度를 취하기 시작했다. 美國은 INF廢棄條約 以後 西獨에 배치된 퍼싱II 미사일을 本國으로 移送시켰고 또한 나토에 있는 크루즈미사일 기지 1개소를 閉鎖하는 措置를 취했다. 그리고 美國은 SDI 計劃을 縮小시켰고 海軍이 現在 보유하고 있는 核彈頭의 5%에 해당되는 단거리 核武器의 廢棄를 결정했다. 한편 蘇聯은 고르바초프 體制下에서 INF廢棄協定에 따라 SS-20 미사일을 廢棄 혹은 移轉시켰고 東歐 주둔 蘇聯軍과 단거리 戰術核미사일의 철수를 발표했으며, 軍事豫算의 약 14% 減縮 등을 발표하였다. 앞으로의 美-蘇間의 戰略核武器와 關聯된 軍備統制의 기대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進行中인 「戰略武器 減縮會談」(START)의 결과에 크게 依存할 것으로 보인다. INF廢棄協定과 달리 이 會談은 直接的으로 美國의 抑制力에 危脅을 주는 蘇聯의 탄도미사일을 縮小시키는데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25年間 軍備統制協商은 주로 核武器 分野에 集中되어 왔으며 실제로 어느정도 成果도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可能하게 된 데에는 東-西間의 政治的, 外交的 關係改善, 核武器의 破壞力에 대한 공포의식, 그리고 協商過程에서 比較的 쉽게 인지되고 평가될 수 있는 戰略武器 體制의 特性 등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2) 在來式 軍備統制 (Conventional Arms Control) : 戰略核武器가 生産되고 배치되기 이전에 1899年 第1次 헤이그會談에서 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전개된 각종 軍縮會談 등은 在來式 武器를 縮小하거나 적절히 제한, 관리하는 문제들을 論議했고 또 어떤 協定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戰略核 軍備統制와는 다른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戰略的, 軍事的 安定을 도모하는데 주된 目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戰略核 軍備統制나 在來式 軍備統制는 서로 緊密히 聯關되고 있지만 武器體制의 성격이나 機能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될 수 있다. 近來에 들어 西歐社會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在來式 武器의 縮小와 管理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관한 각종 協定들이 戰略核武器에 관해 이루어진 반면 在來式 武器에 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그만큼 在來式 軍備統制의 문제가 戰略核軍備統制 보다 더 複雜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在來式 軍備統制의 문제가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은 1973年 10月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相互均衡軍縮」(The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 MBFR) 協定이 아무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대신 1989年 3月에 「유럽 在來式 軍事力 協定」(The Negotiation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 CFE)으로 대체된 데서 잘 나타났다. 이 協定은 35個國이 參加하는 「유럽 安保 協力會議」(The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CE) 8)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유럽에 있어 包括的인 在來式 軍備統制에 관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INF 廢棄協定 以後 全盤的으로 고조된 軍備統制에 대한 관심에 그 主要原因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戰略核武器가 아니라 할지라도 化學武器의

減縮이나 그의 사용금지에 대한 世界 各國들의 利害關係는 지난 이란-이라크戰爭의 경우에서 처럼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 점에 있어 美國과 蘇聯도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美國은 최초로 1997년까지 化學武器 備蓄分을 廢棄하겠다고 宣言한 한편 蘇聯도 化學武器에 관한 國際會議의 開催와 그의 廢棄를 발표하였다. 그 밖에 蘇聯의 戈르바초프 黨總書記는 유엔演說을 통해 2年內 蘇聯 兵力 50萬名의 減縮을 宣言하였으며 나아가 주요 海外 駐屯基地에서의 兵力撤收를 발표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戰略核武器에 한정된 軍備統制 못지않게 在來式 軍備統制의 문제도 世界安全과 安定을 위한 주요 관심영역으로 浮刻될 것임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在來式 軍備統制는 解決하기 어려운 複雜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해당 국가들이나 軍事블럭들의 在來式 軍事力에 대한 正確한 評價(assessment) 문제가 제기된다. 戰略武器 보다 在來式 軍事力에 대한 量的, 質的 評價가 훨씬 더 不確實하고 複雜한 要素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在來式 軍備의 縮小나 制限 및 配置 문제들을 다루는 軍備統制는 일층 더 어렵게 된다. 우선 量的으로 軍人力의 統制나 武器 數의 집계가 사용하는 基準이나 蒐集된 情報에 따라 다르게 집계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軍事力의 質的 能力에 대한 評價를 일정하게 測定할 수 없다는 점에서 在來式 軍備統制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在來式 軍事力은 많은 無形的 要素들(intangible factors)을 包含하고 있다. 즉 그들은 地理, 氣候, 領土, 獨트린, 軍事, 技術, 配置, 訓練, 兵參術, 士氣, 리더쉽, 戰術的 能力, 政治的 意志, 同盟體制, 資料蒐集 能力 등 다양한 요소들로 構成된다.

둘째로 軍事戰略 및 戰術의 기본 성격에 대한 正確한 판단이 困難하기

때문에 재래식 軍備統制는 당사국 간에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군사적 목표나 機能遂行을 공격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상호 간의 軍備統制協商過程에 지대한 影響을 미친다. 그리고 상대국의 軍事力을 공격에 目標를 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 能力을 어느 정도로 測定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分野에서 부터 必要한 措置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래식 軍備統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나토 국가들은 바르샤바 條約機構의 軍事力이 大規模 지속적인 攻撃作戰能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재래식 軍備에 있어 蘇聯의 優越성과 大規模 兵力의 東歐圈에의 駐屯, 그리고 그에 따른 유리한 軍事的 作戰選擇 등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르샤바 條約機構側에서 볼 때 西方側의 그와같은 戰略的 評價는 부정된다. 전자의 側面에서 자신의 軍事力이나 軍事的 配置는 오히려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된다.

세째로 在來式 軍備統制는 그것이 추구하는 目標와 關聯해서 그의 範圍나 役割 遂行에 있어서 限界性을 갖게 된다. 一般的으로 在來式 軍備統制도 戰略核武器의 경우에서 처럼 安定과 勢力均衡의 維持, 寄襲攻擊과 大規模 攻擊能力의 除去 등에 기본 目標를 두고 있다. 이 경우 軍備統制의 協商은 어떻게 하면 防禦能力을 적절히 維持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여기서 主要 관심사는 平和時 前方에 配置된 軍事力의 撤去나 縮小, 主要武器들의 數的 優越性의 제거 등에 집중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열거된 바와 같이 在來式 軍事力이 多樣한 要素들에 의해 影響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防衛能力을 통한 安定의 維持가 在來式 武器體制

를 다루게 될 경우 매우 어렵게 된다.

네째로 더욱 어려운 문제는 概念上的 混頓에서 비롯된다. 즉 軍備統制가 追求하는 “通常的 安定”(conventional stability)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在來式 軍備統制에 있어 어떤 具體的인 成果를 가져오기 어렵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 말하자면 그러한 本質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軍備統制 提案들을 어떠한 基準에서 體系적으로 認識하고 評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흔히 安定을 構成하는 要素로서 軍事力 水準의 구조, 戰鬥準備程度(readiness status), 配置, 態勢(posture) 등이 考慮되고 있지만 실제로 安定은 靜態적인 狀態로서만 될 수 없는 반면 그 대신 계속적인 동태적 安定化의 意味로서 規定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在來式 軍備統制의 本質的 制約性이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혹은 美-蘇 間에 追求되어 온 軍備統制의 經驗들(戰略的 核軍備의 경우든 혹은 在來式 軍備의 경우든)을 綜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徵들이 導出될 수 있다.

또 한가지 有意해 볼 수 있는 것은 美國, 蘇聯 및 中國等 소위 3개 核武器 保有國家들間的 東北亞 地域에서의 軍비통제에 관한 어떤 協定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軍備統制에 肯定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한반도의 軍備統制措置들은 어느 한 水準에서만 가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 水準에서 다른 수준으로 移轉해 가면서 취해 질 수 있다는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가지 수준들에서 同時的으로 모색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措置들이 한반도 軍비통제와 관련해서 취해질 때에는 두개 이상의 수준들이 同時

的, 複合的으로 作用하게 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경우 어느 한 水準에서만 한반도 군비통제조치들이 취해지는 것 보다 더 확고한 基盤을 갖게 될 것이다.

1) 過去의 軍備統制는 比較的 다루기 용이한 課題(target)들에 限定되었다. 말하자면 該當國家들이 一方的으로나 혹은 協商을 통해 縮小하거나 立證하기 용이한 分野에 局限되어 軍備統制에 關聯된 措置들이 취해졌다. 다만 SALT II 條約이나 INF條約 締結의 경우는 部分的으로 核武器의 廢棄를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例外的인 것들로 取扱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核實驗禁止 등 取扱하기 용이한 주제들에 軍備統制레짐이 限定되어 適用되었다.

2) 이와 關聯해서 軍備統制는 대체로 양적인 問題에 焦點을 두어 왔다. 대부분의 협상결과가 該當 國家들의 武器數를 制限하는데 重點을 둔 반면 質的인 變化나 그의 縮小를 가져오는 데는 뚜렷한 成果를 가져오지 못했다.

3) 軍備統制 協商들은 군축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特定武器의 完全한 除去나 廢棄보다는 그의 制限이나 縮小에 局限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전반적인 核武器 및 在來式 武器에 關해서 보다는 어떤 特定한 等級의 武器를 다루거나 限定된 한 집단 國家들 間的 協상으로 이루어졌다.

4) 軍備統制 協商은 극도로 完만하게 進行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成果를 가져오기까지는 긴 時間을 必要로 했다. 이것은 軍備統制의 問題가 그만큼 어떤 種類나 形態의 것이든 軍事的, 政治的으로 매우 민감하고 複雜한 爭點들을 內包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軍事技術이나 國內外的 政治環境에서의 變化들을 包含한 새로운 사건들에 注意를 기울여야 하기 때

문이다. SALT II의 비준 失敗는 바로 그와같은 과정의 희생물이었다.

5) 軍備統制는 대부분 대칭적 (symmetrical) 特性을 갖고 있는 問題點을 다루는데 效果的이었던 반면 그러한 特性을 결여한 問題를 다루는데는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의 軍備統制는 美-蘇間의 核武器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 成果를 가져올 수 있었을 뿐이었다. 반면 在來式 武器를 다루는 경우 항상 어려운 問題에 直面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在來式 武器의 경우 東西間에 根本的인 비대칭적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비대칭성은 蘇聯軍과 나토軍 間의 規模, 構造 및 機能上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기 政府들이 다른 利益과 目的 및 警戒心을 갖고 在來式 軍備統制 問題를 接近하고 있기 때문에 存在하게 된다.

6) 끝으로 軍備統制協定들은 종종 協定內容들의 준수에 따른 問題들을 惹起시키고 있다. 고의적인 協定違反도 있을 수 있지만 교묘한 회피에 대한 法的 制裁措置가 보다 더 심각한 問題로 제기되고 있다. 즉 한 범주의 무기에 影響을 미치는 軍備統制가 매우 密接히 연관된 다른 범주에서 武器 增強에 의해 무의미해질 경우 이것을 法的으로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인가 하는 問題가 軍備統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軍事技術의 發達과 함께 軍事力 配置나 戰略的 行爲에 대한 一定한 統制措置를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4. 軍備統制의 機能과 效果

國際的 安全과 世界平和를 實現하는 目的과 關聯해서 軍備統制에 대한

批判的, 否定的 見解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現實的으로 당장 完全한 軍縮이 實效를 거둘수 없기 때문에 軍備統制는 協定の 遵守나 그에 대한 立證(verification) 등의 問題點을 여전히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備統制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側面에서 그 機能과 效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⁹⁾

1) 軍事的 側面: 軍備統制는 軍事的 論理에서 보면 相互 抑制下에서 敵들도 戰爭을 회피하는데 共通的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가정에서 出發한다. 특히 核戰爭의 威脅下에서 그러한 共通的인 이해관계는 國家들 간의 軍事分野에서 潛在的인 不安定과 相互 不利益的인 事態들을 공동으로 管理하는 토대를 提供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우선 軍備統制는 위기를 회피하거나 管理하는데 效果的인 機能을 遂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는 종종 잘못된 情報과 오해를 통해서 그리고 信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通路(communication)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핫-라인(Hot-Line) 設置나 信賴構築措置를 包含한 軍備統制레짐은 위기를 최소한 피하게 하거나 管理하는데 必要한 要件이 될 수 있다.

나아가 軍備統制는 軍備競爭을 抑制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비록 軍備統制는 現存의 水準에서 해당 國家의 軍事力을 凍結시키는 措置들 以外에도 特定 武器體制의 領域이나 人力水準에서 軍事力의 增強을 防止할 수 있는 手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軍備統制는 基本的으로 相互抑制의 維持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느 일방의 軍事能力이 相對方에게 完全한 損失을 입힐 수 있는 可能性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國家들로 하여금 새로운 武器開發이나 그의 配置에 있어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效果的일 수 있다.

高度로 發達된 監視機構의 開發과 情報蒐集技術은 國家들 特히 超강대국들의 軍事活動에 對한 軍備統制의 機能을 比較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經濟的 側面 : 軍축의 경우와 比較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軍備統制도 關聯當事者들에게 어느 정도 經濟的 利益을 가져다 줄 수 있는 機能을 擔當한다. 軍備統制의 경우 軍事力 增強의 상한선 (ceilings) 이나 새로운 形態의 武器開發에 對한 自제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軍축의 경우처럼 確實한 財政的 支出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經濟的 利益을 가져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軍備統制 協商에서 어떤 合意를 본 該當國家들은 軍事力 현상유지에 다 같이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軍備支出의 增大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최소한 抑制 (minimum-deterrence) 에 바탕을 둔 軍備統制協定이 이루어질 경우 經濟的 利益은 훨씬 더 큰 規模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抑制 (maximum-deterrence) 에 基盤을 둔 軍備統制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도한 軍備競爭을 防止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武器體制의 開發에 所要되는 追加費用은 支出하지 않게 될 수 있다.

(3) 政治的 側面 : 政治的으로 軍備統制는 國際體系의 政治的 構造를 지정사실로 인정하고 이런 條件下에서 該當國家들間의 關係를 調整, 管理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政治, 外交的으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적어도 競爭國家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軍事力을 完全히 拋棄하거나 既存의 政治的 位置를 크게 變更시키지 않고 共通的으로 安保利益을 追求할 수 있게 되는데서 비롯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볼 때 軍備統制는 낮은 水準의 희생과 반면 상당한 정도의 安保利益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競爭國家들 間에 信賴와 協力の 機會를 增進시키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다.

軍備統制는 基本的으로 점증적인 協商過程을 통해 시도된다. 그것은 持續的으로 協力の 幅을 넓혀 該當國家들 間의 競爭力을 緩和시키고 나아가 軍縮까지도 이르게 하는 手段이 될 수 있다. 軍備統制는 “武器 優先”(arms-first)의 論理에 基盤을 두지만 同時에 政治的 關係를 改善시키는데 寄與하게 된다. 왜냐하면 軍事分野에서의 自제와 制限 및 縮小의 措置들이 이루어질 경우 該當 國家들은 보다 더 安定된 基盤위에서 그들 間의 政治的 이해關係를 調整, 管理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政治的 關係의 改善이 軍備統制의 주요한 條件이 되지만 反對로 軍備統制가 政治的 갈등이나 不安定性을 減少시킬 수 있는 效果도 갖게 된다. 여기서 軍備統制가 問題의 完全한 解決보다는 妥協을 本質的 要素로 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취약한 점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急進的인 現象변화 보다는 現象유지 위에서 戰爭의 개연성을 줄이고 軍備競爭을 防止할 수 있다는 면에서 國家의 對外的 安全이나 安保를 위한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Ⅲ. 韓半島 軍事 및 戰略狀況

韓半島 軍備統制의 問題를 論議하기 전에 먼저 檢討되어야 할 問題는 이 地域의 軍事的, 戰略的 狀況에 대한 認識과 評價이다.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韓半島는 世界 어느지역에 비해서, 戰爭이 일어날 危險性이 많은 地域으로 간주되고 있을 만큼 거대한 軍事力이 配置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調整이나 管理를 위한 手段이나 方法이 강구되어 있지 못한 狀態에 있다. 더욱 南北韓 雙方은 相互 不信의 壁이 높은 가운데 個別的으로 軍事力 強化에 주된 관심을 갖고 軍備競爭을 持續하고 있으며 休戰線을 中心으로 고도의 緊張을 수반한 軍事的 대치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韓半島의 軍事的, 戰略的 狀況은 두가지 관점에서 觀察, 檢討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정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태적인 것이다. 정태적인 觀點은 南北韓이 現在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을 主要적인 側面에서 觀察, 評價하는 것이고 동태적인 觀點은 南北韓 軍事力의 量的, 質的인 變化過程과 그러한 過程에 作用하는 對內外的 要素들을 分析, 檢討하는 것이다. 後者の 경우 韓半島 軍備統制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核心的인 요소가 되지만 실제로 이를 說明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南北韓 軍事力 增強이나 變化에 作用하는 多樣的인 요소들을 인지하기 어렵고 軍事問題는 本質上 秘密을 特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南北韓 軍事力 比較

〈表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南北韓이 現在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은

적어도 量的인 面에서 北韓이 南韓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 우선 軍人力의 面에서 北韓의 正規軍은 現在 84萬2千名으로 南韓의 62萬9千名에 비해 約 1.34:1로 數的인 우세에 있다.¹⁰⁾

陸軍兵力에 있어서 北韓은 75萬名, 南韓은 54萬2千名, 空軍은 北韓이 5萬3千名, 南韓이 3萬3千名, 그리고 海軍에서는 北韓이 3萬9千名, 南韓이 2萬9千名과 海병대 2萬5千名을 保有하고 있어서 現在 北韓은 特히 地上軍에 있어서 韓國보다 많은 兵力을 保有하고 있다. 北韓의 總兵力은 北韓 總人口의 3.9%에 달하는 水準으로써, 總人口 對比 兵力數에 있어서 世界 1位인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것이다.

戰時에 北韓 定規軍의 數的인 優位는 南韓의 잘 組織化된 動員豫備軍과 準軍事力에 의해 어느정도 상대될 수 있을 것으로 評價된다. 南韓은 比較的 잘 訓練된 動員豫備軍을 陸, 海, 空軍에서 保有하고 있다.

또한 南韓은 北韓에 비해 2배가 넘는 人口를 갖고 있기 때문에 (42,126,000 대 21,153,000) 長期的으로 北韓 軍事力에 비해 우세한 立場에 있을 수 있다. 統計資料에 의하면 南韓은 現在 軍服務 年齡에 該當하는 男子가 810萬名인 것에 비해 北韓은 290萬名이다. 또한 每年 軍服務 年齡에 該當하는 男子가 南韓은 46萬4千名인데 비해 北韓은 26萬名이 된다.¹¹⁾

〈表 1〉

南北韓 軍事力 比較

區 分	南 韓	北 韓
兵 力 (數)	650,000	870,000
地 上 戰 力		
步 兵 師 團 (個)	21	30
機 械 化 步 兵 師 團 (個)	2	—
特 殊 旅 團 (個)	—	22
戰 車 (個)	1,500	3,500
裝 甲 車 (個)	1,500	1,960
野 砲 (門)	4,000	7,800
迫 擊 砲 (門)	5,300	11,000
헬 리 콥 터 (台)	314	170
海 上 戰 力 (隻)		
潛 水 艦	3 *	23
子 축 함	29	2
유 도 탄 艇	11	30
警 備 艦 / 艇	94	106
어 리 艇	—	173
上 陸 艦	52	126
其 他 艦 艇	112	74
航 空 戰 力 (台)		
爆 擊 機	—	83
對 地 攻 擊 機	23	30
戰 爆 機	457	907
支 援 機	690	780

資料：「國防白書，1988」，IISS, The Military Balance 1987 - 1988, 1988 - 1989.

* 潛水艇을 包含한 것임.

1) 陸軍力の 比較

地上軍의 戰力에서 韓國이 北韓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地上軍 兵力 및 裝備의 數에서 크게 우세하며, 南韓의 質的 優位는 海·空軍의 경우에서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北韓의 地上軍은 高度로 機械化되고 機動力이 뛰어나며, 北韓의 대포는 南韓의 그것보다 強力하고 사정거리가 길다. Military Balance 1988-1989에 따르면 北韓의 地上軍은 總 12군단 26보병사단과 39개여단으로 構成되어 있다. 北韓 地上軍의 75% 이상이 非武裝地帶에서 50마일 以內에 位置하고 있다. 서울이 비무장지대로부터 25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서울 防禦를 위한 南韓의 戰略的 融通性을 制限하는 結果를 가져온다. 그리고 北韓의 前進배치 때문에 韓國軍의 조기 경보시간이 종전의 72時間에서 12時間으로 短縮되었다고 한다.

카터(Carter) 行政府에 의한 駐韓美軍撤收가 한창 거론되고 있던 1979年 美國政府는 北韓 地上軍에 대한 全面的인 재평가를 발표한 바 있다. 美國은 北韓의 地上軍 兵力을 16만명 내지 26만명(特攻隊 10만명 包含), 탱크는 650台, 兵力輸送用 장갑차는 250대, 야포는 500문 내지 1,000문, 防空武器는 2,500문 내지 3,500문으로 늘려 추정했다.¹²⁾ 그 후 美國은 駐韓美軍 撤收計劃을 白紙化하기에 이르렀다.

陸軍의 경우 현재 北韓은 南韓에 비해 兵力은 약 1.4倍(75만 對 54만 2천명), 탱크는 2.12倍(3,175 對 1,500), 장갑차는 약 1.6倍(1,400 對 850), 박격포는 약 2倍(11,000 對 5,300), 대포는 약 1.85倍(6,000 對 3,300)나 더 많이 保有하고 있다.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듯이 地上軍에서 北韓의 數的 優位는 두드러진다.

그러나 北韓의 數的 우위는 다른 面에서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첫째, 質的인 面에서 韓國의 地上軍 武器 및 裝備의 優勢性이 간과될 수 없다. 특히 최신형 탱크, 장갑차, 자주포, 地上發射用 미사일(地對地, 地對空, 陸戰車)에서 韓國軍의 武器와 裝備는 매우 우세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¹³⁾

둘째, 韓國이 防禦的인 立場이고 北韓이 攻擊的인 戰略이라는 점이 南北韓 戰略的 均衡에서 北韓의 數的인 우세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地形的인 면에서 韓半島는 山嶽地帶가 많기 때문에 機械化 部隊나 다수의 탱크가 신속히 전진하는게 不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休戰線에서 서울까지의 25 마일의 거리를 北韓이 進入하려고 試圖할 때 北韓은 문산이나 의정부의 2個의 通路를 통해야만 한다.¹⁴⁾ 이 通路를 要塞化하고 이 通路에서 對戰車 武器와 大砲 혹은 地上攻擊機를 사용할 경우 韓國軍은 北韓의 機甲部隊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地上軍의 組織面에서 北韓의 數的 우세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北韓은 機甲力을 강조해 온 반면에 韓國은 對機甲力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韓國은 對戰車用 武器를 많이 保有하고 있으며, A-10 과 같은 우수한 近接 支援攻擊機를 保有하고 있다.

2) 空軍力의 比較

空軍力에 있어서 南韓은 北韓의 量的인 우위를 그의 質的인 優秀性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다. 더욱이 韓國의 空軍力에 駐韓美軍의 空軍力이 加勢될 경우 北韓은 空軍力에서 결코 南韓에 비해 優勢한 立場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北韓은 1987年末 現在 800台的 戰鬥機를 保有하고 있으며 南韓은 473台를 保有하고 있어서 北韓이 약 1.7倍의 數的 優位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空軍機들은 보다 더 最新型이며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製造된 것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作戰半徑, 柔軟性, 火力, 電子裝備 등에서 優秀한 能力을 發揮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北韓의 戰鬥機 가운데는 오래되고 比較的 性能이 뒤떨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評價된다. 北韓 戰鬥機의 약 33%(280台)가 MIG-17機이다. MIG-15는 蘇聯이 1949년에 開發해서 韓國戰爭중에 사용된 것이며, MIG-17은 1953년에 개발된 것으로서 모두가 음속보다 느리며 夜間과 惡天候에는 사용할 수 없다. 韓國戰爭중에 美軍 조종사가 조정하는 1台的 F-86이 MIG-15와 MIG-17을 10台 이상 격추시킨 바가 있다.¹⁵⁾

北韓은 160台的 MIG-19機를 保有하고 있으며 절반은 戰鬥用이고 절반은 요격용이다. MIG-19는 1955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MIG-15, MIG-17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基準으로 본다면 저급의 航空機이다. 北韓은 MIG-21機를 150台 保有하고 있는데, 이 飛行機는 작전반경이 짧고, 航空電子部品이 조야하고, 飛行能力이 貧弱하며, 武裝이 가벼우며, 심각한 엔진 결함을 가지고 있다.

北韓은 30台的 Su-7 地上攻擊機를 保有하고 있다. 이것은 美國이 韓國에게 F-4를 供給한데 대한 反應으로서 蘇聯이 北韓에게 提供한 것으로 보이는데, F-4 크기의 2/3가량 되며 거의 모든 면에서 F-4보다 劣勢이다.¹⁶⁾

MIG-21은 F-4D에 비해 戰鬥交換率(combat exchange rate)에서 2.3對 1로 劣勢에 있으며, MIG-21은 대체로 F-5와 대등한 性能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¹⁷⁾

그러나 北韓은 現在 약 40대의 MIG-23을 蘇聯으로부터 移讓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G-23은 蘇聯軍에 1970년대 초에 처음 配置된 것으로서 정교한 레이다, 優秀한 電子裝備, 強力한 엔진, 改善된 武裝能力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MIG-23機는 蘇聯軍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에 機種도 아니며 F-16機처럼 最新型도 아니다. 현재 MIG-23機는 北韓의 平壤 近方 북창基地에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報道되고 있다.¹⁸⁾ 40~50기의 MIG-23은 韓國과 美軍의 空軍力 威勢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¹⁹⁾

다만 注目해야 할 것은 最近 北韓이 蘇聯으로부터 Su-25 地上攻擊機와 MIG-29 요격기 및 SA-5를 入手한 것으로 보도된 점이다.²⁰⁾ MIG-29는 西方側의 F-5 혹은 F-16 등의 高性能 戰鬥機에 對應하기 위해 開發된 全天候 최신에 戰鬥機로서 高性能 레이다와 미사일이 裝置되어 있고 地上攻擊能力도 갖고 있다. MIG-29機는 最高速度 마하 2.3, 航速距離 1,125 km이며, 空對空 미사일 AA-10 6기와 AA-11 등을 裝着하고 있다. 또한 MIG-29는 저공 비행하는 敵 航空機나 크루즈 미사일을 攻擊할 수 있다.²¹⁾ Su-25는 最高時速 마하 0.8의 近接 地上攻擊 지원기로서 空對地 미사일을 裝着하고 있다.²²⁾ 또한 SA는 사정거리 260 km로서 國防部 發表에 의하면 SCUD-B(사정거리 270 km)와 함께 休戰線 近方에 配置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SA-5는 고공정찰기 SR-71의 飛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한다.²³⁾

그 밖에 北韓은 게릴라戰 및 短期戰에 유리한 공격용 헬리콥터를 110대 갖고 있으며, 특히 西獨을 통해 密輸한 美國 휴즈社(Hughes Corporation)

의 300C형, 500D형, 500E 헬리콥터 86대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 민간용인 이 헬리콥터 가운데 약 60대가 이미武装되어져서 空對地미사일, 로켓砲, 기관총을 裝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²⁴⁾ 그런데 휴즈社의 헬리콥터들은 韓國에서 라이선스 生産下에서 軍隊 普給하려고 하는 헬리콥터와 같은 형이기 때문에 北韓이 침투할 경우 我軍과의 識別이 어렵게 된다는 데 問題가 있다.

韓國은 1986년 3월 이후로 24대의 F-16機를 購入하였고 12대를 더 導入할 예정이다. F-16은 같은 形態의 機種으로서는 가장 優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6은 最高速度 마하 2.0, 行動半徑 925 km이며, 空對空 및 空對地 作戰能力을 갖는 우수한 戰鬥暴擊機이다.²⁵⁾ 現代 韓國空軍의 主機種은 260대의 F-56이다. 韓國 空軍은 F-5A/B와 그 改良型인 F-5E/F機를 모두 保有하고 있다. F-5는 MIG-23과 MIG-29를 除外하고는 戰鬥用으로도 또 요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 韓國은 68대의 F-4E/F機를 保有하고 있다. F-4 팬텀機는 F-5보다 優秀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地上攻擊機로 評價받고 있다. F-4機는 빠르고 強力하며 方向轉換이 自由롭다.

그외에 韓國空軍은 特殊한 目的의 航空機를 갖고 있다. 韓國은 세계에서 가장 優秀한 近接空軍 支援機인 A-10機(대전차 공격기)를 6대 갖고 있다. 또한 韓國은 24대의 OV-10기 및 약 23대의 A-37 반개릴라 작전지원도 보유하고 있다. 또 韓國은 RF/5A 정찰기 10대, S-2A 對潛艦機 20대, 陸軍用 O-2A 觀測機 14대를 가지고 있다.

空中裝備에서도 韓國은 北韓에 비해 결코 劣勢한 立場에 있지 않다. 北韓의 空對空 미사일은 주로 구형인 AA-2를 保有하고 있으며, 最近에 비

교적 신형인 AA-7을 구입하였고, 또한 MIG-29機에 裝着되는 AA-10, AA-11을 蘇聯으로부터 購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韓國은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스페로우(Sparrow) 空對空 미사일, 매버릭(Maverick) 空對地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韓國의 空軍戰鬥力은 數的으로는 열세이지만 質的인 면에서는 그러한 數的인 劣勢를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保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韓國空軍에 駐韓 美空軍이 더해질 경우 韓國의 空軍力은 北韓의 空軍力을 오히려 壓到할 수 있을 것이다.

3) 海軍力の 比較

南北韓의 海軍은 그 組織이나 艦艇의 類型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南北韓 海軍은 모두가 沿岸 海軍 規模로서 구성되어 있다. 北韓 海軍은 攻擊指向的으로서 潛水艦과 소형 공격용 쾌속정이 주종을 이루고 韓國海軍은 海岸防禦 위주의 大型 水上船舶이 주종을 이룬다. 총 艦艇數에 있어서는 5百66隻 對 2百88隻으로 北韓이 우세하지만 總 噸수에 있어서는 南韓이 더 많다. 韓國은 11隻의 구축함, 18隻의 프리깃艦만을 保有하고 있다. 北韓은 374隻의 소형 공격용 쾌속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隻은 미사일이 裝着되어 있다. 反面, 韓國은 11隻의 미사일 裝着 소형 쾌속정을 갖고 있다.

北韓은 海軍의 潛水艦과 소형 공격용 쾌속정에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戰時에 海岸侵透와 기뢰부설을 통한 港灣 封鎖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은 地理的으로 東海의 元山과 西海의 南浦에 각각 本部를 두고 있는 두개의 艦隊司令部를 갖고 있는데, 이같은 北韓 海軍力の

2 分化는 北韓 海軍의 유연성에 크게 制約을 주게 된다.

北韓 海軍 가운데 가장 큰 艦艇은 2 隻의 “나진”級 프리깃艦이다. 3.9인치 砲를 裝着한 이 함정은 1976년과 1979년에 北韓이 建造한 것인데 대체로 조잡한 것으로 評價받고 있다.²⁶⁾

北韓은 모두 28 隻의 潛水艦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중 4 隻은 蘇聯의 위스키級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製作되어 1960년에 蘇聯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며, 17 隻은 로미오급이고, 7 隻은 小型 潛水艦인 것으로 밝혀졌다. 北韓의 小型 潛水艦은 길이 8.6 m, 幅 2.5 m의 6人乘이며 알루미늄材로써 발견하기 어렵도록 船體一部가 물에 잠기게 되어 있다. 또한 이 潛水艦은 3 個의 엔진이 附着되어 있고, 最高時速 50 노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⁷⁾

또한 韓國에 威脅이 되고 있는 것은 34 隻의 미사일 탑재 攻擊用 快速艇(FAC)이다. 10 隻의 오사(Osa-1)과 8 隻의 코마르(Komar) 攻擊用 快速艇은 사정거리 23 마일의 스틱스(Styx) 미사일을 裝着하고 있으며, 國內에서 建造한 10 隻의 소주급과 6 隻의 소흥급은 오사와 코마르艇을 複製한 것이다.

미사일 攻擊用 快速艇 이외에도 北韓은 167 隻의 艦砲裝着 攻擊用 快速艇과 173 隻의 어뢰裝着 쾌속정을 포함한 다수의 연안 作戰用 艦艇을 보유하고 있다. 北韓은 蘇聯, 中共, 北韓에서 製作된 158 隻의 초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艦艇들의 대부분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제작된 것들이었다.

또한 北韓은 126 隻의 上陸艇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몇 隻만이 탱크 및 기타 重裝備를 운반할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1980년 이후에 北韓

에서 제작된 한태급 上陸艇으로, 각각 서너개의 中型 탱크를 운반할 수 있다. 北韓에는 또 95 隻의 남포급의 84 피트 크기의 攻擊-上陸艇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기관총 4문으로 武裝되어 있으며, 19 名의 兵力을 운반할 수 있다.

결국 北韓의 海軍은 매우 제한된 교란능력과 소규모 기습공격능력을 갖고 있는 沿岸海軍力이라고 評價해 볼 수 있다.

한편 韓國 海軍은 모두 11 隻의 구축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7 隻은 기어링 (Gearing) 級이고, 2 隻은 섬너 (Sumner) 級인데 각각 하푼 (Harpoon) 艦對艦 미사일을 裝着하고 알루엣 (Alouette) III 헬리콥터 1 대를 탑재하고 있다. 나머지 2 隻은 플래처 (Fletcher) 급이다. 또한 韓國海軍은 國際戰略研究所 (IISS)의 『The Military Balance 1988 ~ 1989』에 의하면 3 隻의 沿岸潛水艦 (돌고래) 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潛水艦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⁸⁾

韓國의 海軍은 18 隻의 프리깃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5 隻은 IIDF-2100 으로 불리우는 國際 製作된 울산급으로 하푼미사일을 裝着하고 있으며, 12 隻은 엑소셋 (Exocet) 艦對艦 미사일 裝着의 동해급이다. 또한 韓國은 11 隻의 코르벳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5 隻은 하푼미사일을 裝着하고 있으며 2 隻은 MM-38 엑소셋 (Exocet) 艦對艦 미사일로 武裝되어 있다. 韓國은 94 隻의 초계정과 기뢰제거함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韓國은 52 隻의 水陸兩用車를 보유하고 있으며 8 隻 (LST) 은 각각 20 대의 탱크를 운반할 수 있고, 8 隻 (LSM) 은 北韓의 가장 큰 水陸兩用車 보다 크며 20 隻 (LCU) 은 소형선박이며, 10 隻은 LCM이다. 또한 25 대의 S-2A/F, 25 대의 휴즈 (Hughes) 500MD 헬리콥터, 12 대

의 SA-316 B 알루엣 III 헬리콥터 등의 대잠수함전 (ASW)을 위한 裝備와 武器도 갖추고 있다.

요컨대, 北韓의 海軍은 잠수함과 소형 쾌속정을 中心으로 한 侵透와 연안封鎖를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韓國의 海軍은 점차 대형함정에서 미사일 裝着 쾌속정 中心으로 轉向함으로써 대잠수함전 能力 向上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韓國의 海軍艦艇 및 裝備가 北韓의 그것보다 現代的이고 優秀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南北韓의 海軍力은 모두 沿岸海軍으로서 規模나 勢力面에서 아직은 초보적인 段階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海軍이 美7함대의 支援을 받을 경우 有事時 海上에서 쉽게 北韓을 制壓할 수 있을 것이다.

4) 駐韓美軍의 軍事能力

現在 駐韓美軍의 兵力은 약 40,000名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陸軍이 29,100名이고, 空軍이 11,200名, 韓國人 카투사 兵士가 2,300名 정도 派遣나가 있다. 駐韓美軍은 戰爭抑止力으로서 韓國戰爭의 休戰成立 이후 韓國에 계속 남아 있다. 1971年 닉슨 行政府에 의한 駐韓美軍 1個師團 철수 이후 주한미군은 約 4萬名 內外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駐韓美軍은 通常的인 狀態보다 한단계 높은 데프콘 (Defence Readiness Condition 4)에 놓여 있는 世界에서의 유일한 地域이다. ²⁹⁾

駐韓 美陸軍은 美8軍에 소속된 보병 제2사단이다. 그 외의 陸軍兵力은 1個 地對地 미사일부대, 1個 防空旅團, 1個 通信旅團, 경찰과 병참 및 情報部隊이다.

美 步兵 第2師團은 南韓의 16個 陸軍師團과 함께 韓·美 聯合野戰軍을 구성한다. 韓·美野戰軍은 대부분 서울 防衛의 任務를 갖고 있으며,

非武裝地帶와 서울 사이에 配置되어 있다.

駐韓美地上軍은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主要裝備는 155 대의 重型탱크(M-60와 M-55), 105 mm와 155 mm 野砲, 88 mm와 107 mm 박격포, 발칸 방공체제, I-호크(Improved Hawk)와 레드아이(Red Eye)地對空 미사일, 토우(Tow) 및 드래곤(Dragon) 대전차 무기이다. 랜스(Lance) 地對地 미사일 부대는 春川에 있고, 제 38 방공포여단은 烏山空軍基地에 本部가 있다.³⁰⁾

駐韓 美空軍은 美 第7空軍으로서 韓國內에서 獨自的인 임무수행이 可能하다. 烏山에는 F-4E, OV-10, OA-37B機를 保有하고 있으며, U-2R 정찰기도 대체로 烏山에서 발진한다. 대구에는 14대의 F-4E機가 있으며, 水原에는 24대의 A-10機를 保有하고 있다. 1985年 現在 駐韓 美空軍은 모두 48대의 F-16, 24대의 F-4, 24대의 A-10 地上攻擊機, 16대의 OV-10 반개릴라活動支援정찰비행기, AH-1S 코브라(Cobra) 토우 공격용 헬리콥터와 UH-60 블랙호크(Blackhawk) 輸送用 헬리콥터를 保有하고 있다. 烏山과 群山の 美空軍基地는 스타거 防空미사일體制를 갖추고 있다.³¹⁾

現在 數百個의 戰術 核武器가 韓半島에 配置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群山空軍基地가 美核武器 저장소로 알려져 있다. 韓國內에는 아마도 항공기용 新型 B-61 戰術核 爆彈이 配置되어 있을 수 있다. B-61은 100 킬로톤에서 500 킬로톤까지 네개의 탄두를 選擇할 수 있다. (히로시마에 投下된 原子彈이 12 킬로톤이었다.) 8인치 포탄은 0.1 킬로톤짜리 탄두를 裝着한다. 裝着되에는 2가지 種類가 있는데 0.01 - 1 킬로톤에 이르는 小 型和 1 - 15 킬로톤까지의 大型이 있다.³²⁾

결국, 軍事力에 있어서 韓國의 北韓에 대한 量的인 劣勢는 武器와 裝備에 있어서의 韓國의 質的인 向上과 韓國駐屯의 美軍의 支援으로써 만회될 수 있을 것이다.

2. 東北亞의 軍事戰略 環境

1) 蘇聯의 軍事戰略 및 軍事力

東北아시아에서의 蘇聯의 軍事戰略은 全世界的 戰爭과 地域的인 戰爭에 對處하는데 그 基本目標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全世界的인 戰爭은 美蘇間의 對決樣相을 띠며, 地域的인 戰爭은 蘇聯 對 中國, 蘇聯-北韓 對 美國-韓國-日本 間의 對決의 양상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 戰爭에 관한 한 이 地域에서 蘇聯의 目的은 첫째, 이 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戰略攻擊 武器를 방어하고, 둘째, 蘇聯의 極東 연해주 地域을 外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셋째 中國이 世界大戰時 中-蘇 國境線을 따라 第2의 前線을 形成하지 않도록 抑制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³⁾

現在 蘇聯은 오호츠크海에 展開되어 있는 30隻의 탄도 미사일(SLBM) 裝着潛水艦(24隻의 SSBN, 6隻의 SSB:SSBN과 SSB)의 指揮·統制權은 蘇聯 總參謀部에 직속된 것으로 보여진다.³⁴⁾ 극동의 방어가 蘇聯 극동함대의 가장 큰 임무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美國의 攻擊으로부터 연해주 공격을 擊退하는 것을 蘇聯 極東司令部의 主要한 임무로 삼고 있다. 또한 蘇聯과 4,500 마일의 國境을 接하고 있는 中國이 美·蘇對決時 第2의 前線을 形成하는 것을 抑制하기 위하여 현재 蘇聯은 中-蘇 國境을 따라 약 48개 師團 兵力을 配置해 놓고 있다.

극동아시아에서 蘇聯은 美國에 比하여 軍事力(空軍力과 海軍力)에서 劣

勢에 있을뿐 아니라 地理的인 面에서 많은 制約을 갖고 있다. 全 蘇聯軍 總參謀長이며 현재 고르바초프의 軍事顧問인 아흐로메예프 (Sergei Akhromeyev)가 今年 7月 21日 美國下院 軍事委員會에서 행한 證言에 따르면 極東 및 西太平洋 地域의 美-日 海軍 艦隊은 蘇聯 艦隊에 비해 人力에서 2倍, 主要 戰艦에서 4倍, 攻擊用 航空機에서 2倍나 優勢하다고 한다.³⁵⁾

蘇聯은 中國과의 第2의 戰線을 형성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다. 美-蘇 對決과 同時에 4,500 마일의 中-蘇國境線에서 中國과 軍事的으로 交戰해야 할 경우 蘇聯은 兵力과 裝備의 면에서 분산 配置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막대한 人力資源과 광활한 地域을 갖는 中國과의 對決은 적어도 在來式 武器에 의한 戰爭에서 蘇聯戰爭 遂行能力을 크게 制約하게 될 것이다.

海軍力에서 볼 때 蘇聯의 太平洋艦隊 (SOVPACFLT)는 母港인 블라디 보스톡에서 太平洋으로 進出하기 위하여는 쓰시마, 쓰가루, 소야의 3해협 중 하나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 해협들은 모두가 그 幅이 좁고 日本에 의하여 감시, 警찰 당하고 있다. 따라서 有事時 蘇聯 太平洋艦隊가 이 3해협을 통과하려고 試圖할 경우, 美國과 日本이 해협들을 封鎖하려고 할 것이며, 蘇聯의 極東艦隊가 東海岸에서 갇히게 될 可能性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蘇聯이 3個 해협을 정복하고 確保할 수 있는 能力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³⁶⁾ 蘇聯 極東艦隊는 美國과 日本의 封鎖에 대하여 취약하다.

그 외에도 蘇聯의 시베리아 地域과 연해주 地域은 通信, 道路 등의 基幹産業이 미비하고 유럽地域의 蘇聯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戰爭時 유럽地域으로부터의 兵참보급이 圓滑하지 못할 可能性이 크다. 현재 蘇聯의

유럽地域과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이어주는 것으로 航空路線 以外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와 1980年代 중순에 完工된 BAM (Baikal Amur Main Rail - road)鐵道 뿐이며 그 外의 道路事情은 極히 취약한 狀態에 있다.

시베리아 地域은 蘇聯에게는 鑛物, 石油, 天然가스, 原木 등을 비롯한 主要한 資源이 豊富하게 散在해 있는 곳이며, 따라서 시베리아는 蘇聯經濟의 動脈과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시베리아가 中國으로부터나 혹은 美國의 연해주에 대한 공격에 취약하게 된다.

蘇聯은 1969年 中-蘇紛爭이 本格的으로 惡化되어졌을 때, 極東地域에서의 軍事力增大에 主力하였다. 그 結果 1970年代 初에는 양적인 面에서 極東地域에서의 蘇聯의 軍事力이 急激한 膨脹을 보게 되었다. 極東지역에서의 蘇聯의 戰力은 1988年 現在 58個師團과 1個 特殊軍團으로 構成되어 있다. 裝備로는 14,000臺 탱크(T-80 신형 탱크포함), 13,200門의 野砲와 박격포, 225기의 FROG 地對地 미사일, 1,200기의 地對空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다. 또한 蘇聯 極東司令部는 總 1,390대의 戰術航空機를 保有하고 있다. 蘇聯 極東司令部內的 極東군관구 (Far Eastern Military District)에는 MIG-27 / Flogger, Su-24, Su-25를 包含하는 360대의 공격기와 MIG-23, MIG-29, MIG-31을 包含하는 225대의 戰鬥機를 保有하고 있다.³⁷⁾

極東艦隊는 4個의 蘇聯 艦隊 가운데 가장 큰 規模를 갖는다. 太平洋艦隊는 2隻의 航空母艦, 14隻의 순양함, 13隻의 驅逐艦, 22隻의 프리깃艦, 31隻의 코르벳艦, 140隻의 其他 수상함정, 21隻의 水陸兩用艦艇, 그리고 135隻의 補助艦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蘇聯 太平洋艦隊 항공대에는 50대의 Tu-26/Badger 爆擊機, 10대의 Tu-95/Bear 爆擊機도 包含되어 있다. 또한 海軍에는 1個 師團(7,000名)의 海兵隊 (Naval Infan-

try)가 所屬되어 있다. 戰略 核戰力으로는 440 個의 大陸間 탄도 미사일, 132 個의 중거리 미사일 (SS-20, INF 條約에 의해 廢棄過程에 있음)을 保有하고 있으며 이것은 蘇聯의 全體核戰略의 約 1/3 에 該當된다.³⁸⁾

1970 年代 末부터 蘇聯은 美國, 日本, 韓國 혹은 美國, 日本, 中國을 包含하는 對蘇 3角同盟의 형성의 可能性에 대해 憂慮하고 있다. 이같은 3角同盟이 形成될 경우 蘇聯은 地理的으로 포위당하게 되어 軍事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놓이게 된다. 더욱기 1980 年에 美國의 레이건 行政府가 들어서고 美國內에서 強硬派가 得勢하여 美國이 對蘇 강경자를 견제하여 軍事力을 增強하기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美-日間 軍事協力을 強化하고 日本 나카소네 政府가 3個 海峽封鎖 및 日本 本土로부터 1,000 海里 방어를 천명하고 나옴에 따라, 蘇聯은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 北韓과의 軍事協力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蘇聯-北韓間의 軍事協力이 1984 年 5月 金日成의 蘇聯訪問 이후 급진전 되었다. 蘇聯-北韓 간의 군사유대 強化는 蘇聯의 北韓에 대한 新型武器提供, 軍事交流, 交換訪問, 共同海上訓練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蘇聯은 北韓에서 1984 年 이후 40 - 50 臺의 MIG-23 戰鬥機를 提供했으며, 1984 年 11 月에는 SCUD 地對地 미사일, 30 기의 SAM-3 地對空 미사일, T-72 新型 戰車 및 기타 通信裝備를 提供하였다. 1987 年에는 ZSU-23, 24자주대공포, SAM-5 地對空 미사일, SU-25 近接支援戰鬥機 10 臺를 提供하였으며, 1988 年에는 12 臺의 MIG-29 戰鬥機를 提供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新型 武器 提供에 대한 代價로서 北韓은 蘇聯에게 海軍基地 및 空軍基地 使用 權과 北韓 上空에서의 초계비행을 許容해 오고 있다. 현재 蘇聯은 北韓의 청진, 나진, 웅기, 원산, 남포항에 寄港權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나진에

는 蘇聯을 위한 核潛水艦 基地와 戰略 通信基地가 設置되었고, 원산과 나진 사이에 蘇聯의 單獨의인 미사일基地가 設置되어 蘇聯 極東艦隊의 航路統制나 飛行統制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³⁹⁾ 蘇聯은 北韓內에서의 緊急着陸權과 北韓 領空에서의 초계비행권을 獲得하였으며 Tu-16 Badger 정찰기가 北韓領空을 최초로 通過한 이후 1985年 6月에는 Tu-95 Bear가 北韓上空에서 飛行을 시작하였다.⁴⁰⁾ 蘇聯은 北韓領空의 飛行權을 얻음에 따라 休戰線 上空과 압록강을 따라 滿洲地方에 대하여 定期的인 정찰 및 情報蒐集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蘇聯의 연해주로부터 北韓을 거쳐 베트남의 캄난에 이르는 항로를 開拓하였다. 그 외에도 蘇聯은 南浦에 寄港權을 얻었다고 하는 報道가 있는데, 南浦가 蘇聯의 軍事基地가 될 경우에 蘇聯은 日本의 3個海峽 封鎖의 위협에서 벗어나 黃海로부터 直接 太平洋으로 進出할 수 있는 戰略的인 利點을 갖게 될 것이다.

蘇聯-北韓間에는 빈번하게 軍事交流와 共同軍事訓練이 實施되고 있다. 1985年 6月 北韓의 軍事要員들이 蘇聯 極東司令部를 방문하였으며, 蘇聯 역시 太平洋艦隊所屬 戰艦이 北韓의 元山을 방문하였고, 蘇聯과 北韓間的 戰爆機의 交換訪問이 行하여지기도 하였다. 蘇聯 海軍總司令官 체르나빈 隊長이 1987年 5月에, 민방위사령관 고보로피가 1987年 5月에 訪問하였고 北韓 人民武力部長 오진우가 蘇聯軍 創設 70週年 記念行事에 參席하였다.

또한 1984年 12月 이후 蘇聯 정찰기 및 爆擊機의 北韓 上空飛行 回數가 100回 以上에 이르고 있다.⁴¹⁾

1984年 金日成의 蘇聯訪問 以後 北韓의 對外政策은 두가지面에서 變化가 있었다. 먼저, 北韓과 蒙古 同盟條約이 1986年 11月 24日 締結되었는데 이것은 兩國間的 全面的인 協力を 規定하고 있으며 軍事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또한 北韓은 베트남 對 캄보디아 戰爭에서 베트남의 立場을 支持하게 되었는데, 그 以前까지 北韓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을 非難했었다. 이러한 北韓의 움직임은 美國, 日本, 韓國, 혹은 美國, 日本, 中國 間의 軍事的 協力增大에 따른 蘇聯安保에 威脅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捕圍網에 대한 脫出口로서 蘇聯, 北韓, 베트남, 혹은 蘇聯, 北韓, 蒙古 間의 對應的인 軍事協力 強化의 性格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1986年 7月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은 蘇聯의 東北아시아에서의 軍事戰略에 커다란 變化를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사고에 의해 蘇聯은 東北아시아에서 緊張을 緩和하고, 軍費減縮을 實施하며, 蘇聯 시베리아와 연해주 地方과 西方世界와의 經濟協力增進을 추구하고자 한다. 고르바초프는 이 地域에서의 一方的인 軍備縮小를 宣言하였다. 1991년까지 蘇聯은 아시아 地域에서의 地上軍을 12師團 減縮하고, 11個의 空軍師團이 解體될 것이며, 蘇聯 太平洋艦隊 가운데 7隻의 潛水艦과 3隻의 大型 水上艦艇을 解體하고, 蒙古駐屯 중인 蘇聯軍 중 75% 減縮하게 되어 있다. 이 計劃이 實行으로 옮겨질 경우 總 20萬名의 蘇聯軍 兵力이 아시아地域에서 철수하게 된다.⁴²⁾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問題를 軍事的인 方法이 아닌 政治的인 方法으로 解決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이 地域에서의 美-蘇 間의 軍備縮小의 可能性이 커졌으며, 그 여파로서 韓半島에서의 美軍撤收 問題가 美-蘇間 軍縮의 한 部分으로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은 國內外 經濟事情이 惡化됨에 따라 國防費를 削減하고, 유럽과 아시아 地域에서 軍縮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미 美-蘇간에는 中거리 核武器 廢棄協定이 締結되었고, 現在는 戰略武器協定과 西유럽에서의 나토와 바르샤바條約 機構 間의 재래식 武器減縮協商이 進行中에 있다. 이같은 美-蘇間의 화해분

위기가 성숙하게 될 때에는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서의 美-蘇間의 軍縮協商이 진지하게 開始되고 또 進前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2) 美國의 軍事戰略 및 軍事力

全世界的 戰爭이 발발할 경우 東北아시아 地域에서의 美國의 戰略目標은 이 地域에서의 海路를 防禦함으로써 積極的인 前進防禦를 수행하고, 同盟國과 友邦國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반격을 감행하며, 이 地域에 駐屯 中인 美軍을 支援하고, 蘇聯의 軍事能力을 中立化하고 蘇聯이 極東 軍事力을 유럽 全域으로 移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⁴³⁾

東北아시아 地域에서의 美國의 戰略은 총체전력의 概念에 입각해 있다. 총체전력이란 美國이 同盟國과 함께 蘇聯의 위협을 封鎖하고, 地域의 安定을 維持하고, 海路를 確保한다는 것이다.⁴⁴⁾ 1980年代부터 美國은 國內 財政赤字 및 國際貿易收支 적자의 2중의 적자로 經濟的 困境에 처해 있다. 이러한 經濟的 壓迫과 日本과 韓國의 國力이 상대적으로 伸張된 사실에 주목하여 美國은 日本과 韓國에게 防衛分擔을 要求해 오고 있다. 이미 日本은 유사시 日本 近海의 3해협 封鎖와 日本 本土로부터 1,000 海里에 이르는 수역을 방어할 것을 闡明한 바 있다. 그 외에도 日本은 美國에게 駐日美軍에 대한 補助費 형식으로 사실상 防衛費 分擔을 實施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 分擔額數가 늘어날 추세이다. 韓國 역시 이제는 美國의 軍事援助 受惠國에서 벗어나, 美軍에게 防衛費 分擔의 一環으로서 一定額을 支援해 오고 있다.

美國은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 約 14 萬名의 兵力을 駐屯시키고 있다.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韓國에 約 43,000 名, 日本에 64,700 名, 필리핀에

約 16,400 名, 괌에 9,100 名, 濠洲에 850 名, 디에고 가르시아에 1,700 名 등이다. 極東地域에서의 紛爭時 하와이에 駐屯하고 있는 太平洋 統合司令部所屬의 陸海空軍이 動員可能하다. 또한 西太平洋 地域에 配置되어 있는 日本 요코수카에 司令部를 두고 있는 美 第7艦隊와 太平洋의 美 第3艦隊 中 일부가 動員될 수 있다. 1987年1月 以後로 第3艦隊의 일부가 西太平洋에 配置되어져 中東이나 東아시아에서의 紛爭에 投入할 수 있게 되었다. 第7艦隊에는 約 42,100 名の 兵力이 所屬되어 있으며, 2隻의 항공모함, 15隻의 공격잠수함, 23隻의 수상함정, 9隻의 水陸 兩用艦艇 등을 保有하고 있다. 第3艦隊에는 4隻의 항공모함, 8隻의 오하이오(Ohio)탄도 미사일 적재 核추진잠수함(SSBN), 25隻의 공격용 잠수함, 1隻의 모함, 67隻의 주력 수상함정 등을 包含하고 있다. 太平洋 空軍司令部 所屬 美空軍으로는 日本에 F-15, F-16을 비롯하여 총 92기의 戰鬥攻擊機, 韓國에 F-4, F-16, A-10 등을 包含하여 總 168기의 戰鬥攻擊機, 필리핀에 F-4, F-5를 비롯하여 總 48기를 保有하고 있다.⁴⁵⁾

美國은 國防費가 縮小됨에 따라 軍事武器와 裝備를 量的으로 縮小하는 한편 質的인 面에서 改善시키고 있다. 戰略武器에 있어서는 美國은 空中發射 순항미사일(ALCM)과 水中 탄도미사일(SLBM) 혹은 순항미사일(SLCM) 중심의 체제로 轉換을 推進하고 있다. 동시에 美國은 在來式 武器의 質的인 向上에도 力點을 두고 있어서 地上軍의 裝備를 改善하고, 경보병 사단을 創設하고, 신속전개군(Rapid Deployment Forces)의 戰鬥力 向上에도 力點을 두고 있으며, F-16機 2個의 대대를 日本 미사와에 增設하였고, F-III중폭격기를 配置할 豫定이며, 第7空軍을 創設하였다.⁴⁶⁾

東北아시아와 西太平洋에서 美國은 蘇聯과 比較할 때 空軍力과 海軍力에서 우세하다. 美國은 韓國, 日本, 필리핀, 괌 등에 基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基地에서 발진하는 空軍機들이 蘇聯內의 目標物이나 蘇聯의 항공기나 船舶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基地들은 美海軍에게 兵參 및 修理施設을 提供함으로써 海軍이 獨自的으로 比較的 오랜 기간동안 作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美國은 對잠수함전(ASW)과 대양에서의 海底音響 探知機, 海上船舶에 유인되는 探知裝置, 다수의 P-3 Orion 대잠수함기가 敵國의 잠수함에 潛在的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와같은 廣範圍한 대잠수함 裝備와 武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⁴⁷⁾ 앞으로 美國은 先進的인 海上發進 空軍力, 장거리 힘의 投射能力, 海洋에서의 지속能力, 監視와 정찰, 신예 고도의 精密武器를 運營, 管理할 수 있는 能力에서 소련보다 상당한 優위를 계속 점할 것이다.⁴⁸⁾

日本은 美國으로부터의 軍事防衛 負擔의 壓力에 副應하여 점차 地域的인 軍事的 役割을 增大시켜 나가고 있다. 日本은 이미 日本의 3個 海峽 封鎖와 日本 本土로부터 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1,000 海里 防衛를 闡明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美國에게 年間 8億8,840萬 달러의 直接支援을 提供하고, 페르시아만 活動支援을 위한 1,000萬달러, 유엔 平和維持軍 支援費 2,000萬 달러, 그리고 페르시아 周邊國에 대한 5億달러 등의 經濟援助를 提供함으로써 積極的으로 經濟援助를 屐하고 있다.

日本은 國防豫算이 年間 約 300億 달러로서 그 武器와 裝備面에서 높은 水準에 이르고 있다. 日本은 總1,400億 달러의 5個年 計劃(1986-90) 防衛力 整備計劃을 推進함으로써 軍事力 強化를 圖謀하고 있다. 또한 美-日 間에는 合同軍事訓練을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5年마다 美-日兩國

은 海上交通路 防衛를 위한 甲號訓練이 實施되고 있으며, 1988年 5月에는 美-日 合同海上輸送訓練이 처음으로 實施되었다.⁴⁹⁾

東北아시아에서의 國際的 霧圍氣는 신-데탕트의 기류에 따라 흐르고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紛爭에 대한 軍事的 해결 대신 政治的 해결을 내세우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소련군의 철수, 中-蘇 國境地域에서의 소련군 減縮計劃, 蒙古內의 소련군의 減縮計劃,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 철수를 摸索함으로써 脫 冷戰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 소련이 軍備減縮과 政治的 解決을 위한 일련의 시도는 소련의 經濟的 沈滯에 따른 國防費 減縮의 必要性和 軍事독트린의 새로운 評價에 따른 軍事戰略의 變化에 따른 것이다. 소련은 현재 軍事戰略은 「適正充足性」(reasonable sufficiency)戰略의 原則에 따라 무모한 美-蘇 간의 軍備競爭을 止揚하고 대신 소련이 최소한의 抑止能力만을 保有함으로써 지구상의 平和를 維持하고,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 間的 共存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련은 防禦的인 戰略으로 轉換을 하고 있으며, 이미 1989年 7月에 “새로운 防禦的인 戰略”(New defensive doctrine)에 따라 東海岸에서 機動訓練을 實施한 바 있다.⁵⁰⁾

美國 역시 신-데탕트의 霧圍氣와 2重 적자에 따른 國防費 削減을 위한 議會의 壓力때문에 점차 東北아시아와 西太平洋에서 美國의 介入을 줄이고 대신 日本이나 韓國으로 하여금 防衛役割을 增大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게 추세이다. 東北아시아에서 美-蘇間的 在來式 武器 減縮協商이 앞으로 진전될 경우 美國은 駐韓美軍의 철수 내지는 減縮을 考慮하게 될 것이다.

3. 戰略體系의 複雜性

결국 南北韓 軍事關係는 雙方간의 關係만이 아니라 全體的으로 不確實한 東北亞地域의 軍事戰略體系와 密接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複雜性을 띠고 있다. 東北亞地域의 軍事, 戰略環境은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強大國의 位置에 있는 美國, 蘇聯, 中國, 日本 등의 利害關係가 첩예하게 교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軍事的, 戰略的 相互關係를 規制하거나 調整할 수 있는 危機管理 레짐이나 軍備統制레짐이 確立되어 있지 않는데 그 特徵이 있다. 4大 強大國들은 文化的, 歷史的 異質性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的 理念이나 社會內部體系에 있어서도 兩立하기 힘든 要素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 그들은 經濟的인 側面에서 점차 相互依存性을 擴大시켜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美國과 蘇聯 및 中國은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는 軍事的 大國으로서 安定된 戰略環境을 造成하거나 維持하기 위한 實際的인 協商을 展開하거나 어떤 集團的 安保體系의 確立에 대한 合意를 이룩해 놓지 못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太平洋地域을 包含한 東北亞地域에 있어 美國의 軍事的 우세가 상당한 정도로 蘇聯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蘇聯은 1960年代 중반부터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軍事力을 크게 增強시켜왔다. 따라서 이 地域에서 美-蘇간의 軍事的 均衡關係는 매우 不確實한 狀態를 維持하고 있으며 이것은 東北亞地域體系의 不安定性을 加重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여기에 事態를 더욱 複雜하게 만드는 것은 中國이 美國과 蘇聯에 이어 軍事的인 側面에서 그의 能力을 增大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中國은 近來에 들어 外交, 安保面에서 獨自路線을 추구함으로써 다원적 勢力構造로 變更시키는데 關心을 두고 있으

며, 또한 자신의 軍事力を 現代化시켜 戰力增強을 圖謀하고 있다. 中國은 자신의 核抑制力を 開發하고 있으며 특히 1985년에는 두번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實驗에 成功했다.⁵¹⁾ 中國은 獨自의인 安保政策을 追求하면서도 특히 蘇聯의 베트남이나 北韓과의 軍事的 協力關係를 維持하는데 關心을 두고 있다. 적어도 中國은 地域的 勢力으로서의 獨自의인 位置와 役割을 確保하는데 깊은 이해關係를 갖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東北亞地域에서의 勢力均衡이나 軍備統制의 問題를 接近할 때 그의 意圖나 戰略目標은 重要하게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도 점차 自衛隊의 戰力を 增強시키면서 東北亞地域에서 美國과 함께 그의 經濟力에 相應하는 戰略的 位置를 確保하는데 過去보다 큰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近來에 들어 日本政府가 防衛費 支拂을 GNP의 1% 未滿이라는 前例를 깨고 그 이상으로 增加시키고 있으며⁵²⁾ 동시에 필리핀의 北部地域과 靑을 包括하는 1,000 마일에 이르는 2개의 海上통로의 安全을 管掌할 의도를 밝힌 점에서 잘 反映되고 있다.

東北亞地域에서 4大強國들의 軍事作戰이나 그 活動이 增大하고 있고 또 그들의 戰略的 이해關係가 複雜하게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南北韓은 각기 그러한 地域體系와 密接하게 연계되어 각기 軍事, 戰略體系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즉 南韓은 美國과 同盟體系를 形成, 維持하고 있고 日本과는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반면 北韓은 蘇聯 및 中國과 마찬가지로 軍事的, 外交的 同盟體系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韓半島를 中心으로한 冷戰的 兩極構造가 殘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國際體系의 多元化現象과 極히 對照的인 面을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問題의 複雜성이 一層 더 增大하게 된다. 결국 東北亞地域에서의 不安定한 勢力分

布와 양극성 및 多樣性を 동시적으로 包含하고 있는 東北亞地域의 戰略體系의 特性때문에 韓半島 問題는 軍備統制의 경우든 혹은 統一問題의 경우든 단순히 南北韓 狀況에만 국한된 問題로 接近되기 어렵게 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軍備統制가 檢討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어떤 成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4大強國들간의 相互作用이나 그들의 個別的인 對韓半島의 政策變化와 戰略的 이해관계가 주의깊게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 4大強國들의 相互關係나 그들의 對韓半島 政策은 刮目할 정도로 變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蘇聯은 1985年3月 고르바초프가 蘇聯 黨總書記로 登場한 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면서 對內的 改革과 經濟建設에 가장 큰 強調點을 두고 있다. 蘇聯의 指導層은 새로운 思考(new thinking)에 따라 蘇聯 社會의 腐敗와 非效率, 沈滯를 克服하고 政治, 經濟的 改革을 追求함으로써 國力を 伸張시키고 強大한 國力を 基盤으로 超強大國의 地位를 確保한다는 戰略을 갖고 있다.⁵³⁾

소련은 이미 中央執權의인 黨의 統制를 緩和하고 國民의 自由에 대한 制約을 緩和했으며, 經濟的으로는 命令經濟(command economy)에 따른 中央集中的 計劃經濟體制를 止揚하고 西歐資本主義의 市場經濟 要素를 일부 導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과는 對外的인 開放을 要求한다. 소련은 海外로부터 科學技術을 入手하고, 外國의 資本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西方世界및 日本에 눈을 돌리고 있다.

東北아시아에서 소련은 시베리아地域의 開發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베리아地域은 石油, 天然가스, 鑛石, 木材 등의 資源들이 豊富하게 산적해 있는 地域임에도 不拘하고 現在까지도 開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시베리아에서는 基幹産業조차 擴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베리아는 經濟적으로 重要的 地域임과 동시에 軍事的으로도 太平洋과 통하는 통로로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은 이 地域의 開發을 위해 外國의 勞動力, 資本, 技術을 利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속에서 고르바초프는 1986年7月 블라디보스톡宣言을 통해 소련에게 있어서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의 重要性을 強調한 바 있다.

蘇聯은 韓國의 經濟的 能力을 잘 認識하고 있으며, 韓國이 시베리아地域의 開發을 위해 必要的 資本과 技術을 投入할 것을 期待하고 있다. 現在 韓-蘇 間에서는 直接 交易이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兩國의 經濟 協力이 보다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소련은 軍事的인 方法을 통한 紛爭 해결 대신에 政治的인 方法을 통해 對話와 協商에 의한 해결을 追求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서 소련은 韓半島 問題에 관하여도 政治的 해결과 和解를 強調하고 있다.

中國 역시 鄧小平의 指導아래 스탈린식의 中央統制의 計劃經濟體制를 放棄하고 다소의 市場經濟體制의 要素를 導入함으로써 國民의 經濟的 인센티브 (incentive)를 높이고 生産性을 向上하며, 또한 政治的 自主化를 追求함으로써 官僚의 腐敗와 無能을 除去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中國은 實用主義 路線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要素를 덜 強調하고 있으며 4強 現代化計劃을 위해 軍內에서는 私企業的인 利潤追求 및 地方分權의 自治權限을 어느정도 認定하면서 國外로부터는 先進技術과 資本을 導入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中國은 黃海沿岸 地域에 經濟特區를 設置하여 外國의 投資를 誘引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東北亞經濟權 創設을 제창하여 이 地域에서의 國際的 經濟協力を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中國 역시 經濟開發을 위해 韓國의 資本과 技術을 必要로 하고 있다.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및 中國의 改革 및 開放政治의 趨勢는 北韓社會에도 어느 정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美國과 日本은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바라고 있으며, 現在 關係改善을 위한 摸索段階에 와 있다. 韓國政府는 7.7宣言을 通해 美國, 日本과 北韓과의 接觸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밝혔고, 이에따라 美·日과 北韓간의 經濟的 및 民間交流가 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1980年代 末에 접어들면서 中-蘇 關係도 크게 進展되었다. 蘇聯이 아프카니스탄에서 軍隊를 철수하고, 蘇聯의 支援을 받는 베트남軍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또한 中, 蘇 兩國이 지난 5月에는 鄧小平-고르바초프 會談을 契機로 兩國간의 關係를 정상화하였다. 이와같은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 國際關係의 變化는 南北韓關係의 改善과 軍備統制에의 接近을 위한 좋은 契機가 되고 있다고 보겠다.

4. 軍事的 威脅의 原泉

東北亞地域體制가 緊張緩和와 相互關係의 增大를 特徵으로 하는 變化樣相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에서 軍備統制의 問題가 論議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南韓의 安全에 대한 軍事的 威脅을 正確하게 인지하고 評價하는 일이다. 基本的으로 南韓의 對外的 安全에 대한 위협은 두가지 方向에서 추출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分斷된 狀況에서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이고 다른 하나는 不安定한 東北亞 軍事戰略體系로부터의 威脅이다.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은 분단이후 戰爭을 經驗한 이래 그리고 休戰線을 中心으로 한 대치상태의 持續을 통해 繼續 存在해 오고 있는 것으로 認識

되고 있다. 南韓의 安全에 대한 北韓의 威脅은 南北韓 軍事力 比較를 檢討하는데서도 지적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素들에 기인된다.

첫째로 北韓이 적어도 量的인 面에서 南韓보다 우세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고 또 계속 攻勢的인 戰略態勢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北韓은 공격무기를 開發해왔으며 또 상당수의 兵力과 함께 그러한 공격무기들을 休戰線 近處에 配置하고 있다는 事實에서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은 常存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둘째로 北韓이 追求하는 統一戰略이 또한 南韓의 安全에 威脅을 주는 重要的 要素로 간주된다. 北韓의 統一戰略은 二重性을 內包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平和的인 統一이 強調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武力에 의한 革命統一路線이 追求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後者の 경우 根本적으로 南韓社會體制的 崩壞를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北韓은 政治的, 軍事的 手段들을 통해 그 目的을 達成하려고 하고 있다는데서 잘 나타난다. 北韓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韓半島 統一을 주장하면서도 南韓과의 平和的 共存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共產化 統一을 窮極的 目標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부터 南北韓間의 대립갈등은 深化될 수 밖에 없으며 分斷의 克服은 일층 더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北韓은 계속 軍事力 增強을 위해 人的, 物的 投資를 增大시키고 있으며 특히 最新 공격무기를 確保하기 위해 蘇聯이나 中共으로부터 軍事的 支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은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MIG-23/29 機를 포함한 최신무기들을 蘇聯으로부터 提供받았다. 그리고 北韓이 外交的, 軍事的으로 蘇聯 및 中國과 緊密한 軍事同

盟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러한 關係는 南韓의 安全에 대한 重要한 잠재적 威脅의 要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蘇聯과 中共은 北韓에 軍事武器를 提供하는 供給處가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는 反面 南韓과는 非公式的 關係만을 유지할뿐 北韓과의 關係와 比較해 볼때 非對稱的 關係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東北亞地域의 軍事戰略體系로부터의 南韓의 安全에 대한 위협은 北韓으로부터의 위협처럼 直接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間接的이고 잠재적인 속성을 띤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로 두가지 側面들이 주목을 끌게 된다. 하나는 주요 행동자들인 4大強國들이 이 地域에서 軍事力을 增強시켜왔고 또 軍事作戰 및 訓練活動을 繼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地政學的으로 南北韓을 中心으로 東北亞 地域體系가 不均衡하게 構成되어 있다는 점이다. 前者의 경우 특별히 關心을 두어야 할 事態들은 (1) 蘇聯의 증강된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軍事力, (2) 中國의 핵잠수함 開發을 포함한 軍事力의 現代化, (3) 日本의 防衛力 增強과 戰略的 役割 增大, (4) 美國의 상대적인 安保役割의 쇠퇴 등이다.

最近에 蘇聯은 고르바초프 黨總書記가 對外的으로 實質的인 軍縮을 통해 軍事的 대치상황을 緩和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蘇聯의 極東軍事戰略에 어떻게 作用할 것인지는 여전히 未知數로 남아있다. 다만 蘇聯은 中國과의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접경지역에서 상당수의 地上軍을 철수시켰으며 蘇聯은 1991年까지 아시아地域에서 海軍力을 포함한 상당수의 兵力을 철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南韓의 安全問題와 關聯해서 보다 더 重要한 問題는 美國의 對東北亞 軍事戰略의 變化 움직임이다. 美國은 南韓과 相互防衛 同盟體系를 형성하고

있지만 國內에서 심한 財政赤字 등과 關係해서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美國의 位置와 安保役割을 축소시키는 한편 日本으로 하여금 그러한 役割을 代行시키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日本政府로 하여금 增加된 防衛費支出을 要求하는 美國의 立場은 바로 그러한 의도를 反映한 것이다. 東北亞地域에 있어 軍事, 戰略的 狀況이 流動的이고 不確實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集團的 安保體系나 위기관리체계 및 준비통제레짐이 不在하거나 매우 貧弱한 狀態에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南韓의 安全은 비록 잠재적인 것일지라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은 充分히 假定될 수 있다.

한편 地政學的 불균형의 문제는 南韓의 安定을 위협하는 慢性的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을 지지하고 支援하는 蘇聯과 中國이 北韓과 인접해서 存在하는 반면 南韓은 海洋에 의해 地理적으로 떨어져 있는 美國이나 日本에 의해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分斷된 이래 南韓의 安全은 北韓을 포함한 두 社會主義 大陸國家들의 膨張意圖에 대한 美國의 封鎖戰略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같은 地政學的 불균형의 문제는 軍事, 戰略的인 次元에서 보다는 政治, 外交的인 次元에서 解決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南韓이 두 大陸國家들과 政治的, 經濟的 諸 側面에서 關係改善을 圖謀함으로써 軍事, 戰略的 不均衡에서 오는 위협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南韓의 安全問題는 軍事的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外交的 次元에서 多次元的으로 解決策이 摸索될 수 있도록 接近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게 된다.

IV. 韓半島 國民統制의 可能性

1. 韓半島 軍備統制의 意義

아직도 軍事的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高度의 緊張까지도 수반하고 있는 韓半島 狀況에서 어떤 형태로든 軍비통제와 관련된 措置들이 행해질 경우 그것은 韓半島 安全과 平和뿐만 아니라 東北亞 地域의 安定을 圖謀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軍備統制의 概念이나 經驗이 지금까지 주로 유럽地域의 戰略的 安定을 實現하는데 適用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韓半島 상황에서 구체적인 措置로서 나타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意義와 效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南北韓이 軍備統制에 접근하게 될 경우 쌍방간의 接觸과 對話를 지속시킬 수 있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쌍방간에 接觸이나 交流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軍備統制의 문제가 本格的으로 論議되고 이를 통한 어떤 合意點을 導出해 내려고 할 경우 그것은 쌍방간의 지속적인 接觸이나 協商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軍備統制는 現存하는 軍事的 대치상황에서 비롯되는 南北韓間의 긴장의 水準을 낮추는데 有用하게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 關係에서 軍備統制가 최소한 쌍방간의 現存 軍事力 水準을 동결시키는데 그칠 경우에도 그것은 쌍방 軍事的 關係를 安定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軍備競爭과 相互不信에서 오는 緊張과 대결의 상태를 緩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軍備統制레짐이 南北韓間의 相互信賴 構築의 措置들을 포함하

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는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南北韓間에 軍備統制 協商이 展開될 문제의 性格上 短時日 안에 어떤 成果를 가져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協商은 既存의 軍事的 現상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相對方의 安全에 새로운 위협요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떤 進展을 보게 될 경우에는 군사분야에 관한 상호의견 교환이나 情報交換까지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南北韓 關係에서 쌍방은 갑작스런 우발적 사고에 의하거나 相互 誤解나 잘못된 情報에 의해 發生할 수 있는 軍事的 위기나 緊張狀態를 신속하게 處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의해 의도적인 도발이 試圖된다 할지라도 협상이 진행중일 경우 그러한 도발은 어느정도 최소한의 犧牲을 치루도록 管理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南北韓 間의 軍備統制는 軍備競争을 어떤 手段에 의하든 抑制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쌍방에 의해 과도한 軍비지출을 防止할 수 있고 그 結果 개별적으로 南北韓의 經濟發展이나 福祉社會의 實現에 보다 많은 財政的 支出을 할 수 있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南北韓은 엄청난 비용을 軍備增強에 支出해 왔기 때문에 國民經濟 發展이 지연되거나 犧牲되는 分斷史의 또 다른 犧牲을 強要당해 왔다. 그러나 軍備統制 협상이 어떤 成果를 가져올 경우 南北韓 間에는 점차 상호 信賴가 構築될 수 있고 그에따라 무모한 軍備競争은 止揚될 수 있을 것이다. 軍備統制에 대한 어떤 合意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이 安定될 경우 그것은 南北韓間의 政治的 關係를 改善시키는 破及效果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적 관계가 쌍방개별적 安全에 위협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조정, 管理될 경우 南北韓은 比較的 安定된 바탕위에서 政

治的, 經濟的 關係改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軍備統制는 窮極的으로 南北韓間의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接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이 武力에 의한 統一의 시도를 完全히 포기하고 平和的으로 그러한 目的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現在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軍事力과 그것에 基盤을 둔 상호간의 군사적 대치와 위협의 問題를 협상을 통해 어떤 方式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歷史가 입증하고 있는 바와같이 軍縮이 당장 可能的한 것도 아니다. 南北韓간의 군사적 對峙나 相互不信의 정도를 고려해 볼때 아무리 論理的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相互間의 軍縮은 實效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그 대신 보다 더 包括的이고 유연성(타협성)을 內包하고 있는 軍備統制의 概念이 南北韓間의 關係를 改善시키고 平和的인 統一을 實現하는데 有用하게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이 최소한의 抑制力에 바탕을 두고 軍備統制의 問題에 接近해 가려고 할 경우 軍縮은 그 다음 段階에서 어느 정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時間과 인내가 必要하게 된다. 반면 최대한의 抑制力에 依存하면서 南北韓이 軍備統制 協商에서 어떤 구체적인 合意를 導出하려고 할 경우에도 쌍방이 現在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의 水準은 可能的한 한 동결하는 方向에서 推進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南北韓이 軍備統制 協商에 임하게 될 경우 그 자체로서 平和的인 手段에 의한 統一에의 接近은 새로운 可能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南北韓 軍備統制의 試圖

南北韓이 分斷된 이래 軍備統制와 관련된 시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다. 다만 그러한 시도들이 實效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는 새롭게 주의를 끌게 된다. 비록 南北韓이 서로 軍事力을 增強시키고 또한 軍備競爭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다른 한편 그들은 각기 상호간에 緊張을 緩和시키고 戰爭을 防止하며 窮極的으로 平和的인 方法을 통한 民族의 再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갖가지 方案들을 提示해 왔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方案들을 놓고 南北韓이 서로 接觸과 對話를 갖기도 했다. 南北韓이 쌍방관계를 非軍事的, 平和的인 手段을 통해 改善시키고 나아가 統一을 實現하기 위해 提示한 方案들이나 協商試圖 중에는 넓은 意味에서 軍備統制의 概念的 범주에 包含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軍事的 分野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南北韓은 軍비통제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方案들을 提示해 왔다. 統計資料에 의하면 1953年 韓國戰爭이 休戰狀態로 終結된 이후 1987年 7月 20日까지 南北韓은 軍事的 分野에 限定된 軍備統制와 관련된 提案들을 약 117回나 내놓았다. 이를 다시 細分해 보면 그러한 提案들은 대체로 1970年 이후 많이 提起되었 으며 南韓보다는 北韓이 훨씬 많은 回數의 提案들을 내놓은 것으로 集計되었다. 즉 南韓은 37回에 그친데 반해 北韓은 80回에 達했다.(表2 參照)

〈表 2〉 軍事的 分野에서의 南北韓 軍備統制 提案 回数*

時 期	1953.7-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7.11.20	計
南 韓	1	0	21	15	37
北 韓	7	18	26	30	81

資料：國土統一院，『南北統一對話提議比較(1945-1987)』，서울，1987.12.

* 이 統計는 軍備統制를 軍事的 分野에 한정된 좁은 意味로 規定했을 때의 것이고, 軍備統制의 概念을 非軍事的 分野에 까지 擴大해서 南北韓이 平和的 統一方案과 關聯해서 提示한 內容들까지 합하면 集計된 數値는 달라질 수 있음.

南北韓이 직접적으로 軍備統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시한 方案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어느 一方이 他方에 제의한 形態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雙方間의 協商을 위한 主要 主題들로서 취급되었거나 그에 基礎한 어떤 合意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만 1970年代 이후 한가지 경우에 南北韓은 軍備統制와 관련된 內容들을 부분적으로 包含한 協商을 展開했고(비록 비밀리에 展開되었지만) 그 結果 구체적인 合意 事項을 公布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1972年 7月 4日에 南北韓이 共同으로 發表한 “7.4 南北共同聲明”이었다. 1970年度에 들어서 南北韓은 周邊國際環境의 變化와 더불어 이전과는 달리 相互適應의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의 구체적인 反應이 1971年 8月부터 시작된 南北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雙方의 적십자회담의 開催로 나타났으며, 이어 南北韓 當局者 間의 비밀 막후협상의 결과로 同 聲明이 發表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우선 내용면에서 볼 때 “7.4 南北共同聲明”은 韓半島 軍備統制 問題와 關聯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包含하였다.

- (1) 統一原則으로 南北韓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실현한다.
- (2) 南北韓은 雙方間의 緊張狀態를 緩和시키고, 信賴의 氛圍氣를 造成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고 어떠한 武力挑發도 행하지 않으며 불의의 軍事衝突 事故를 防止하기 위해 積極적인 措置를 취한다.
- (3)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해 南北韓은 多方面에 걸쳐 諸般 交流를 실시한다.
- (4) 南北韓은 돌발적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雙方間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迅速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가설, 運營한다.
- (5) 南北韓은 雙方間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고 統一問題를 다루기 위해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

以上の 內容들은 南北韓間의 軍備統制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核心的인 要素들을 構成하고 있는 것이었다. 南北韓 雙方이 武力使用을 禁止하고 돌발적 軍事衝突에 대처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가설, 운영하며 나아가 平和的인 方法으로 統一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機構로서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키로 合意한 것은 적어도 표면상 韓半島 軍備統制의 本質적 要件들을 충족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하고 그 機能을 規定하는 데 있어 南北韓은 5가지 기능들 중 하나로서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⁵⁴⁾”라고 명시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가 雙方間의 軍備統制와 關聯된 問題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雙方間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南韓과 北韓은 각기 상이한 입장들을 취했다. 南韓은 雙方體制의 相互理解와 人정을 바탕으로 交流를 통한 相互信賴의 構築에 重點을 두었던 반면 北韓은 南北韓間的 軍事問題의 解決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973年 3月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北韓側은 “南北韓間的 現 軍事的 대치상태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對話를 할 수 없고 南北關係를 실질적으로 改善해 나갈 수도 없으며 나라의 統一과 관련된 어떠한 問題도 成果的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主張하면서 5個項目의 軍事提案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討議할 것을 要求했다. 5個項目의 軍事提案들은 다음과 같다.

(1) 南北은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지양하고, (2) 軍隊를 각기 10萬名 또는 그 이하로, 그리고 軍備를 大幅 縮小하며, (3) 外國으로부터의 일체 武器와 作戰裝備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고, (4) 美軍을 包含한 일체의 軍隊를 철수시키며, (5) 이상의 問題를 해결하며 南北韓에서 서로 武力行事を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이를 “擔保” 하는 平和協定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⁵⁵⁾

한편 韓國側은 서울에서 열린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에서 經濟-社會分野에서의 相互交流와 接觸을 擴大해 나가는 方案들을 제시했다. 여기서 軍비통제의 概念適用에 있어 北韓은 軍事問題 우선주의를 내세운 반면 南韓은 非軍事的 분야에서의 漸進的인 相互信賴構築에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會가 3次에 걸친 會議를 끝으로 더 이상 會議를 開催하지 못함으로써(北韓의 일방적인 中斷宣言에 기인됨) 分斷 4반세기 만에 雙方間的 平和統一 및 軍備統制와 關聯된 相互合意 事

項들을 아무런 實效를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

이후부터 南北韓의 軍備統制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느 一方의 相對方에 대한 提案이나 要求 혹은 일방적인 宣言形態로 이루어졌다. 1970年代 이후 軍備統制와 關聯된 주요 提案들이나 宣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南韓의 경우 이미 1970年 8月 15日 大統領 慶祝辭를 통해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促求했으며, 이어 1973年 6月 23日에는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에서 韓半島에서 侵略行爲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대신 韓國政府는 北韓과의 유엔 同時加入 등을 推進할 것이라는 획기적인 對北韓政策이 發表되었다. 또 1974年 1月에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朴正熙 大統領은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提議했다.

이 協定이 締結되기 위해서는 (1)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말것, (2) 相互 內政間涉을 하지 말것, (3) 現行 休戰協定의 效力이 存屬되어야 할 것 등 세가지 條件들이 提示되었다. 그후 같은 해 8月 15日 慶祝辭에서 朴正熙 大統領은 소위 “平和統一原則”을 發表하면서 南北韓間의 相互不可侵條約 協定締結과 相互信賴回復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韓國政府의 “先平和, 後統一”原則을 確固하게 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도 南韓은 北韓에 대해 相互不可侵條約의 締結과 아울러 相互信賴의 構築 및 相互利益을 실현하기 위해 南北韓 相互 門戶의 開放과 交流協力을 增進해 나갈 것을 促求했다. 그리고 南韓은 南北韓 當局者 會談을 開催하여 모든 分野의 問題들에 관해 論議할 것을 北韓側에 提案하여 南北韓 軍事問題까지도 協商할 意圖가 있음을 闡明하였다. 이에 韓國政府는 美國과의 共同聲命을 발표하여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緩和시키기 위해 南北韓 및 美國의 高位當局과의 代表者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다. 소위 3

당국회의로 일컬어지는 이 會談의 目的은 南北韓 間의 緊張緩和를 기하는데 있었지만 韓國과 美國은 이 會談이 열릴 경우 이산가족 재결합의 문제, 南北韓 人的·物的 交流의 問題 등 全般的인 問題가 論議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980年代에 들어 軍備統制 問題와 關聯해서 南韓의 對北韓 提案은 보다 더 적극적인 形態로 나타났다. 우선 韓國政府는 相互信賴를 構築하고 戰爭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해 “南北韓 當局 最高 責任者 相互訪問”과 나아가 “南北韓 當局 最高 責任者 會談” 開催 등을 提議했다. 그리고 1982年 1월에 發表된 소위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하면서 雙方間의 紛爭問題를 解決하는 데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危脅을 完全히 止揚할 것을 包含시키도록 提案했으며, 나아가 서울과 平壤에 常駐 連絡代表部를 設置하여 相互 커뮤니케이션을 維持하도록 할 것을 提議했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南韓이 취한 對北韓 提案은 1988年 7月 7일에 發表된 “民族自存과 統一 繁榮을 위한 大統領 特別宣言”에서 나왔다. 이 宣言은 基本的으로 南北韓間의 相互信賴回復과 民族的 紐帶強化를 위해 國際社會에서의 民族全體의 利益을 위해 相互協力할 것을 骨子로 하였다. 여기서는 南北韓間의 軍備統制에 관한 問題가 직접적으로 言及되지는 않았지만 雙方間의 相互信賴와 民族共同體의 形成에 관심이 주어짐으로써 南韓의 對北韓 政策의 새로운 전환점을 造成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그후 韓國政府는 1988年 6月 10日 당시 최광수 外務部長官의 第3次 유엔軍縮 特別總會演說을 통해 “韓半島 軍縮 3段階 方案”을 提示했다.

즉 (1) 南北韓 間의 早速한 對話 再開와 後續接觸 및 協力の 擴大를 통해 相互信賴를 構築하고 緊張을 緩和하며, (2) 敵對行爲의 재발을 防止하기 위한 制度的 保障裝置로써 雙方間에 不可侵 協定을 체결하여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確保하고, (3) 이같은 與件들이 성숙할 때 南北韓은 韓半島의 軍縮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을 展開한다는 것이다.⁵⁶⁾ 같은 해 10月 18日 유엔總會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1) 非武裝地帶 안의 平和市 建設, (2) 南北韓 間의 頂上會談 開催, (3) 相互不可侵과 武力使用에 대한 合意, (4) 軍備縮小 등 軍事問題에 대한 論議와 妥結, (5) 東北亞 6個國 平和會議 開催 등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演說을 行했다.⁵⁷⁾ 이로써 韓國은 전 반적으로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南北韓 間의 軍縮이나 軍備統制 등 軍事問題에 대한 解決을 위해 北韓과 協商에 應할 意圖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北韓은 6.25 戰爭 이후 비교적 계속해서 軍縮을 包含한 軍事問題의 접근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것은 그 意圖야 어떠한 統計上 南韓側보다 軍備統制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一方的인 提案들을 많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잘 例示되고 있다. 1953年 韓國戰爭이 休戰協定에 規定된 “韓國의 항구적 平和와 統一을 위한 政治會談을 90日 이내에 開催한다”라는 條項에 따라 1954年에 열린 제네바會談에서부터 北韓은 平和的 統一을 내세워 南北韓 軍縮 등 軍備統制와 關聯된 提案들을 내놓았다. 당시 北韓側이 내세운 提案들을 보면 (1) “朝鮮” 地域으로부터 모든 外國武力을 철거시킬 것, (2) 南北韓 軍隊數을 1年 期限 內로 10萬名을 넘지 않게 할 것, (3) 雙方의 軍隊를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한 協定을 締結하기 위해 南北韓 代表들로 委員會를 組織할 것 등과 같은 內容을 包含했다.⁵⁸⁾

그리고 1960年 8月 15日 北韓의 金日成은 그의 演說에서 각각 南北

韓 軍隊의 10 만에로의 減縮과 美軍을 비롯한 外國軍의 撤收, 그리고 南北韓 연방제 실시 등을 提案했다. 이 당시 南韓社會는 4.19 學生革命으로 政治的, 社會的으로 매우 불안정한 狀態에 있었으며 北韓의 그와 같은 提議는 결코 統一을 위한 순수한 方案으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狀況이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南韓에서의 統一革命戰略을 遂行하기 위한 일환으로 看做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

1970年代에 들어서는 南韓도 “7.4 南北共同聲明”을 南韓과 共同으로 發表한 이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南北調節委員會의 계속적인 會議 開催를 一방적으로 거부하고 나서, 1973年 6月 23日 南韓이 소위 “6.23 宣言”을 發表한 같은 날짜에 소위 “平和統一 5大綱領”을 提示했다. 當時 체코슬로바키아 黨 및 政府代表를 歡迎하는 群衆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發表된 同綱領은 (1) 南北韓 間의 軍事的 대치상태의 解消와 緊張狀態의 止揚, (2) 南北韓 間의 多方面의 걸친 合作과 交流의 實施, (3) 全民族 範圍에서의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大民族會議 召集, (4) 단일 國號에 의한 南北韓 聯邦制 實施, (5) 두개의 朝鮮 造作의 근절 등이었다.

그중에서 특히 南北韓 間의 軍備統制의 問題와 關聯해서 볼 때 (1)項이 注目을 끌었다. 金日成은 (1)項의 구체적인 實施를 위해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의 中止, 모든 外國軍隊의 撤去, 軍隊와 軍備의 縮小,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의 中止, 平和協定の 締結 등을 되풀이 해서 主張하였다. 이 5大綱領은 그후 北韓의 統一 政策 내지 統一戰略의 근간으로 계속 주장되었다.

그후 1980年에 열린 勞動黨 第6次 黨大會에서 北韓은 南韓과 北韓에 있는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두고 서로 聯合하여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聯邦國家의 國號를 使用하여 統一을 實現할 것을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현존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고 駐韓美軍을 철수해야 한다는 立場을 내세웠다. 그리고 “聯邦國家”가 樹立된 後 施行할 10大 是正方法 中 南北韓 사이의 軍事的 대치상태를 解消하기 위해 雙方의 軍隊를 각기 10萬~15萬으로 줄이고 南北韓에 있는 모든 軍事施設을 除去하며 나아가 “民族聯合軍”을 組織하여 外來侵略으로부터 民族을 보위할 것 등을 提示하였다. 그후 1984年 1월에 열린 北韓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聯合會議에서 北韓側은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체와 駐韓美軍의 撤收를 論議하기 위해 美國과 南北韓의 3者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다.

北韓은 최근에 들어 政治, 軍事問題에 대한 協商提議를 더욱 增大시켰다. 1986年 6월 17일 北韓側은 인민무력부장, 韓國 國防부장관 및 유엔군사령관 간의 3자 平和會談을 開催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서 北韓 人민무력부장 오진우는 한반도에서 戰爭危險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1) 軍事練習과 武力增強의 中止, (2) 兵력과 軍비의 縮小, (3) 休戰協定の 준수, 韓半島의 긴장완화 등과 관련된 문제 등을 論議할 것을 主張했다.⁵⁹⁾ 같은 해 12月 31日에는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1차 會議에서 北韓은 金日成의 시정연설을 통해 南北韓 間의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회담에는 南北韓 고위당국과 군사실력자가 參加해야 하며 討議 의제로서는 (1) 상호비방과 중상의 금지, (2) 南北韓 사이의 多方面的 合作과 교류, (3) 武力縮小와 軍備競爭中止, (4)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5) 대규모 군사연습 中止, (6) 中立國 감독위원회 회원국인 체코,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군사요원들로 中립國 감시군의 조직, (7) 기타 南側이 제의하는 의제 등의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의

내용들은 1987년 1월 11일 서신을 통해 南韓側에 정식 전달되었다.

또한 1987년 7월 23일에 北韓은 공식성명을 통해 南北韓 減軍을 위한 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南北韓 및 美國이 參加하고 中立國監視委 代表들이 음저버로 參加하는 다국적 군사협상을 1988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2) 軍縮協商을 통해 1988-89년간 3段階에 걸쳐 南北 쌍방의 軍事力을 縮小하여 1992년부터 各各 10만 이하의 兵力을 維持한다.

(3) 駐韓 美軍도 段階的으로 撤收하여 南北韓 軍事力이 10萬으로 縮小되면 美軍은 核武器를 包含한 모든 군사기지를 철폐한다.

(4) 비무장지대를 平和地帶化하고 同地域에는 평화감시군을 配置한다.

(5) 北韓은 금년 말까지 人民軍 10만명을 일방적으로 縮小한다.⁵⁹⁾

1988년에 들어서도 北韓은 다국간 軍縮會談의 必要性을 되풀이 強調했으며, 同年 8월 19일에는 南北韓 國會會談을 위한 豫備接觸에서도 南北不可侵에 대한 共同宣言등 軍事問題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11월 7일에는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委員會 상설회의, 政務院의 연합회의에서 北韓側은 “平和保障 4原則”과 “包括的 平和保障 方案”을 採擇하고 이를 論議하기 위해 南北高位級 軍事會談 開催를 제의했다. “平和保障 4原則”이란 (1) 두개의 조선 반대 및 統一의 指向, (2) 駐韓美軍撤收 擔保, (3) 南北 軍縮에 대한 담보, (4) 당사자대화(南北韓 및 美國)의 實現이다. “包括的 平和保障 方案”은 段階的 美國 武力 撤收 및 南北 軍縮方案과 政治, 군사적 대결상태의 緩和方案으로 區分되어있다. 前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美軍武力을 段階的으로 撤收시킨다. 핵무기는 90년까지 2段階로, 駐韓美軍兵力은 91년까지 3段階로 撤收시킨다. (2) 南北韓의 武力을 91년까지 3段階로

減縮시켜 武力의 均衡을 維持한다. (3) 駐韓美軍의 撤收와 南北韓 武力의 減縮에 대하여 상호통지하고, 中立國 監視委員團의 權능을 확대하여 이를 검증토록 한다. (4) 段階的인 美軍武力撤收와 南北韓 武力減縮 問題의 協議, 해결을 위해 北南韓과 美國이 參加하는 3者會談을 개최한다.

한편 “包括的 平和保障 方案”중 정치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1) 상호비방, 증상의 중지, (2) 相對方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시키는 정치행사 중지 및 상대방 體制 否定을 위한 法規 撤廢 (3)多方面에 걸친 合作, 교류 실현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대결상태 緩和의 方案으로써, (1)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2) 大規模 軍事練習中止, (3) 군사 분계선 일대 陸·海·空에서의 일체 軍事行動의 중지, (4) 우발적인 돌발사건의 방지를 위한 高位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등이 제시되었다.

대체로 北韓은 1980年代 중반 이후에 들어서부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南北韓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관련된 제안들을 내놓았다. 軍비통제에 관한 제안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의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할지라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南韓의 경우는 非軍事的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相互信賴構築과 南北韓 불가침협정체결, 그리고 民族的 화해와 共同體 형성에 관심을 집중시켜온 반면에 北韓의 경우는 처음부터 駐韓美軍 武力의 撤收와 南北韓 軍備減縮 및 平和協定締結 등 比較的 急進的인 軍備統制 방안들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3. 軍備統制의 可能性

南北韓 間에 어떠한 形態로든 軍비통제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南北韓 間에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緩和 시키는데서

부터 軍縮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政治的, 軍事的 爭點들에 대한 協議와 해결을 위한 軍事會談의 개최 가능성은 增大되고 있는가?

이 問題를 檢討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軍備統制問題와 관련해서 南北韓이 접근해 온 過去의 과정과 經驗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서도 技術된 바와 같이 南北韓은 “7.4 南北共同聲明”의 發表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도 雙方의 協商이나 合意를 통해 軍事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본 經驗이 없었다. 대부분 어느 一方의 상대방에 대한 提案이나 선언의 형태로 끝났으며 그것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韓半島 軍備統制 문제에 대한 實際的 接近이라기 보다는 어느 일방의 對外的 선언이나 이미지 改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南北韓이 軍備統制와 相關해서 제안한 내용들 중에는 現實的으로 實踐可能性을 포함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규범적 속성들을 特徵으로 한 것들이 많았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北韓의 결정이나 제안들은 본질상 매우 急進性과 包括性을 띤 것들이었기 때문에 南韓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南北韓 軍備統制는 어느 一方에 의한 선제적 행위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雙方間의 協商과 타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一方이 아무리 論理的인 提案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提案은 實效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지난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南北韓 關係에서 어떤 效果的인 軍비통제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제안들의 規範性과 現實性간의 깊은 罅(gap)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

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南北韓 間의 뿌리깊은 相互不信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分斷과 더불어 理念上 體制上 갈등의 深化 現象이 南北韓 間에 일어났으며, 특히 6.25 戰爭과 그 후의 군사적 대치는 더욱더 상대방을 信賴할 수 없게 하였다. 相互不信의 壁이 높을 때, 그리고 상호간의 軍事的 威脅이 常存한다고 인식될 때 軍備統制의 제안들은 어떠한 것이든 결코 現實化 될 수 없게 된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北韓의 軍縮이나 緊張緩和 등과 같은 軍備統制 提案들이 대부분 南韓社會가 내부적으로 政治的 混亂과 격변기를 겪고 있을 때 나왔다는 사실이다. 1960년에 4.19로 인해 韓國政治가 混難을 겪고 있을 때 北韓은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提示했고, 또한 駐韓美軍撤收와 南北韓 軍備減縮을 제안했으며, 1980년에도 마찬가지로 韓國社會의 政治的 격변기에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對南 戰略遂行이 對外的으로 不利한 雰圍氣를 맞게 되거나 자신의 孤立化를 가져오게 될 경우 역시 對南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1960年代末 北韓은 자신이 행한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EC-121 추락사건 등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不利한 立場에 處하게 되었다. 그후 北韓은 1970年代에 들어 對南政策 혹은 戰略을 바꿔 “7.4 南北 共同聲明”을 發表하게 되었고 비교적 軍備統制와 관련된 提案들을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1980年代 중반 이후에도 버마 랑군 테러사건에 이어 北韓이 “3者會談” 개최와 軍備協商은 개최 등을 提案하게 된 것은 전혀 우연의 一致라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事態進展들은 비교적 과거와는 달리 南北韓 間의 軍備統制

에 대한 접근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는 여건들이 造成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必要가 있다. 그 몇가지 徵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南北韓이 다같이 過去에 비해 雙方間의 軍事問題 論議나 해결에 비교적 融通性 있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特히 南韓의 경우 過去에는 北韓의 提案들을 革命統一戰略의 手段으로 일축해 버린데 비해 최근에는 南韓 自體가 比較的 問題에 대한 接近意圖를 增大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한 準備를 進行시키고 있음은 새로운 사태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北韓의 軍事問題에 관한 提案들이 比較的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도 留意해 볼만한 것이다. 駐韓美軍이나 南北韓 軍備의 段階的 撤收 및 減縮提案, 그리고 相互信賴 회복과 관련된 중상비방의 중지 등을 提案內容에 包含시키고 있는 것은 특이한 점들이다. 아직도 北韓이 對南 革命統一戰略이나 武力使用의 의도 등을 完全히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明視的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스스로 부분적이거나 對外的 開放을 推進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후계체제나 경제체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北韓도 對南戰略이나 統一政策에 있어 어떤 變化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立場에 처해 있음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역시 한반도 주변 國際環境의 變化가 南北韓 間의 緊張緩和나 軍縮에의 접근을 促進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蘇聯과 中國 등 社會主義 國家들이 改革과 開放을 推進하고 있고, 특히 韓半島를 包含한 東北亞 地域의 安全과 安定을 對外政策上 중요한 目標로 設定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南北韓 관계도 그러한 國際的 環境의 變化를 전혀 도의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南北韓 間의 軍備統制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推進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겠다. 軍備統制의 問題가 결코 短時日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경우 雙方間의 긴 協商過程을 통해서만 해결의 가능성이 發見될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이를 위한 南北韓 間의 會談 開催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하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問題는 軍備統制協商에 임할 때 구체적으로 相互信賴를 構築해 나가고 동시에 필요한 技術的 課題들을 解決해 나가려는 政治的 結論을 導出해 내는데 있다.

V. 韓半島 軍備統制 모델의 摸索

1. 軍備統制의 基本 前提

韓半島의 軍備統制 問題를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에서 그 전제들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韓半島의 軍備統制는 개별 獨立國家들 간의 問題로서 提起되고 또 그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라 韓民族이 두개로 분리된 政治的 실체들 간의 問題라는 점에서 그 特殊性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 軍備統制의 보편적 概念의 적용 한계성이 內在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南韓과 北韓이 個別的 國家體制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대방을 하나의 獨立된 國家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軍備統制 問題를 접근할 때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軍備統制 문제를 포함한 南北韓 관계에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접근시각이 냉철한 현실적 판단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當爲的, 感情的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적용시키려는 傾向이 強하게 나타난다. 같은 民族이면서 분리된 두개의 政治的 실체들 간의 軍備統制 問題는 구범적인 側面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認識될 수 있으나 實際로는 오히려 問題 解決의 접근이 一層 더 複雜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같은 민족 내의 두개의 상이한 政治的 실체들 간의 상호 信賴構築과 협상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韓半島의 軍備統制는 다른 국가들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기본적으로 南北韓의 個別的인 政治的, 軍事的 安全과 安定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전제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南北韓 關係의 안정을 增進시키는데 寄與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도한 軍備競爭이 南北韓 關係를 위태롭게 不安定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急進的 軍備統制의 추구도 雙方 關係의 均衡을 破壞할 수 있다는 점에서 軍備統制는 南北韓의 安定을 保障해 주는 方向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休戰體制가 成立된 以後 南北韓 關係는 正常的인 安定된 體制를 形成, 維持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狀況에서 相互間의 軍備統制에의 접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效果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軍備統制가 韓半島에서 不安定한 平和를 계속 維持시키는 方向에서 推進될 경우, 그것은 오히려 南北韓 關係를 惡化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軍備統制 體制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 南北韓 間의 軍事, 戰略的 關係를 安定化시키고 나아가 對峙구조를 緩和시키는 手段으로 推進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일방의 戰略的 利益에만 寄與한다면 韓半島에서 軍事的 均衡을 崩壞시키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서는 正當한 手段으로서 그 價値를 認定받을 수 없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여기서 軍備統制의 概念은 위기관리나 安定體制를 構築하는데 伸縮性 있는 段階으로 使用되어야 한다고 主張되지만 동시에 現實的 狀況에 適用될 경우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세째로 韓半島에서 軍備統制 문제가 어떤 方式이든 接近될 경우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南北韓 關係 속에서 시도되어 진다는 사실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南韓과 北韓은 相互關係를 改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分斷을 固定化시키면서 不信과 적대감을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갔다. 이는 많은 要素들에 기인되지만 그 중에서도 (1)경직된 이데올

로기의 통과, (2) 體制上의 不兩立性, 그리고 (3) 戰爭經驗과 軍事的 대치상태의 持續등의 요소들이 크게 起因된 것으로 풀이된다. 戰後世界에서 民族分斷이 이루어진 곳으로 中國, 西獨, 베트남의 경우들이 있지만 현재 까지 韓半島의 경우처럼 分離된 두 地域間에 徹底한 分斷과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南北韓 關係는 높은 불신과 긴장의 壁에 의해 그 特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軍備統制의 概念이 適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自體가 상당한 限界性을 갖게 됨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戰爭을 經驗한 이후 南北韓은 軍縮을 포함한 軍備統制 문제와 관련된 多樣한 제안들을 제기했거나 또는 “7.4 南北共同聲明”의 경우처럼 雙方合 合意에 의한 조치들을 講究했음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레짐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은 바로 相互不信과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떠한 代案이 제시되든 그것이 다른 目的을 위한 위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軍備統制 協商이나 그의 레짐의 형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南北韓 間에 軍事的 문제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相互 信賴構築을 위한 예비적 시도들이 可視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로 韓半島의 軍備統制 接近에서는 궁극적으로 民族統一에 肯定的인 機能을 할 수 있는 方向에서 推進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分斷과 對峙의 現實狀況에서부터 平和的 民族統一을 實現하는 目標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中間段階의 措置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武力에 의한 民族統一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전제할 때, 南北韓 間의 軍비통제는 統一을 향한 不可避한 과정으로 모색되어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軍備統制가 어느 일정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實質的으로 軍縮의 成果를 가져오기보다는 現在 水準에서 軍備를 동결시키거나 또는 部分的으로 제한시키는 데 限定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 상유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軍備統制가 韓半島에 서의 現象變化에 기초한 平和的 統一基盤을 조성하는 과제와 어떻게 連結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南北韓 간에 軍備統制의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최소한 雙方間의 接觸과 對話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軍事分野와 같은 중요한 領域에서 意思疎通의 通路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점차 進展을 보게 될 경우 南北韓 軍備統制는 軍事的 對峙와 軍備競爭에서 有發될 수 있는 우발적 衝突이나 戰爭의 危險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南北韓은 당장 統一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雙方關係를 管理하고 조정하며 나아가 統合할 수 있는 機會를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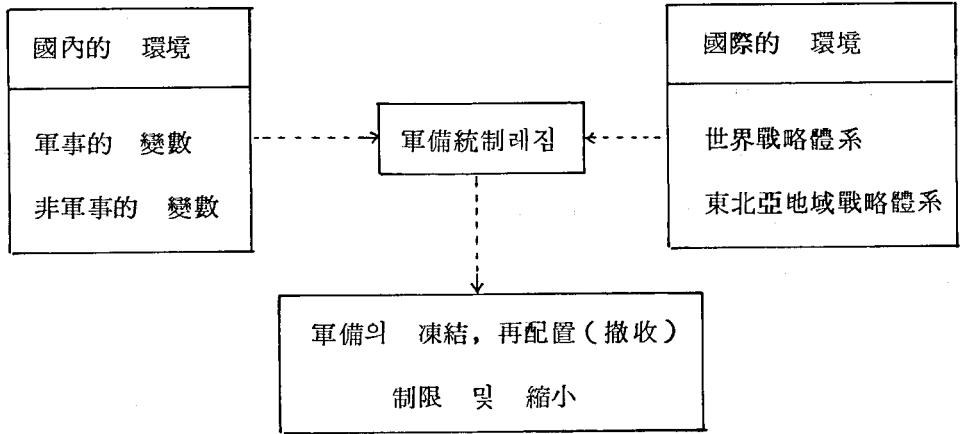
2. 軍備統制레짐의 機能化

韓半島 軍備統制의 必要性이 認定되고 그의 機能과 효과가 肯定的으로 評價된다 할지라도 주요한 問題는 그것을 實際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집중된다. 그동안 南北韓은 政治, 經濟, 文化 등 제 분야에서 接觸과 對話를 進行시켜왔고 (종종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相互交流(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 등)를 實現시켜온 經驗들도 갖고 있지만, 軍事的 分野에서 軍備制限이나 縮小를 위한 協商을 전개하거나 어떤 合意를 실현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또 雙

方間에 直通電話假設과 같은 軍備統制와 間接的으로 연 關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그의 기능은 持續的으로 維持되지 못했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軍備統制 問題를 접근해 나간다고 할 때 이는 南北 韓 分斷史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사려깊은 분석과 통찰이 요망된다. 이와 關連해서 여기서는 시험적 段階로서 일종의 連繫(linkage)모델이 檢討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韓半島 軍備統制 問題는 本質的으로 軍事的 분야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고 非軍事的 分野에서 提起되는 다양한 爭點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나아가 南北 韓 개별 實체들간의 雙方關係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地域 戰略體系와 같은 國際的 環境과도 密接히 關連되고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는 統一을 향한 過程에서 어떤 規範과 節次와 같은 레짐의 형성을 포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軍備統制레짐은 그와 같은 다양한 爭點들과 環境들로부터 影響을 받아 韓半島 軍事 問題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산출해내는데 必要的 原則이나 행위규범 및 절차등을 意味하게 된다. 南北 韓間에 軍備統制레짐이 形成될 경우 軍備統制와 關連된 具體的인 결과들을 容易하게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이유가 있게 된다. 이를 간단히 圖表로써 表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表 3] 軍備統제의 連繫모델



우선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은 南北韓間에 軍備統制레짐을 하나하나 形成해 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南北韓이 다같이 軍備統制에 대한 중요성이나 原則에 대한 認識에 있어 공감대나 합의를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節次나 行爲規範을 造成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南北韓이 軍備統制問題의 해결과 관련된 어떤 合意를 이룩했을 경우 그것을 合理的으로 지키려는 意志를 雙方이 共有하는 일이 軍備統制레짐의 維持를 위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레짐이 어떤 具體的인 成果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는 國內外的 環境이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된다. 먼저 國內的 環境을 考慮해 보면 이는 크게 軍事的 領域과 非軍事的 領域에서 提起되는 다양한 變수들이 檢討될 수 있다. 軍事的 領域에서는 南北韓이 個別的으로 保有하고 있는 軍事能力(現在力과 潛在力)과 軍事戰略體系 및 軍事 리더쉽 등이 重要한 變數들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南北韓이 각기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과 相對方 軍事力에 대한 評價等은 雙方間의 軍備統制레짐의 機能遂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一般的으로 該當國家들간에 軍事的 均衡이 이루어졌다고 判斷될 때 그들간의 軍備統制레짐에 대한 共通적 理解關係가 摸索될 수 있다는 점에서 南北韓이 자기 保有하고 있는 軍事力과 그에 대한 評價는 雙方間의 軍備統制에 있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南北韓間의 軍事的 關係가 相當한 정도로 不均衡 상태에 있고 서로간의 위협에 대한 認識이 高調될 때 軍備統制의 實際的 成果는 期待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그 경우 軍備統制는 오히려 어떠한 手段에 의존하던 雙方間의 軍事的 均衡을 이루는데 最大의 關心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軍備統制레짐의 機能에 있어서는 非軍事的 領域에서도 軍事的 領域의 경우에 못지 않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重要的 變數들이 고려될 수 있다. 즉 1) 政治的 變數로서 政治體系의 安定性과 統合性, 政策決定過程, 政治的 리더쉽 2) 經濟的 變數로서 經濟發展程度, 技術發達의 水準, 生産體系의 效率性 3) 社會, 文化的 領域에서 社會階層構造(갈등 혹은 協力構造), 人口學的 特性, 教育水準등이 각각 檢討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便宜上 軍事的 變數들과 非軍事的 變數들이 分離되어 檢討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은 密接한 相互關聯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軍事力水準은 南北韓 個別社會의 經濟發展 程度나 技術수준등과 직접적으로 連繫되어 있는 것이며 軍事戰略體系의 構造와 機能은 不可避하게 政治的 리더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또한 南北韓의 軍事力은 個別社會의 政治體系의 安定 程度와 統合能力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政治的으로 分裂되어 있거나 不安定한 상태에 처한 곳에서 그의 軍事力은 아무 리 量的으로 優勢한 立場에 있다 할지라도 質的인 면에서는 그만큼 效果를 期待하기 힘들다. 앞서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南北韓의 軍事的 關係는

北韓이 적어도 量的으로 優勢한 立場에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그것은 南韓의 安全에 대한 주요한 威脅의 構成要素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南韓 社會의 經濟能力이나 人口數 등을 고려해 볼 때 머지않아 그러한 不均衡은 是正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또한 北韓의 政治體制가 갖고 있는 構造的 特性, 즉 全體主義的 獨裁體制的 特性은 北韓의 軍事戰略體制가 攻擊的 성향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重要한 變數로 作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南北韓關係의 軍事的, 政治的 不安定性은 쉽게 解消될 수 없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軍備統制레짐의 機能과 關聯해서 볼 때 南北韓 關係에서 軍事的 領域에서의 變數들과 非軍事的 領域에서의 變數들간에는 相互補完性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排除할 수 없다. 예를 들면 軍事的 領域에서 雙方間에 어떤 合意나 共通된 措置들이 취해질 때 그것은 非軍事的 領域에서의 關係調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非軍事的인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인 領域에서 접촉이나 交流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軍事的 關係의 改善이나 安定化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南北韓이 現水準에서 雙方 軍事力을 凍結하는데 合意했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具體的인 節次들을 共同的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雙方間의 政治的 接觸이나 經濟的 交流를 보다 더 安定된 바탕위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非軍事的 領域에서 南北韓이 相互信賴를 構築할 수 있는 措置들을 취하게 될 때 이들 또한 軍備統制레짐의 機能強化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南韓에 의해 제기된 軍備統制問題와 關聯된 提案들은 바로 非軍事的 領域에서의 相互信賴構築과 相互利益을 圖謀하려는데 目的을 둔 것들이었다. 經濟的 交流나 社會文化的 접촉등과 關聯해서 南韓은 北韓

과의 關係에서 優先的으로 信賴를 構築하고 이를 바탕으로 政治的, 軍事的 問題들을 協議해 나가자는 立場을 취해왔다. 이것은 基本的으로 南北韓關係가 高度의 不信關係에 있기 때문에 雙方의 個別的 體制維持나 安全에 敏感하게 關聯된 政治的, 軍事的 領域에서의 問題接近은 實質的으로 어떤 解決點을 찾기 힘들다는 判斷에 基礎한 것이었다. 그러나 南韓의 非軍事的 領域에서의 信賴構築을 위한 提案들은 北韓의 消極的・微溫的인 反應으로 인해 實效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最近의 趨勢는 韓半島 軍備統制레짐의 機能遂行을 위해 軍事的, 非軍事的 領域들에서 다같이 南北韓이 相互接近을 試圖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서 그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北韓의 “南北韓高位軍事會談” 開催 提議나 南韓의 軍縮에 관한 提議들은 바로 그와같은 새로운 趨勢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變數는 南北韓의 政治 리더쉽의 意志와 決定이다. 만약 南北韓의 政治指導者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軍備統制레짐의 形成이나 그의 機能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경우 雙方間의 軍備統制協商은 展開될 수 있고 또 具體的인 成果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決定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問題點들이 合理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相互軍事的 抑制力에 대한 精確한 認識과 이를 기점으로 한 雙方間의 政治的, 經濟的 相互關係를 增進시켜 나갈 수 있는 措置들을 講究하는 일이 매우 重要하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變數들 보다도 政治的 리더쉽의 역할에 期待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國內的 環境以外에 國際的 環境 또한 韓半島 軍備統制레짐의 形成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看做된다. 이는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南北韓의 軍事, 戰略的 環境이 바로 國際戰略的 環境과 密接히 連繫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國際的 環境은 크게 보아 世界戰略體系와 東北亞地域戰略體系로 區分해 볼 수 있다. 韓半島는 戰後秩序를 樹立하는 過程에서 부터 美蘇間의 世界戰略的 利益을 競爭的으로 추구하는데 중요한 價値를 가지고 있는 地域으로 取扱되었다. 分斷 자체도 그러한 戰略的 利益의 相互作用의 結果와 직접적으로 連繫된 것이었고 6.25 戰爭도 그 起源이야 어떠한 世界的 水準에서의 東西對決의 延長으로 進行되었고 또 終結되었던 것이다. 이 戰爭은 바로 冷戰時代의 도래와 깊이 연관 되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美國은 韓國戰爭을 契機로 世界的 水準에서나 地域的 水準에서 다같이 封鎖 (containment) 戰略을 강화시켰으며, 蘇聯도 마찬가지로 膨脹戰略으로 對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南韓은 1953年 韓美相互防衛條約의 체결을 통해 美國의 封鎖戰略體系下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北韓은 1961年에 蘇聯 및 中國과 각각 軍事同盟體系를 형성함으로써 蘇聯의 世界戰略體系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서 韓半島에서의 두개의 韓國(조선)은 美蘇間의 競爭的인 世界戰略의 변화에 의해 影響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70年代 初와 같이 美蘇間의 和解關係가 구체화 되었을 때 그것은 南北韓의 競爭的인 世界戰略體系와의 關係를 변화시키는데 影響을 미쳤다. 즉 그것은 南韓으로부터의 美軍撤收(닉슨 行政府時)와 北韓의 獨者路線의 추구 등을 可能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나마 南北韓 關係에서 相互適應試圖를 增進시키는 效果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1970年代 初에 있었던 南北韓間의 對話時代는 바로 그와 같은 國際的 環境에 影響

을 받은 것임을 무시 할 수 없다.

반면 美·蘇關係가 硬化되거나 對立性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경우 韓半島 狀況도 대치와 대결의 양상을 增大시키는 현상을 보이곤 했다. 197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부터 美國이 對蘇 대당트關係를 再檢討하기 시작하고 특히 레이건 政府가 對蘇强硬路線에 기반을 둔 對外政策을 推進함으로써 南北韓 關係도 冷戰關係의 재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결국 그만큼 韓半島戰略的 狀況은 美-蘇間의 世界戰略的 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軍備統制레짐의 機能遂行에 있어서도 그러한 世界戰略的 양상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80年代 후반에 들어서부터 世界戰略的 양상은 다시 美蘇間의 INF 協定締結이나 고르바초프의 撤軍 및 軍縮에 대한 일방적 宣言이나 그의 구체적 實踐으로 새로운 和解와 協力の 시대로 展開되고 있다. 蘇聯의 그와같은 平和이니셔티브는 美國이나 西邦國家들로 하여금 軍縮을 포함한 軍備統制問題에 관심을 갖게 했고, 따라서 世界는 전반적으로 東西關係의 改善등을 포함한 새로운 질서를 模索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韓半島 軍備統制의 문제를 전개시키는데 있어서도 특별히 고려해야 할 世界戰略體系上的 새로운 변수인 것이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韓半島 軍備統制레짐의 機能에 影響을 미칠수 있는 國際的 環境은 바로 韓半島가 위치하고 있는 東北亞地域 戰略體系이다. 이 地域 戰略體系도 世界戰略體系와 密接히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區分되기는 어려우나 몇가지 점에서 特殊性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東北亞地域戰略體系는 美國과 蘇聯, 中國, 日本 등 4大強國들을 주요행동자로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特徵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 日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國家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地域戰略體系는 世界 어느지역의 경우보다 높은 水準의 軍事力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 地域 戰略體系는 구성행동자들 間의 相互作用關係를 조정하거나 管理할 수 있는 집단적 安保體系나 危機管理體系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또한 하나의 特徵으로 指摘될 수 있다. 美·日 安保體系등과 같은 雙務的인 安保協力體系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地域 구성국가들을 전체로 포함하는 집단적 安保體系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東北亞地域 戰略體系는 불안정성의 潛在性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美國과 蘇聯이 이地域에서 서로 戰略的 競爭을 전개하고 있고 中國도 核國家로서 獨自的 戰略路線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面에서는 戰略的 삼각관계에서 均衡과 抑制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반면 상당한 정도의 불안정성을 회피하게 어렵게 되어있다. 그 結果 東北亞地域에서는 소위 勢力政治 (power politics)에 의한 現實主義的 戰略體系만이 可能할 뿐 이를 극복한 相互協力과 統合의 可能性을 증대시키는 地域的 危機管理體系나 安保體系의 出現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判斷된다.

세째로 東北亞地域戰略體系를 형성하고 있는 主要 行動者들인 4大強國들은 각기 상이한 文化的 유산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兩立하기 힘든 理念 및 體系를 유지하고 있다. 크게 보면 社會主義 理念을 표방하고 있는 蘇聯과 中國이 한편에 있고 自由民主主義를 추구하는 美國과 日本이 또 다른 한편에 있다고 區分해 볼 수는 있겠지만, 內面的으로는 蘇聯과 中國도 서로 中·蘇 갈등관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로 競爭 關係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美國과 日本도 貿易 摩擦의 경우처럼 상당한 정도로 國家的 利益을 달리고 있는 側面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地域에서는 가까운 시일안에 유럽의 경우처럼 EC 統合이나

東西間의 상호의존성 증대 또는 地域的 集團安保體制의 형성과 같은 현상들의 출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최근의 경향은 이地域에서는 安保爲主의 國家對外行動이 줄어들고 그대신 經濟交流나 貿易등과 같은 非軍事的 分野에서의 다각적 相互協力이 摸索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제로 각기 獨自의 利益을 추구하고 있는 4大強國들이 다각적으로 韓半島에 대해서도 깊은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國家能力이나 規模에 비해 韓半島는 4大強國들과 현격한 非對稱的 關係에 있지만 그들의 戰略的 觀點에서 볼 때 韓半島의 비중은 매우 높게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 問題의 해결이 아무리 南北韓 스스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게 된다. 아직도 美國과 蘇聯이 南韓과 北韓의 主要 武器供給處로 남아 있고 또 각기 軍事的 同盟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들의 韓半島에 대한 戰略的 고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과 日本도 아직 美國이나 蘇聯과 같은 初強大國의 위치에 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韓半島問題와 같은 地域的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그들의 個別的인 目標나 東北亞地域에 대한 戰略的 利益을 고려해서 4大強國들은 韓半島의 現狀이 유지되는 한에서 南北韓 關係의 改善이나 安定化를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韓半島에서 새로운 紛爭이나 戰爭이 발생할 경우 이地域 전체의 世界均衡維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韓半島의 현상유지와 안정된 南北韓 關係의 改善을 希望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韓半島 軍備統制는 東北亞 地域戰略體系의 기본 목표와 兩立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軍備統

제에의 접근은 本質的으로 갑작스러운 현상변화를 摸索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상에서 檢討한 바와같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影響을 받아 機能하게 될 韓半島 軍備統制레짐(南北韓間에 어느정도 형성될 경우)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의 措置들(혹은 결과들)을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이 問題는 우선 레짐의 效果的인 機能遂行이 이루어질 때 최소한 軍事的 領域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에서 回答이 摸索되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南北韓 軍事力을 현 水準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軍備支出의 현 水準에서의 동결이나 새로운 武器開發의 中止, 외부로부터의 武器搬入의 禁止 또는 軍人力의 새로운 동원금지 등 다양한 措置들을 포함한다. 南北韓 軍事力의 동결은 적어도 雙方이 相互軍事力抑制와 均衡의 유지를 통해 個別的으로 對外的 安全이 보장될 수 있다고 인식하거나 믿게 될 때에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쌍방의 軍事的 能力을 完全히 破壞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判斷될때, 다시말하면 功擊力이 防禦力을 충분히 능가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 南北韓 軍事力 동결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南北韓이 休戰線을 중심으로 配置하고 있는 軍事力을 서로 弛緩시켜 後方으로 移轉시키는 것이다. 현재에는 쌍방이 인접한 地域에서 대량의 軍事力을 配置시켜 놓고 따라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奇襲功擊의 危險性을 潛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이 軍事的 緊張이나 대치 상태를 緩和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결적 軍事力 配置構造를 변경시켜 각기 前方에 配置된 軍事力을 後方으로 이전시키는 措置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南北韓 중 어느 한쪽이 취하고 있는

攻勢的 軍事戰略 態勢를 防禦的 軍事戰略 태세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功擊도 防禦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쌍방간의 軍事的 충돌이나 危機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戰略上 攻勢的 자세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쌍방이 공동적으로 非武裝地帶의 범위를 넓혀 이地域을 非軍事化하는 措置를 講究하는 것도 軍備統制레짐의 중요한 機能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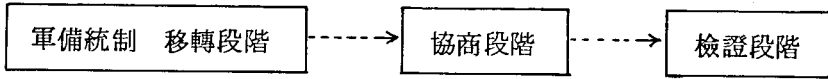
세제는 南北韓의 軍事力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軍備制限은 매우 복잡한 問題이다. 이것은 쌍방이 人力이나 특정한 軍備를 制限시키는 問題에서 부터 전면적인 軍備制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의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危脅을 줄 수 있는 軍備領域에서부터 南北韓이 그의 制限協定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功擊武器의 제한에서부터 쌍방이 問題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軍備統制레짐의 機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 科學技術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새로운 武器들이 開發되고 있기 때문에 한 種類의 무기에 대한 制限措置가 전체적으로 軍備統制의 效果를 어느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問題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備統制의 概念에서 제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바로 軍備制限에 대한 該當國家들의 合意가 相互信賴나 利益을 증진시켜 또 다른 措置들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南北韓間에 어느 한 種類의 武器에 대한 제한에 쌍방이 合의를 보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그것은 곧 다른 種類의 武器制限에도 쉽게 쌍방이 合意를 볼 수 있도록 軍備統制레짐의 機能擴大를 可能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南北韓이 상호간에 本格的인 軍縮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軍縮問題는 제안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效果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歷史上 世界 平和와 安全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에서 軍縮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提起되어 왔지만 그의 결과는 軍縮概念에 대한 實效性을 의문시하게 할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 오히려 현실주의 立場에서 볼때 軍縮은 世界 均衡을 破壞하게 되며 결국 戰爭을 유발시킬 수 있는 危險한 것으로까지 看做된다. 그러나 軍備統制레짐의 이상적 目標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軍事力을 減縮하거나 縮小시키는데 있다. 韓半島에서 軍縮과 관련된 제안은 北韓에 의한 南北韓의 個別的 軍事力을 10 만으로 減縮하는 것과 南韓으로부터의 外國軍의 撤收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제안들이 얼마만큼 實效性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南北韓 分斷의 현실을 고려해 볼때 쉽게 그 回答이 可能해 질 수 있다. 그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北韓의 그러한 提案이 내포한 政治的, 軍事的 목표가 南韓의 共產化統一 與件造成에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節次的 으로나 技術的으로 南北韓間의 그와같은 軍縮問題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內容들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쉽게 접근되기 困難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軍備統制레짐의 窮極的 機能 遂行이 南北韓間의 軍縮에 관한 協商開催와 그의 成功的인 結果를 가져 오는데 있음에 軍縮은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目標로서 그 價値를 갖게 된다.

3. 軍備統制의 段階的 接近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는 새로운 시도로서 그 效果를 가져오기 위해서 段階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段階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段階들로 區分될 수 있다.

[表 4] 軍備統制의 接近段階



첫번째 段階는 軍備統制 移轉의 段階이다. 이 段階에서는 南北韓이 각기 軍備統制問題를 다루는데 필요한 모든 可能한 措置들을 강구하는 準備가 행해진다. 그러한 準備는 무엇보다도 南北韓間의 相互信賴構縮과 關係改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軍備統制問題를 종합적이고 體系的으로 다룰 수 있는 統合的인 組織體가 形成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軍備統制와 관련된 技術的, 節次的 問題點들이 檢討되고 적절한 대안들이 摸索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南北韓 軍備統制의 問題를 다루게 될 경우 특히 南韓의 경우 그에 대한 國民的 輿論을 형성시키는 과제도 또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南韓社會는 北韓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多元化되어 있고 개방적인 體制를 指向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과의 軍備統制問題 접근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理解와 說得을 바탕으로한 國民輿論의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軍備統制레짐은 보다 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機能을 擴大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 段階에서는 상대방의 軍事能力과 權力構造, 戰略的 목표와 特性 그리고 전체적인 戰略的 상황에 대한 면밀한 檢討와 評價가 행해져야 하고 나아가 相對方이 제시한 軍備統制와 관련한 제안들의 의도와 실현성 與否등에 대한 分析과 判斷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軍備統制와 관련된 자국의 基本立場과 目標를 분명히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協商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利益이 무엇인가에 대한 問題도 檢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段階에서 중요하게 取扱되어야 할 問題는 상대방의 軍事,

戰略的 狀況과 軍事均衡을 올바르게 評價할 수 있는 基準과 方法에 집중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南韓의 경우 北韓의 軍事力이나 戰略的 狀況을 客觀的이고 科學的으로 測定하고 評價할 수 있는 情報蒐集能力을 確保하고 開發하는 問題이다. 왜냐하면 北韓社會 자체가 고도의 閉鎖性을 띄고 있어 軍事情報 蒐集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蒐集된 資料라 할지라도 어떤 基準에 따라 어떤 方法에 의해 그것을 評價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軍事力이나 戰略的 目標을 評價하기 위한 方法의 問題는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두번째 段階는 協商의 段階이다. 이 段階에 이르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상대방의 존재를 사실적으로나 法律的으로 인정하는 措置가 필요하다. 적어도 協商의 對象으로 서로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해야만 軍備統制協商은 可能해 질 수 있다. 또 그러한 인정은 zero-sum 게임 論理보다는 non-zero-sum 게임의 論理에 따라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체계의 형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協商段階에서는 南北韓이 각기 協商展開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手段을 강구하고 또한 協商테이블에 제시할 具體的 案件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안건들에 대한 協議에 들어 들어가기 전에 雙方은 적어도 協商진행에 수반되는 技術的 節次問題에 대한 合意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爲해서는 豫備會談과 本會談이 區分되어 開催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협상에 必要한 技術的 措置들이 共同으로 모색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을 두게 된다.

먼저 協商테이블에 提示될 案件은 融通性있게 設定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協商自體가 當事者들간의 妥協에 의한 합의도출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치 物件의 價格이 自由市場에서 팔리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간의 최적의 價値獲得點에서 이루어지듯이 協商테이블에 提示되는 案件도 서로간에 利益을 최적의 狀態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妥協過程을 前提로 해서 設定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軍備統制協商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軍事的 秘密과 관련된 問題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協商當事者들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正確한 情報의 蒐集과 그의 管理에 관심을 두어야 할 必要가 있다. 만약 상대방의 軍事秘密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獲得하지 못할 경우 效果的인 協商戰略의 樹立은 어렵게 되며 그 結果 協商이 目標로 했던 최적의 利益을 確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檢證의 단계이다. 이것은 軍備統制協商的 結果로 나타난 合議事項들이 진실로 遵守되고 있는가를 調査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事實 (facts), 陳述 (statements) 및 測定 등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진실성의 與否를 確證하는 것이 基本 目標가 된다.

비록 南北韓이 協商을 통해 軍備統制와 關聯된 어떤 合意나 協定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를 確認하는 過程은 그렇게 容易한 일은 아니다. 그 理由는 軍備統制가 다루고 있는 問題自體가 쉽게 인지하거나 確認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고도의 秘密性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軍備統制 協定에 대한 검증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나 節次가 必要한 것인가 하는 問題는 協商 그 自體의 進行이나 그 結果 못지않게 重要視 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檢證過程은 3가지 側面에서 複合的으로 進行될 수 있다. 첫째는 檢證레짐 (verification regimes)으로 이것은 信賴의 程度를 의미한다. 즉 軍事力 配置形態나 協力程度 및 安保意識에 의해 影響을 받는 政治的 判斷의 適用이 主要 결정요소가 된다. 둘째는 검증방법으로 監視와 探知의 方法論과 關係된다. 여기서 주요 결정 요소들은 探知體系 (monitoring system)의 技術水準이나 現存하거나 或은 計劃된 分析技術의 能力등을 包含한다. 셋째는 검증체계로서 現存 或은 計劃된 有用한 國家的 그리고 國際的 體系의 確立 및 使用을 意味한다. 그러한 體系에는 探知, 綜合, 分析 및 분산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國家的으로나 國際的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推進되고 있는 物理的 施設 (physical hardware)이 包含된다. 現代科學의 발달로 인해 검증기술은 財政的, 物質的 支援이 있을 경우 충분히 開發될 수 있다. 여기서 軍備統制의 概念은 現代 世界에서 더욱 有用하게 適用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軍備統制의 方法

韓半島의 軍備統制가 具體的으로 推進될 경우 그의 具體的인 措置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水準들에서 可能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一方的, 雙務的, 그리고 多邊的 水準들로 區別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軍備統制措置들은 단순히 南北韓의 어느 一方에 의하든, 또는 雙方에 의하든 단순한 宣言이나 提案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措置들이 취해진다면 그들은 實際로 南北韓 關係에 있어 包括的인 軍備統制의 概念 범주에 包含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南北韓間에 緊張緩和나 關係改善등 본래 軍備統制가 추구하는 目標들을 實現하는데

긍정적으로 影響을 줄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1) 一方主義(Unilateralism) : 이것은 韓半島 軍備統制가 南韓과 北韓의 어느 一方에 의해 實現되는 것을 의미한다. 韓半島 軍備統制問題를 接近해 나갈때 반드시 南北韓 雙方의 상호협이나 協定締結을 거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어떤 政策이나 措置들을 취해 나갈 때에는 그들의 效果는 現實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措置들이 취해지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에 최소한의 抑制力(安定된 제 2 타격력 유지등)에 의한 安全이나 安定的 유지가 可能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월등한 軍事力이나 높은 水準의 經濟能力에 의하지 않고 최소한의 防禦能力을 가지고도 自國의 安全이 維持될 수 있다는 戰略的 確信과 評價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軍備統制와 關聯되어 취해지는 일방적 措置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들을 包含해야 한다. 하나는 그러한 措置들은 南北韓間에 相互信賴를 增進시키는데 寄與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相應하는 措置를 誘導해 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방적 措置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껏해야 脆弱性を 반영하는 宥和的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든지 혹은 有利한 戰略的 立場을 強化시키기 위한 機會로 認識되도록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일방의 상대방에 의한 위협을 抑制시키고 自身의 安全을 보장하는 範圍內에서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방적 措置들은 반드시 南北韓 關係가 改善되거나 화해적인 方向으로 進前되는 경우에만 可能的 것은 아니다. 비록 軍事的 대치나 긴장이 繼續 유지되고 있다할

지라도 軍備統制와 關聯된 어떤 措置를 취함으로써 關係改善이 期待될 수 있다고 判斷될 때에는 그러한 措置는 오히려 과감하게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이 일방적으로 軍비통제 措置들을 취할 수 있는 領域들은 크게 보아 軍事的 領域과 非軍事的 領域들로 분리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두 領域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어떤 具體的인 措置들이 취해질 경우 그들은 두가지 領域들로 나누어 모색될 수 있다.

몇가지 實例들을 들어 보면 軍事的 領域에서는 (1) 軍備凍結의 宣言과 實行 (2) 軍事力의 再配置(전방지역에서 후방지역으로의 兵力移動) (3) 테러行爲의 중단 (4) 軍事開發 費用의 縮小 (5) 指揮나 命令 혹은 同盟體制의 改善등이 具體的인 政策이나 戰略選擇의 形態로 推進될 수 있다.

한편 非軍事的 領域에서는 (1) 政治的 誹謗, 宣傳中止 (2) 外交的 對決을 종식시키기 위한 政策宣言 (3) 經濟的 支援과 協力提供, 共同學術研究을 위한 資料提供등 주로 상호 信賴와 利益을 增進시키기 위한 多樣的 措置들이 講究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韓半島 軍備統制를 위한 具體的인 方法들이 상호성에 依存해서만 追求되기 보다는 어느 일방이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雙方間의 軍備統制에 관한 어떤 合意를 끌어내기 위한 前段階로서도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雙務主義(Bilateralism) : 한반도에서의 軍비통제는 原則적으로 南北韓 雙方間의 關係에서 追求되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雙方間에 이루어지는 어떤 合意와 이의 遵守를 통해서만 한반

도의 군비통제는 實效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軍備統制를 위한 雙務主義 原則의 適用은 무엇보다도 南北韓이 直接 對話와 接觸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통로(혹은 協商)의 유지를 必要로 한다. 일방주의 水準에서 취해질 수 있는 군비통제 措置들은 대체로 軍備統制協商을 위한 準備段階에서 講究될 수 있고 實現되어야 할 措置들이라고 規定한다면 雙務主義 水準에서 推進되어야 할 措置들은 協商에 必要한 의제 선정이나, 協商進行에 必要한 節次와 規則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水準에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爲한 必要한 措置들은 그동안 南北韓이 各己 個別的으로 軍縮이나 軍備統制와 關聯해서 提示해온 많은 提安들 속에서 추출될 수 있다. 이들을 包含해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可能한 措置들을 대략적으로 軍事的, 非軍事的 領域들을 합쳐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
- (2) 休戰線을 中心으로 한 전진배치 병력의 후방에로의 移動
- (3) 선제공격용 무기생산의 中斷과 配置 禁止
- (4) 現 水準에서의 軍事費 支出의 凍結 혹은 점진적 減縮
- (5) 軍人力の 相互減縮
- (6) 生化學武器 使用禁止 및 廢止
- (7) 非軍事目標 公격 제한
- (8) 大規模 軍事訓練制限 및 禁止
- (9) 非武裝地帶의 非軍事化 유지를 감시하기 위한 中立國 監視團 組織과 活用
- (10)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 (11) 상호불가침 協定 締結
- (12) 軍事指導者들간의 接觸과 協議 通路 마련
- (13) 高位 軍事組織體들간의 直通電話 架設
- (14) 外國으로부터의 軍裝備 搬入制限
- (15) 外國軍의 한반도에서의 撤收

이상에서 열거된 것들 以外에도 韓半島 軍備統制를 위해서는 많은 다른 提案이나 方案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協商이 開催될 경우 이의 效率的인 進行이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南北韓 雙方이 비교적 合意에 도달하기 쉬운 爭點이나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提案한 南北韓 雙方의 兵力數를 10 萬으로 감군하는 것이나 駐韓美軍의 撤收 혹은 民族聯合軍의 形成 등은 현상에 대한 急進的인 變化를 本質的으로 要求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協商을 통해 쉽사리 어떤 合意點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提案들은 北韓에게만 利益을 줄뿐 雙方關係의 均衡이나 安定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認識 때문에 協商테이블의 의제로서 타당성을 갖기 힘들 것이다. 물론 軍備統制協商이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보아 그 結果 南北韓 關係가 크게 改善될 경우 그들은 窮極的으로 民族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措置로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南北韓 군비협상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상호간의 信賴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協商의 節次나 규범들에 대한 서로간의 合意와 實踐意志가 內面化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協商自體가 政治的 宣傳이나 다른 戰略的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行해진다면 그러한 協商은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進行될

수도 없을 것이다. 南北韓이 1972 年에 7.4 南北共同聲明을 發表하고 南北調節委員會를 中心으로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雙方間的 協商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理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풀이된다. 雙務的 水準에서 한반도 軍비통제를 모색할 때 유의되어야 할 것은 協商의 結果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우선 雙方이 協商에 임할 수 있는 準備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방적 水準에서의 合理的인 軍비통제 準備나 措置들이 講究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3) 多邊主義 (Multilateralism) : 한반도 軍備統制는 一方的, 雙務的 水準에서 뿐만 아니라 南北韓과 주변국가들과의 接觸과 交流속에서 必要한 措置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原則적으로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한반도 軍備統制 문제가 東北亞地域戰略體系와 密接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具體的인 接近도 그러한 地域戰略體系나 體系構成國家들과의 상호작용과의 關係에 바탕을 두고 推進되어야 하고 또 推進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도 한반도를 위한 최선의 軍備統制 措置는 東北亞 軍備統制를 위한 多國間的 協商을 통해 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南北韓과 4 大強國이 參與하는 6 個國 平和會議나 軍備統制會議에서 한반도의 軍備統制 문제도 함께 論議될 수 있고 그 結果에 따라 어떤 實質的인 結果가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南北韓間的 軍비통제에 관한 협상전개나 그의 結果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주변 強大國들의 지지와 보장을 必要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東北亞 6 個國會議 형식을 통해 한반도 軍備統制問題가 論議될 때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결과는 더 큰 實效性을 내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南北韓 당사자의 利害關係가 의도한 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문제시 될 수 있지만 會議 參加國들이 동등하게 參與할 경우 그러한 不合理性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多邊的 水準에서 모색될 수 있는 한반도 군비통제조치들은 3 個國 혹은 4 個國間의 協商을 통해 취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韓國의 蘇聯 및 中國에 대한 接近의 擴大(例: 北方政策의 實施)나 北韓의 南韓 및 美國과의 3者會談 開催의 試圖 등은 다같이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군비문제는 4 個國會談의 開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점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과 中國 및 美國間의 會談이나 南北韓과 美國 및 蘇聯間의 會談처럼 비교적 分斷과 6.25 戰爭 過程에서 한반도와 直接, 間接으로 關係를 맺어온 國家들간의 多國間會談을 통해 南北韓間의 軍事的 緊張緩和나 軍縮과 관련된 問題들이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會談들에서는 開催될 경우 南北韓間의 軍事, 戰略的인 關係改善을 위한 問題들 뿐만 아니라 多國間 外交的, 經濟的 關係의 改善을 위한 問題들이 함께 論議될 수 있고 또 어떤 協定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3者間 또는 4 個國間의 會談들이 開催되어 그들간에 外交, 經濟的 關係의 改善과 協力에 관한 어떤 合意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合意는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環境造成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關心을 끌게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한반도 軍備統制를 促進시키는 波及效果(spillover impact)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은 美國, 蘇聯 및 中國 등 소위 3 個 核武器保有量國家들間的 東北亞 地域에서의 軍備統制에 관한 어떤 협상을 개최하거나 實質的으로 어떤 協定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軍備統制에 肯定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綜合的으로 볼때 한반도의 軍備統制 措置들은 어느 한 水準에서만 가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 水準에서 다른 水準으로 移轉해 가면서 취해질 수 있다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가지 水準들에서 同時的으로 모색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措置들이 한반도 軍備統制와 관련해서 취해질 때에는 두개 이상의 水準들이 同時的, 復合的으로 作用하게 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경우 어느 한 水準에서만 한반도 軍備統制措置들이 취해지는 것 보다 더 確固한 基盤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軍備統制는 어느 수준에서든 實效를 거두기 위해 두가지 분리된 側面들에서 그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運營的措置들(operational steps)과 構造的措置들(structural steps)들이다.⁶¹⁾ 전자는 보다 더 기술적, 절차적 문제들을 포함하며, 후자는 합의하기 힘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포함한다.

우선 운영적 措置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事項들이 포함될 수 있다.

- 1) 어떤 軍事活動에 대한 事前 通告
- 2) 可視的인 軍事活動에 대한 參觀的인 초대
- 3) 年間 軍事活動에 대한 計劃公開
- 4) 軍事視察團의 特定地域에의 파견

- 5)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訓練 금지
- 6) 資料交換
- 7) 軍事作戰의 規模와 形態의 制限
- 8) 非軍事地帶의 設置
- 9) 위험한 軍事活動 금지
- 10) 主要軍事地域에의 연락대표들의 상주

그리고 구조적 조치들로서는 실질적인 軍縮이나 軍縮制限등과 關聯된 다음과 같은 措置들이 모색될 수 있다.

1) 南北韓間의 現存水準 以下로의 軍事力 衡平維持를 위한 雙方地上軍 減縮

2) 段階를 통한 南北韓의 모든 形態의 軍事力 減縮

3) 段階的 駐韓 美軍 減縮

4) 韓半島에의 核武器 配置 禁止

5) 檢 證

결국 韓半島 軍備統制 문제와 관련해서 두 側面들로 區分해서 具體的인 措置들을 취하는 것은 實際로 南北韓間의 軍備會談이 本格的으로 開催될 경우 기술적으로 會談의 進行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措置들은 앞에서 제시된 3가지 軍備統制의 수준들중 어느 수준에서나 취해질 수 있는 內容들을 包含하고 있다. 상당한 경우 운영적 조치들은 대체로 一方主義 수준에서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구조적 조치들은 거의 모두 雙方主義 수준에서나 혹은 多邊主義 수준에서 취해질 수 있는 것들이다.

Ⅵ . 結 論

전반적으로 과거 어느때 보다도 現 時點에서 韓半島 軍備統制의 必要性和 여건조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軍備統制를 接近해 가느냐에 있다. 現在까지 南北韓 關係는 계속적인 軍備競争을 特徵으로 했던 반면, 軍備統制에 관한 아무런 레짐을 형성시키거나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오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經驗을 蓄積해 나가야 하는 것이 韓半島 軍備統制가 直面하고 있는 과제이다.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南北韓이 진정한 의미에서 軍備統制의 概念이나 그의 必要性 및 接近方法에 대한 공통적인 基本認識을 共有하는 것이다. 이는 南北韓 體制의 平和共存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이의 出發點은 南北韓이 相對方의 存在를 認定하고 協商의 相對로서 尊重해 주는 것이다. 비록 어떤 側面에서는 體制競争性を 維持하고 있다 할지라도 雙方이 다같이 軍備統制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積極적으로 수용할 때 한반도에서의 軍備統制 레짐의 形成이나 이를 통한 구체적인 軍비통제 조치들이 可能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南北韓의 接近은 주변 東北亞地域體系가 和解와 協力을 特徵으로 하는 相互依存性を 增大시킬 경우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南韓과 北韓이 각기 軍備統制 協商을 開催하기 前에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예비적 軍備統制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고 팽팽한 대결구조만을 유지할 때 南北韓 軍비통제는 不可能하게 된다. 南韓이든 北韓이든 어느 한쪽이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경우에 비로소 韓半島 軍비통제는 점차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

을 것이다.

南韓이北韓보다도 比較的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社會構造의 다원성과 개방성, 그리고 經濟能力 및 政治的 리더쉽등을 고려해 볼 때 構造的으로 고도의 경직성을 띠고 있는北韓보다는 南韓이 군비통제와 관련된 일방적인 措置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보다 더 유리한 位置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南韓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側面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南韓 內部에서 군비통제에 관한 제반준비를 體系的으로 행하는 일이다. 아직 南韓社會도北韓과의 關係에서 軍備競爭이나 強化에는 익숙해 있을지라도 軍縮이나 군비통제에는 생소한 인식체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南韓의 경우 우선 그러한 社會的 분위기와 구조적 特徵을 점차 變化시키면서 南北韓 關係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接近해 가기 위한 制度的 조정과 政策的 代案들을 樹立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도 南韓의 安全에 대한 效率的인 抑制力 維持는 必須的인 전제조건이 된다. 군비통제는 어떤 수준에서이든 단기적으로 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일방적이든 雙務的이든 그것이 實效性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긴 時間이 必要하게 된다. 군비통제 협상 자체가 유럽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長時間을 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둘째는 南韓이北韓과의 군비통제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필요한 協商戰略을 樹立해 놓는 일이다. 協商戰略을 樹立하는데는 特히北韓의 軍事, 戰略的 狀況과 經濟能力등에 대한 正確한 資料蒐集과 客觀的인 評價基準을 設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후에 南韓의 對北韓 協商戰略의 節次와 手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南韓이北韓과의 군비통제 協商을 展開하려고

한다면 먼저 統一政策이나 對北韓政策에 있어 일관성있는 政策原則을 樹立하고 이의 持續的인 執行을 推進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北韓이 對南戰略을 變更시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南韓의 對應戰略이 여전히 冷戰的인 대결구조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論理는 非現實的인 것이 될 수 있다. 蘇聯, 中國 및 東歐圈 社會主義國家들의 內部體制의 改革과 對外政策의 變化를 考慮해 볼 때 그러한 論理의 非現實性은 자명해진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南韓이 그와같은 새로운 國際環境의 出現 속에서 包括的이고 融通性있는 對北韓政策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政策的 틀 속에서 南韓이 北韓과의 軍비통제 문제를 接近해 나갈때 어떤 效果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째는 南韓이 소련 및 中國과의 相互關係를 어떠한 次元에서든 積極的으로 改善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韓半島 軍비통제를 위한 유리한 우회적 環境을 조성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韓國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北方政策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南韓의 安全에 위협을 줄 수 있는 要素들이 단지 北韓만이 아니라 北韓과 同盟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蘇聯과 中國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소련 및 中國과의 관계 개선은 南韓의 安全環境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 間의 軍비통제를 실현시키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韓半島 軍비통제 문제는 매우 複雜한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美·蘇間이나 東西間에 행해져온 戰略核武器의 제한이나 減縮을 위한 軍비통제 협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接近하기 어려운 재래식 軍비통제의 시도로써 出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韓半島 軍비통제는 核武器 制限이나 통제보다 南北韓이

保有하고 있고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在來式 軍備에 대한 제한과 통제에 기본적으로 焦點이 주어져야 할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接近의 複合性이 一層 더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 接近을 위해서나 民族的 生存에 대한 위협을 除去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軍備統制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增大된 만큼 그의 現實化는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민족의 새로운 지혜와 洞察力이 더욱 必要하게 된다고 보겠다.

參 考 文 獻

- 1) 『국방백서』, (서울:國防部, 1988), P.139.
- 2) 여기서 레짐 (regime)의 意味는 南北韓 間의 軍備統制를 可能케 하는데 必要한 原則이나 規範, 規則 및 決定節次 등을 包含한다.
- 3) Barry Buzan, Introduction to Strategic Studies : Military Technology &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Macmillan Press, 1987), p.252.
- 4) Hedley Bull,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1961), pp.ix-xi,
- 5) Joseph Kruzal, " Arms Control ; What is wrong the Traditional Approaches", Paul R. Viotti, ed., Conflict and Arms Control : An Uncertain Agenda, (Boulder and London : Westview Press, 1986), p.238
- 6) Gwyn Prins, " Arms Control : Lessons Learned and the Future, " R. Avenhaus, R. K. Huber, and J.D. Kettelle, eds, Modelling and Analysis in Arms Control, (New York : Nato Asi Series, 1986), pp.56-68 參照.
- 7) Arthur M. Schlesinger, Jr., A Thousand Days, (New York : Houghton Mifflin, 1965) Ch. XXXV.
- 8) 여기에는 두가지 會議 (Fora)가 개척된다. 하나는 프랑스를 包含한 나토 16個國이 바르샤바條約 7個國 間에 "유럽全體"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두는 會議이고, 다른 하나는 35個 CSCE參加國 間의 유럽에 있어 信賴와 安全構築措置 및 軍縮에 관한 會議 (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 CDE)이다.
- 9) 이에 관해서는 Barry Buzan, op. cit., pp. 256-275 參照.
- 10) The Military Balance, 1987-88, pp.162-64, 차후 統計는 別다른 表示가 없는 韓 The Military Balance, 1987-88에서 引用한 것임. 한편 北韓은 1987年 8月 7日 北韓「人民軍最高司領部」報도를 통해 1987年 12月까지 10萬名 장병들을 減縮할 것이라고 發表한 바 있다. 이 發表가 事實일 경우, 北韓의 兵力은 總 73萬 8千名이 될 것이다. 『內外通信』, 綜合編 (36) (1987.7.1-12.31), pp. 476-77 參照 ; 蘇聯은 1987年 10月 21日 蘇聯 관영통신 모스크바放送을 통해 北韓의 兵力을 60萬名으로 報도한 바 있다. 한편 北韓은 1987年 9月 10日 人民武力部 代辨人談話 속에서 北韓의 兵力이 42萬이라고 發表했었다. 『內外通信』, 綜合編 (36), pp. 487-88 參照.

- 11) CIA Factbook, 1986, pp.135-37 ; Stephen Goose, "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John Sullivan and Roberto Foss(eds.), Two Koreas- One Future,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p. 67 에서 再引用.
- 12) 그 밖에 蘇聯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그의 作戰活動을 擴大시키기 위해 베트남의 캄란灣이나 다낭을 軍事基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北韓 領空의 航空權도 確保했다.
- 13) Ibid.
- 14) Ralph N.Clough,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76), p.7.
- 15) Ralph N.Clough, p. 13.
- 16) Ibid., p.12.
- 17) Ibid., pp.12 ~ 13.
- 18) 『동아연감』, (1987), p.269.
- 19) Stephen Goose, Ibid., p.69.
- 20) 『中央日報』, (1988년 6월 18일).
- 21) 『朝鮮日報』, (1988년 6월 19일).
- 22) Korea Herald,(June 19, 1988).
- 23) 지해범, "運動圈 大學生 大解剖", 『月刊朝鮮』, (1988년 8월), p.188.
- 24) The Military Balance, 1987 ~ 1988, p.163.
- 25)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87 ~ 1988, (London, 1987), pp.421 ~ 424.
- 26) Jean Labayle Cougat, Combat Fleets of the World 1982~1983, p. 385 : Proceedings, March 1986, p.66 : Stephen Goose, Ibid.에서재인용.
- 27) 『한국일보』 (1985년 10월 6일)
- 28) 1983년에 韓國의 최초의 潛水艦(175톤)이 취역하였다. 이 보다 더 작은 潛水艦들이 建設중이라는 報道가 있었다. 또 한 隻에 500톤 규모의 潛水艦 建設이 計劃중이라고 보도되었다. John Moore, ed., Jane's Fighting Ships 1987 ~ 88, (London : Jane's Publishing Inc., 1987), p.333.
- 29) William Arkin and Richard Fieldouse, Nuclear Battlefield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 Co., 1985), p.120 : Stephen Goose. pp.76-77.
- 30) Stephen Goose, op.cit., pp.76-77.
- 31) 『동아연감』 (1987), p.87.
- 32) Stephen goose, op.cit., p.77.

- 33) Soviet Military Power, 198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123.
- 34) G. Jacobs, "Growth in Strength of Soviet Pacific Fleet," Jane's Defence Weekly, (8 July, 1989), p.34.
- 35) 이 증언에 따르면 蘇聯은 이 지역에 兵力 32萬5千名, 공격기 870대, 전차 4,500대, 장갑차 4,100대, 야포 및 박격포 7,000문, 주요전함 55隻, 核推進 攻擊潛水艦 48隻을 配置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1989年 6月 22日) 參照.
- 36) Soviet Military Power, 1988, p.124.
- 37) Soviet Military Balance, 1988-1989,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8), pp.43-44.
- 38) Ibid.: G. Jacobs, pp.34-45. 참조.
- 39) 이기택, "蘇聯의 極東軍事政策과 北韓과의 關係", 『국방학술논총』, 제1집 (1988年 7月), pp.22-23.
- 40) 上揭書, pp.5-6.
- 41) 『국방백서, 1988』, p.46.
- 42) Korea Herald, (July 13, 1989).
- 43) Soviet Military Power, 1988, p.123
- 44) 『국방백서, 1988』, p.46.
- 45) The Military Balance, 1987-1989, pp.27-28.
- 46) 『국방백서, 1988』, pp.50-52.
- 47) Soviet Military Power, 1988, pp.128-129.
- 48) Idid., p.130.
- 49) 『국방백서, 1988』, pp.61-62.
- 50) Korea Herald, (July 13, 1989): 소련 總參謀長 모이세예프(Mikhail Moiseev)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신에 따라(소련의)軍事理論과 實踐의 거의 모든 要素들이 再檢討"되고 있다고 發表한 바 있다. Jane's Defence Weekly (8 July, 1989), pp.19-39: 또한 소련은 증소관계가 改善되고 소련 兵力의 減縮이 實行됨에 따라 中央아시아 軍管區(Central Asian Military District)를 해체하였다. Jane's Defence Weekly, (24 June, 1989), pp.1330-1331.
- 5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22, 1985), p.45.
- 52) 1987年 1月 24日 日本政府는 1976年 11月이래 지켜온 防衛費 1%未滿 支出의 價換性을 깨었다: 예를 들면 1987年 會計年度의 防衛費는 GNP의 1,004%인 約 美貨 240億弗이었고 1988年 會計年度에는 GNP의 1,013인 美貨 約 287億弗이었다.

- 53)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관해서는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rper & Row, 1987) 參照
- 54) 當時 南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 合意한 5가지 事項들은 다음과 같다.
- 가)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실현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나)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개별적 人士들 사이의 광범한 政治的 交流를 실현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다) 南北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社會的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의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라)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대치상태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마) 對外民族에서 南北이 共同補助를 취하며 단일 民族으로서 民族的 矜持를 선양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보장한다.
-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 (서울 : 1988), p. 64.
- 55) 上揭書, p. 73.
- 56) 上揭書, 1988年 6月10日.
- 57) 上揭書, 1988年 10月18日.
- 58)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 對話 提議 比較』
- 59) 상계서, p.491.
- 60) Rudolf Avenfaus and Reiner K.huber, " Introduction : Systems Analysis and Modelling in Arms Contral ", R. Avenhaus, R. K. Huber, and J. D. Kettelle, op. cit., p. 19.
- 61) 이들 措置들의 區分에 관해서는 James. E. Goodby, " Security and Cooperation in Korea : A Framework for Analysis ", presented at the working group meetings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Statgic Institute at Stanfood University, July 9-16, 1989. 參照.

南北韓關係와 軍備統制問題

1989 年 12 月 28 日 印刷

1989 年 12 月 30 日 發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第 2 研 究 官 室)

印刷所 서라벌印刷(株)
